

2011 水原學研究所

第8號
水原學研究



水原文化院 附設 水原學研究所

발간사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1년간 수원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원문화원은 수원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 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앞으로 수원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분야의 자료를 수집·분석해 발전 방안을 모색,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현대인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연구하여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원학 연구소에서는 정기학술세미나·수원학연구 논문집·사료총서 발간 등 지역문화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8호는 조선읍성철거시행령으로 수원 화성행궁의 파괴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화성행궁의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조망해 본 정기학술세미나의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이라는 주제의 논문 4편과 “지적 충돌과 식민지적 굴절-일제협력세력과 독립운동가”라는 주제의 일반논문 4편으로 구성했습니다.

한 권의 책에도 지역을 위한 많은 고민들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수원지역의 문화 발굴과 발전을 위해 고심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오늘 이 걸음이 내일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에 서있지만 이는 또한 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수원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문화의 뿌리깊은 나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전통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료인 「수원학연구 8호」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편집위원과 집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水原學研究



발간사 : 염상덕(수원문화원장).....1

■ 특집 :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 김선희5
-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 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 한동민35
-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 김준혁61
-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역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 : 심승구83

■ 일반논문

- 지적 충돌과 식민지적 굴절 -일제협력세력과 독립운동가-
수원의 근대 자본가들 : 박철하105
- 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 나혜석 · 홍사옹 · 박팔양의 시를 중심으로 : 정수자135
- 신여성 林孝貞의 생애와 활동 : 정명희161
-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 이동근191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역사문화연구소
김선희

머리말

1. 화성행궁의 건립배경
 2. 화성행궁의 기능
- 맺음말

머리말

화성행궁은 정조대에 건설된 화성 신도시의 중심시설이었다. 정조는 현릉원을 조성하기 위해 1789년 기존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이후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다. 신도시에는 행궁과 성곽이 축조되었고, 농업과 상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정조의 친위군영이라 할 수 있는 장용외영을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기능이 함께 갖추어진 경기 남부의 중진(重鎭)으로 발돋움하였다. 정조의 적극적 지원과 당대 학자들의 지식이 결합되어 조성된 화성 신도시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甲子年 構想)’에 따라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중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화성 신도시 중심에 화성행궁이 자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화성행궁에 대한 연구는 화성 신도시 건설의 일부로만 이해되다가¹⁾ 근래 행궁의 복원과 활용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들²⁾이 나오

1)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2) 朴彦坤, 「水原 華城行宮의 復元을 위한 基礎的 研究」, 『弘大論叢』 15, 1984. ; 水原華城行宮復元推進委員會, 「學術發表會誌」 제1회, 1989. ; 水原市, 『華城行宮 復元事業을 爲한 說明會』, 수원시, 1993. ; 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회, 「화성행궁 활용방안 연구」, 『수원시 문화정책 보고서』, 2001. ; 정조사상연구회, 「華城行宮의 再照明」 『제40회 수원 '화성문화제' 화성행궁 복원기념 학술대회』, 2003. ; 최홍규,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현황과 복원·보존 방향 - 특히 화성의 복원·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水原文化史研究』 6, 2004. ; 최홍규,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화성행궁의 역사적 의의」 『화성학연구』 1,

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궁에서 이루어진 정조대 행사와 관련한 연구,³⁾ 행궁에 설치된 조경시설물을 고찰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⁴⁾ 그리고 행궁의 위치를 풍수지리와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⁵⁾를 비롯하여 행궁의 건설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행궁을 공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연구,⁶⁾ 행궁 복원의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⁷⁾

화성행궁에 대한 기본 자료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비롯한 『정조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와 각종 ‘의궤류’, ‘읍지류’ 등이 있다.⁸⁾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화성행궁의 건립배경과 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행궁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을 연계하여 행궁의 건립 배경을 파악할 것이다. 정조의 원행 기간 동안 행궁 각 건물들의 이용 현황과 이곳에서 시행된 다양한 행사 및 사건, 특히 화성행궁에서 치러진 혜경궁 회갑연의 여러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평소 유수부 건물로서 화성유수의 집무 공간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행궁의 실제 기능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1장에서는 수원을 이읍하는 과정에서 행궁이 조성되던 시기, 화성유수부로의 승격과 을묘원행을 앞두고 행궁이 증축되던 시기로 나누어 행궁의 건립 배경을 알아보고 장용외영이 행궁에 설치된 시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접근해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행궁의 조성 배경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궁의 건물별 기능을 크게 3개

3) 최여진, 「華城陵幸圖에 대한 繪畫性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2. ; 허용호, 「화성행궁과 전통 연회」,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3. ; 강민영, 「奉壽堂 進饌과 洛南軒 養老宴의 音樂的 考察: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4) 김영모, 「화성행궁 조경시설물의 고증 및 복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2005.
5) 鄭盤石, 「水原地域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華城行宮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논문, 2003.
6) 수원시, 『수원 화성 행궁』, 수원시, 2003. ;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3, 국립고궁박물관, 2010.
7) 한영우, 『화성복원을 위한 시설물 고증 및 방향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006
8) 연대기자료는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華城城役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水原府邑誌』, 『華城志』 등이 있으며, 정조대 간행된 사료는 『水原旨令謄錄』, 『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종대 제작된 『華城重記』도 중요한 사료로서 행궁의 보수 및 개축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하고자 한다. 정조대 화성행궁의 조성과정을 통해 화성 신도시에서 화성행궁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

1789년 사도세자의 묘역인 영우원을 구 수원부 읍치로 천봉하고, 수원부는 팔달산 아래로 이전되었다. 수원은 1793년 화성으로 개칭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다. 이후 수원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화성이 축조되었으며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조는 1804년(甲子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에서 노후를 맞으려는 ‘갑자년 구상’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사도세자를 추존하고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높여 근본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화성행궁은 현릉원을 조성하고 기존 수원부 읍치를 이전하면서 관아로 신축된 이후 찾아지는 원행에 대비하여 관아를 개수 및 증축하면서 완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건립된 화성행궁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기에 따라 건립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수원 읍치 이전기

『궁궐지』에는 화성행궁을 포함한 조선시대 행궁이 모두 8개가 기록되어 있다.⁹⁾ 이 가운데 의주행궁과 화성행궁은 평소 관아로 사용되는 건물이 행궁으로 사용되었다. 의주 행궁이 임진왜란(1592년, 선조 25)때 피란을 가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화성행궁은 행궁이 조성된 이후 원행시마다 임금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총 66회 능행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영우원과 현릉원은 능행 총 횟수의 절반에 가까운 31회를 방문하였다.¹⁰⁾ 특히 1789년 영우원을 현릉원으로 천봉한 이후에는 1800년 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7박 8일까지 원행이 이루어

9)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宮闕志』, 권5, 都城志. 2000.

- 피난을 위해 세워진 행궁으로 서울과 근거리의 강화부·광주부·양주행궁이 있고, 이보다 멀리 떨어진 전주·부안·의주에도 유사시에 대비한 행궁들이 세워졌다. 온양행궁은 임금이나 왕비가 휴양을 위해 세워진 행궁이고,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행궁으로 만들어졌다.

1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44~45쪽, 1997,

졌다. 이 기간 동안 정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화성행궁에서 머물렀다. 원행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원행에 동원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원부 관아를 계속해서 보수하거나 증축하면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화성행궁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정조 13) 7월 11일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1725~1790) 상소에 따라 영우원 천봉이 결정되고, 그 날로 현룡원 조성을 위한 구읍 이전 사업을 담당할 관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룡원이 조성된 화산(花山) 일대에 자리하던 기존 수원부 읍치는 현재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신읍 수원에는 새로운 관아들이 서둘러 건축되었다.¹¹⁾ 정조는 수원 신읍이 조성되던 1790년(정조 14) 2월 9일 현룡원 조성 이후 첫 번째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행궁의 동헌을 장남헌(壯南軒),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堂), 사정(射亭)은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이름 짓고 모두 임금의 글씨로 현판을 써서 걸도록 하였다.¹²⁾ 같은 해 5월에는 기타 건물을 비롯한 창고와 행랑이 신축되어 총 340여 칸의 건물이 완성되었다.¹³⁾ 1789년(정조 13) 7월부터 1791년(정조 15)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수원의 신읍이 만들어지면서 수원부 관아가 들어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읍의 관아 곳곳에는 정조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이러한 조치는 행궁의 위상과 함께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성 건설은 사도세자의 묘역으로 조성된 현룡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런 표면적 이유 이외에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과 성곽을 건설하여 서울 남부의 외곽 방어체제를 갖추고 상업·농업 등의 자족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대도시로 키우고자 하였다.¹⁴⁾ 정조가 꿈꾸었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에 화성행궁도 함께 탄생한 것이다.

11) 『水原旨令瞻錄』 정조 13년 9월 26일

12) 『正祖實錄』 권29, 정조 14년 2월 庚申

13) 『正祖實錄』 권30, 정조 14년 5월 丁亥

1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69쪽, 1996.

2) 행궁 증축기

정조는 능행길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군사훈련을 지시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였다.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여 새로운 능행로로 이용하고, 화성·광주 등 거점도시를 상업도시로 육성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1793년 화성유수부 설치와 1795년 광주유수부 설치에 개성·강화·화성·광주로 구성되는 사도(四都)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조대 후반 수도권 지역이 제도적으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⁵⁾

수원이 이렇게 서울 남쪽의 대도회로 급성장한 것은 정조의 장기적 정국 구상 가운데 하나였다. 정조는 수원을 대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행궁을 건립하고 화성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시책을 계획하였다.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군사 요충지로 급부상되었으며,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증축하여 직할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설물은 화성이다. 그러나 화성 건설에 앞서 대도회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시초로 화성행궁을 건립한 것이다.

현릉원 조성 이후 매년 치러진 원행 기간 동안 정조의 임시 거처는 화성행궁이었다.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정조는 수원의 역사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에 걸도록 하였다. 기존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유수는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유수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이때 유수는 정2품 이상, 판관은 5품 음관(蔭官)으로 의망(擬望)하도록 하였다.¹⁶⁾ 이러한 조치는 수원이 당시 4유수부 가운데서도 정2품 이상의 대신이 총괄하는 가장 상위의 유수부로 서울 다음 가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¹⁷⁾

정조는 화성에 유수를 둔 이유로 선침을 수호하고 행궁을 보필하기 위함이라고 슬회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유수부 위상에 걸맞는 인물로 잠

15) 김문식, 「조선 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경기논단』 6, 경기개발연구원, 27~28쪽, 1997.

16)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월 丙午

17) 유봉학, 앞의 책, 150쪽, 1996.

18)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5월 丙辰

시 물러나 있던 그의 측근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초대 화성 유수에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해부터 화성 성역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행보는 화성 신도시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성행궁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신도시 화성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성행궁은 1789년 신축된 이후 혜경궁의 회갑연에 대비하여 1794년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화성행궁이 신축된 후 계속해서 증축되었다 사실은 향후 갑자년 구상에 대비하여 임금과 왕실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아래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는 원행기간 동안 행궁에 머물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현릉원을 다녀오고, 화성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매화시방을 관람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군복을 갖추어 입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에서 직접 말을 타고 신평루를 통해 행궁을 드나들었다.¹⁹⁾ 정조는 이러한 군사행렬을 보여줌으로써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평루에서 화성부의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 사민(四民)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진휼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평소 원행 길에서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대민정책을 펴려던 그의 의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정조 자신이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소망을 회갑연을 맞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소망은 화성행궁의 낙남헌을 통해 확인된다. 행궁의 여러 건물 중 열린 구조로 지어진 낙남헌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는 정조대 화합정치的一面을 여실히 드러낸다. 낙남헌은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옛 득중정 자리를 옮기고 그 터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낙남헌은 넓은 대청마루의 삼면에 분합을 설치하여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분합을 모두 올려 마루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하였으며 앞마당에는 담장을 설치하여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조대에 이르러 왕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임금과 신료,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상하동락(上下同樂)’의 경지를

19)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1795년 윤2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2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52~55쪽, 1997.

보여주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¹⁾ 결국 정조가 꿈꾸던 백성들과의 소통공간이 신도시 화성의 행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화성행궁의 낙남헌 앞마당은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임금은 물론 신료들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펼쳐졌다. 화성부의 문무과 별시, 화성성역이 끝난 후 공역에 참여하였던 사람들과 화성부민이 모두 모여 거행된 성대한 낙성연, 화성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호쾌행사가 치러졌다. 화성행궁은 지방의 행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행사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조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용외영 설치기

화성행궁이 외형적 건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행궁에서 치러진 다양한 행사들과 행궁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의 운영 또한 행궁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궁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동시에 장용외영이 설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793년 장용외영의 창설은 왕권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군의 편제를 오위제(五衛制)로 전환하여 중앙 군영을 개혁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장용외영을 설치한 것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 의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수원은 총융청(摠戎廳)의 중영(中營)이었는데 이를 독립시켜 장용외영을 설치함으로써 총융청의 규모를 크게 약화시켰다. 장용외영을 화성에 설치함으로써 경기지역 방어의 주력이었던 총융청과 수어청의 세력을 축소시킨 것이다.²²⁾

정조는 1791년 현릉원 원행부터 용복(戎服)이나 군복(軍服)을 입고 능행을 실시하였다.²³⁾ 원행 때마다 장용외영의 군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정조르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군복을 입고 일사불란한 군사행렬을 지

2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75~76쪽, 2001.

22)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22, 일지사, 201~204쪽, 1996.

23)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己丑.

어 수원을 왕래하였다. 이후 수원에서는 군령에 따라 군사훈련을 사열 하였던 것이 정례화 되기도 하였다.²⁴⁾

장용영 병력은 178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790년(정조 14) 1300여명, 화성이 유수부로 승격되는 1793년(정조 17) 2100여명의 군사가 충원되었다.²⁵⁾ 이것은 수원 이읍 이후 화성행궁이 조성되던 시기와 화성 건설 이후 을묘원행을 앞둔 시기에 장용영 편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용외영이 거처하던 군영도 1794년 신평루 좌우행각 21칸과 남북군영행각 좌우익랑 38칸이 새롭게 지어졌다. 신평루 누문 6칸과 남북군영행각 24칸이던 규모가 거의 2배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이는 장용외영 군사의 충원에 따른 조치였던 것이다.

1793년(정조 17) 10월 비변사에서 올린 「장용외영군제절목」에 의하면, 보군(保軍)은 13초(哨)로 하고, 정군은 다시 3사로 편제하여 전사(前司)와 후사(後司)는 각 5초, 중사(中司)는 좌초·중초·우초의 3초가 마련되었다. 장령(將領)은 내영과 마찬가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3사(司)의 파총(把摠)은 경내에서 경력이 있는 당상 무관으로 차출하고 각 초(哨)의 초관(哨官)은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였다.²⁶⁾ 보군은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행궁을 숙위하기 위한 번을 썼다. 13초의 군사를 5번으로 편성하여 15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11월 16일부터 전사를 시작으로 번을 서도록 하였으며 친군위도 좌열과 우열로 번을 나누고 외영에 주둔하면서 행궁을 호위하도록 하였다.²⁷⁾

보군이 번을 설 때는 해당 사의 파총과 각 초의 초관이 군사를 통솔하도록 하였다. 이때 파총은 평소 장령이 입직(入直)하던 곳에 입직하고 초관은 각각 자신의 군사들이 번을 든 곳에 배치되었다. 절목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군영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번을 서는 장소는 편의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북군영 행각은 이미 장령의 처소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궁 내에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으며

2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52쪽, 1996.

25) 이방섭, 「정조의 장용영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 53, 조선시대사학회, 55-56쪽, 2010.

26) 초관 중 일급 자리는 守門將·部將로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고 여섯 자리는 편제를 정하되 선전관·수문장·부장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직 朝官으로 參上·參下와 出身을 통틀어 차출한다.

27) 『正祖實錄』 권38, 정조 17년 10월 辛巳.

1794년 증축 이후부터 우열은 북영, 좌열은 남영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²⁸⁾ 정조대 강력한 군권의 상징인 장용외영이 행궁의 정문 좌우에 배치되어 화성행궁의 숙위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궁은 왕이 거처하는 침전 공간과 정무를 보는 편전구역으로 구성된다. 강화행궁은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로 피난하여 기존의 관아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1631년(인조 9)에 건립되었다가 1711년(숙종 37)에 중수되었다.²⁹⁾ 이후 강화행궁은 1858년(철종 9)까지 종묘의 신전을 모시기 위한 장녕전, 외규장각, 봉선전 등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건립되었다. 남한행궁은 1626년(인조 4) 내행전(內行殿) 상궐(上闕) 72칸, 외행전(外行殿) 하궐(下闕) 154칸이 건립되었다.³⁰⁾ 이후 1829년(순조 29)까지 조성되는 건물들 역시 강화행궁과 마찬가지로 공해와 누정 및 종묘사직 봉안처 등의 건물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숙종대 국가의 보장처는 남한산성과 강화가 두 축을 이루고 있었다. 양란을 겪은 이후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에 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행궁 건물 대부분은 생활공간과 제향공간만 새로 건립되었을 뿐, 행궁의 부속 건물에 군대가 직접 위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화성행궁에는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는 행사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과 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장용외영의 숙직시설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궁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신평루 좌우에 장용외영의 주둔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행궁의 숙위는 물론 그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장용외영의 설치는 현릉원과 화성행궁 및 화성을 수호하고, 원행시 임금을 호위하는 친위군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갑자년 구상에 따라 임금이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으로 내려오면 그의 거처를 당시 군영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용외영이 수호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8) 『華城城役儀軌』 附編1, 公廡, 南北軍營行閣

29)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8~23쪽, 2001.

- 이하 강화행궁과 남한행궁에 관해서는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30) 柳承宙, 「南漢山城의 行宮·客館·寺刹建立考」,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66~268쪽, 2003.

2. 화성행궁의 기능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행궁의 건립배경에 따라 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행궁의 주요 건물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¹⁾ 우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 낙남헌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행사의 공간, 행궁 정문인 신평루를 중심으로 행정·군사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도 1> 수원시, 『화성행궁자기본 및 지표조사보고서』, 수원시, 1997.

1) 봉수당(奉壽堂)과 생활 공간

봉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은 행궁의 안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을묘년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소로 이용되었던 장락당은 봉수당 남서쪽에 위치하고, 장락당 남쪽에는 행궁의 내당으로 원행기간동안 정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복내당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사용되다가 원행 기간 동안 편전의 역할을 담당한 유여택은 내당의 동쪽 담장 너머에 세워졌다.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봉수당은 행궁의 사방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봉수당은 평소 부사나 유수가 집무를 보는 동헌으로 이용되다 임금이 원행하였을 때에는 정당(正堂)으로 사용되었다. 수원부 동헌에서는 읍내 유생들을 대상

31) 다음은 『華城城役儀軌』에 실린 <圖說>의 <行宮全圖>와 부편 1의 <行宮>과 <公廨>에서 확인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화성행궁 주요건물을 공간별로 나누어 정리한 현황표이다. -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5.

구 획 공간	건 물 명
봉수당과 생활공간	봉수당 · 유여택 · 복내당 · 장락당 · 경룡관
낙남헌과 행사공간	낙남헌 · 득중정 · 노래당 · 미로한정
신평루와 행정·군사공간	신평루 · 남북군영행각 · 외정리소 · 서리청 · 집사청 · 비장청

으로 하는 과거시험이 치러졌으며³²⁾ 수원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들이 봉수당에 설치된 게시판을 통해 전달되었다.³³⁾ 봉수당에서 치러진 가장 중요한 행사는 1795년에 치러진 혜경궁의 회갑연으로 당시 진찬 과정은 《을묘원행정리의궤》를 통해 알 수 있다.³⁴⁾

장락당은 을묘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봉수당 남쪽 벽에 잇대어 지붕이 겹쳐져 있는 독특한 구조의 동향 건물로 지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연회가 펼쳐지는 동안 혜경궁이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³⁵⁾ 회갑연에서 혜경궁이 침소인 장락당과 봉수당 사이를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당시 장락당 앞의 누문인 경룡관도 함께 세워져 중앙문을 통해 행궁의 정당으로 들어와 봉수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락당을 드나들 수 있었다.

복내당은 관아의 안채에 해당하는 행궁의 내당(內堂)이다. 복내당은 수원 읍치 이전에 맞추어 내사(內舍)로 창건되었다가 을묘년 원행 기간 중 정조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었다. 복내당은 평소 지방 관아의 안채이면서 임금의 원행시에는 침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궁의 가장 깊숙한 곳인 서남쪽 모퉁이에 지어졌다. 이런 이유로 다른 주요 건물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문을 곳곳에 배치하였던 것과 달리 복내당의 서남쪽은 외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소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여택은 평소 유수가 거처하다가 임금이 행차하면 머물던 곳이다. 유여택의 앞쪽 뒷마루에는 공신루(拱宸樓)라는 누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누각과 같은 형태로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는 휴식공간[小次]으로 이용되었다. 임금의 원행기간 동안 편전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의 기능에 맞게 사방에 문이 만들어져 드나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유여택은 원행기간 동안 여러 대신 및 화성유수·암행어사를 접견하는 편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조는 을묘년 원행 첫날 유여택에서

32) 『水原旨令謄錄』 정조 14년 8월 9일 / 『日省錄』 정조 18년 1월 辛丑

33) 『水原旨令謄錄』 정조 14년 11월 3일 / 『正祖實錄』 권34, 정조 16년 1월 丁酉

3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1, 筵說 正祖 19年 閏2月 13日

35)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169쪽, 2002.

시신(侍臣)들과 암행어사 홍병신(洪秉臣)을 접견하고 원행기간 동안 치러질 각종 행사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³⁶⁾ 또한 윤2월 14일 새벽 신평루에서 진흙행사를 갖기에 앞서 유여택에서 행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신료들을 만나 진흙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³⁷⁾ 이외에도 정조는 유여택에서 과거 급제자들을 접견하기도 하였으며 1798년에는 시사(試射)·시방(試放)의 입격인(入格人)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⁸⁾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은 궁궐의 일반구조와 마찬가지로 정문과 일직선의 구조로 지어져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평소 유수의 거처로 사용되거나 원행시에는 임금의 침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다. 동시에 행궁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수월하도록 많은 문들로 연결되어 있어 정당의 기능과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에도 적합하도록 지어졌다.

2) 낙남헌(洛南軒)과 행사 공간

화성행궁 건물 중에서 상징적이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낙남헌이다. 행궁의 북쪽에 자리한 낙남헌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가 펼쳐졌다. 낙남헌의 남쪽에는 휴식용 건물인 노래당, 동북쪽은 객사로 사용되었던 우화관³⁹⁾이 있었다.

1794년 옛 득증정 자리에 지어진 낙남헌에서는 혜경궁 회갑연을 기념하는 양로연, 문무과 별시, 화성 낙성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낙남헌에서 치러진 가장 중요한 행사는 혜경궁의 회갑연을 기념하는 양로연이었다. 전술하였듯이 당시 낙남헌의 기능적 측면은 『화성능행도』의 <낙남헌양로연도>를 통해 확인된다.⁴⁰⁾ <낙남

36)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윤2월 10일

37)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윤2월 14일

38) 『壯勇營故事』 권8, 1798년 2월 3일

39) 于華館은 화성유수부의 숙소로 을묘 원행 기간 동안 치러진 문무과 별시에서 유생들이 대기하거나 답안지를 접수받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화성 각 건물들의 상량문을 봉안하는 제의를 올릴 때에는 헌관들의 대기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낙남헌의 북쪽에 지어졌던 강무당·무고·수성고과 함께 미복원 상태이다.

40) <화성능행도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소장.

현양로연도>의 하단에는 시위군병과 양로연을 구경하고자 나온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담겨있다. 특히 화면의 중앙에는 좌우의 끊어진 벽돌담을 그대로 표현하여 이동식 담장으로 넓어진 낙남헌 앞마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회에 참여하는 신료는 물론 낙남헌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담장 주변에서 잔치의 흥겨움을 함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모두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낙남헌의 열린 마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⁴¹⁾

또한 을묘년 원행 기간 중에 문무과 별시가 치러졌으며⁴²⁾ 화성성역 완료 후 성대한 낙성연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화성 공역을 지휘한 총리대신 및 낙성연의 초대 손님은 물론 공사에 참여한 감독 이하 일꾼들, 각지에서 구경 온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 화성 건설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⁴³⁾ 또한 정조는 낙남헌에서 화성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노고를 치하하는 호궐행사를 가지기도 했다.⁴⁴⁾ 위의 행사들은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와 <대호궐도>를 통해 확인된다.

낙남헌과 붙어있는 득중정은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다. 득중정에서는 화성부의 유생과 무사(武士)들의 시험이 여러 차례 치러졌다.⁴⁵⁾ 정조는 화성에 내려올 때마다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즐겼으며⁴⁶⁾ 을묘년 원행에서는 대신들과 활쏘기를 하고 매화시방(埋火試放)을 관람하기도 하였다.⁴⁷⁾ 활쏘기 장소인 득중정의 앞마당은 낙남헌과 하나로 연결되

- 이외에 <봉수당진찬도>, <득중정어사도>, <낙남헌방방도>를 통해 화성행궁의 당시 모습이 확인된다.

41) 낙남헌은 행궁에서의 공식행사가 열리던 공간으로 고종대까지 행사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1891년(고종 28)에 간행된 『화성중기』에는 낙남헌을 채우고 있던 각종 기물(器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행궁 주요 건물들의 돛자리[地衣] 구비현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낙남헌의 기물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낙남헌에는 《팔첩성도대병》을 비롯한 다양한 병풍들, 향로와 향합, 촛대 등의 기물, 의걸이[衣巨里]장과 방석, 돛자리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가 추구하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낙남헌이 고종대까지도 행사공간으로서 제 기능이 유지·관리 되어 오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癸巳

43) 『華城城役儀軌』 附編2, 廿結 1796年 10月 7日

44) 『華城城役儀軌』 권2, 犒饋 1795년 윤2월 13일

이외에 1796년 정월 21일, 8월 15일에도 犒饋가 이루어졌다.

45) 『正祖實錄』 卷34, 정조 16년 1월 乙未 / 『承政院日記』 冊 1713/91, 정조 17년 1월 丁未

46) 『正祖實錄』 卷29, 정조 14년 2월 辛酉 /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辛卯

어 대규모의 행사가 있을 경우 낙남헌과 함께 상하동락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미로한정과 노래당은 휴식공간이었다. 미로한정은 득중정에서 오르는 팔달산 기슭에 세워진 행궁 후원의 정자(亭子)로 혜경궁의 처소였던 장락당과 정조가 머물던 복내당과 통하도록 지어졌다. 노래당은 낙남헌과 득중정을 연결하는 건물로 여러 가지 행사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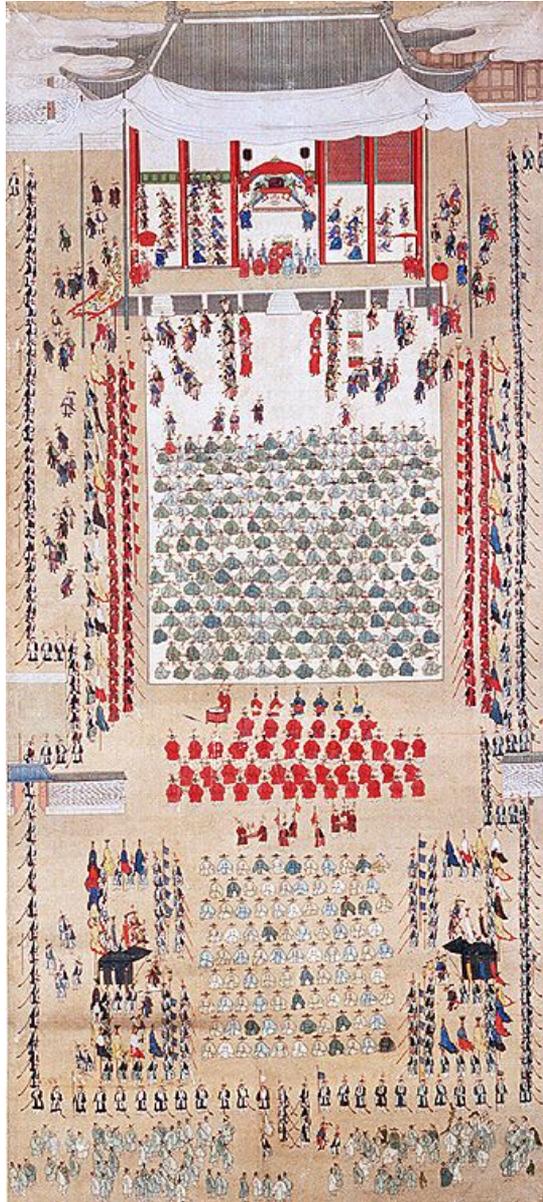
낙남헌과 그 주변 건물들은 정조대 화합정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신분적 차별을 뛰어넘어 임금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47) 『正祖實錄』卷42, 정조 19년 윤2월 丙申



<도 2> <봉수당진찬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도 3>. <낙남헌양로연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도 4>. <낙남헌방방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도 5>. <독중정어사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3) 신평루(新豊樓)와 행정·군사 공간

화성행궁의 정문은 신평루이다. 그리고 그 좌우에 들어선 부속건물들은 행궁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공간들이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남북군영행각이 자리하며 북군영의 서쪽은 집사청이 붙어있고, 남군영의 서쪽 담과 맞닿아 서리청이 세워졌다. 또한 서리청과 서쪽담을 사이에 두고 넓은 저장 공간을 갖춘 외정리소가 만들어졌다.

신평루에서는 을묘년 회갑연 기간 중 진흥 행사가 베풀어졌다.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성부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흠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의 사민(四民)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행사에 친히 참석하였다.⁴⁸⁾ 평소 정조가 추구하던 백성들과 소통이라는 대민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화성행궁의 대표적 행정공간은 1796년 유여택의 동쪽 행각을 수리하고 빈희문 밖에 터를 닦아 건립한 외정리소이다. 원래 정리소는 임금의 행차 도중 유숙하는 곳에 담당관리가 사전에 도착하여 임시로 거처할 곳의 제반사항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 1789년 이후 매년 현릉원 원행이 실시되면서 수원의 재정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혜경궁 회갑연을 치르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정리소가 을묘년 이후 별도로 화성부에 외소(外所)를 설치하고 원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졌다. 정리소의 1층은 헛간, 2층은 다락으로 구성된 2층 구조로 만들어졌다. 정리소 북쪽에는 환기를 위하여 살창[箭窓]⁴⁹⁾이 설치된 창고건물 기층헌(起層軒)이 새로 들어섰다. 정리소와 기층헌은 행궁의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당시 도성에 있던 장용내영은 1787년(정조 11) 이현궁(梨峴宮)에 관청을 마련한 이후 1799년(정조 23년)과 1801년(순조 1)에 증축되었

48)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傳教 윤2월 13일

4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87~88쪽, 2001.

살창이란 창울거미를 짜고 울거미의 아래위 가로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살대를 꽂아 만든 창이다. 살창은 살대 사이로 빛을 받아들여긴 하지만 채광창보다는 환기창으로 만들어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다. 보통 부엌의 부뚜막 위나 저장 공간인 곳간·광에 설치하여 부엌의 연기나 습기를 밖으로 배출시켰다. 동시에 공기를 환기시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물자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용이하였다.

다.⁵⁰⁾ 이때 증축된 대부분의 건물이 창고 용도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장용내영에 보관된 미곡과 군수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화성에서는 이미 장기적으로 물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행궁이 증축되는 시기에 장용외영의 미곡과 군수물자의 관리에 대비하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거나 창살을 마련한 창고용 건물을 마련한 것이다.

그 밖의 행정공간으로는 1789년 정리소 동편에 세워진 비장청으로 유수부의 비장(裨將)들이 사용하였다. 1796년 비장청의 동편에 문서의 기록 및 발급·수령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사용하였던 서리청, 1789년 좌익문 밖 동북 담장 안쪽에 집사(執事)들이 사무를 보던 집사청이 자리하였다. 집사청은 궁궐의 액정서(掖庭署)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화성행궁의 집사청은 평소에는 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담당하던 집사들이 이용하다가 원행기간이나 작헌례를 올릴 때에는 임금을 보좌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남북군영행각은 궁궐이나 관아에 지어진 행랑과 같은 형식으로 화성행궁 정문인 신평루의 좌우에 지어져 행궁의 대문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1789년 처음으로 신평루 좌우에 지어진 후 1794년 행각을 추가로 지었다. 이곳은 장용외영이 설치되기 전에는 장령(將領)들의 처소로 수원 지방군들의 숙직장소였다. 당시 우열은 신평루 왼쪽의 북영, 좌열은 신평루 오른쪽의 남영에 각각 100명씩 주둔하였다. 이후 1789년(정조 23)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좌우열을 없애고 1,2,3번을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을 양쪽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일대는 정문을 2층 누각으로 지어 위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문 좌우에 최고의 군영인 장용외영의 군인들을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향후 상왕 정조와 신료 및 장용외영 군대와 백성들 모두가 화성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의 체반시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50) 이방섭, 앞의 논문, 71쪽, 2010.

51) 정정남, 「장용외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藏書閣』 21, 59~61쪽, 2009.

맺음말

정조대 건립된 화성행궁은 정조가 추구했던 화합정치의 상징적 의미가 녹아있는 곳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행궁의 건립되는 시기에 따라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 행궁을 증축하던 시기 및 행궁에 장용외영이 설치되던 시기로 나누어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을 살펴보았다. 1789년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이전된 수원 신읍치에는 새로운 관아가 들어섰다. 이듬해까지 약 340여 칸의 건물이 완성되고 각 건물에는 어필로 쓴 현판이 걸려져 행궁의 위상은 물론 왕실의 권위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매년 정조의 현륭원 원행이 이루어지고, 유수부 승격 이후 화성이 건설되면서 화성은 대도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795년에는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당시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을묘원행 기간 동안 임금, 신료와 백성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뜻 깊은 공간이었다. 이후에도 낙남헌에서는 문무과 별시, 화성 성역 이후 낙성연과 호궐 행사가 치러지면서 정조가 꿈꾸던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정조대 최고 군영인 장용외영이 화성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권 강화를 위해 창설되었던 장용영은 정조 후기에 이르러 화성부에 장용외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군대가 직접 행궁 내에 주둔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화성행궁에 장용외영의 군병들이 직접 주둔하면서 행궁을 수호하였다는 것은 화성행궁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행궁의 주요 건물과 그 주변 공간들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정조대 원행 시는 물론 평상시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주요 건물의 기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을묘년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과거 시험이 시행되고, 수원부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가 게시되는 등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다. 유수의 거처였던 유여택은 원행 때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되며 대신들과 접견장소로 이용되었다. 혜경궁 회갑연에 맞추어 새롭게 지어진 장락당은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는데 회갑연에서 혜경궁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봉수당과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다. 장락당의 정면에 지어진 2층 누각의 경룡관은 대문구실을 하였으며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내당인 복내당이 만들어져 원행시 임금의 처소로 이용되었다.

이동식 담장이 설치된 낙남헌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궐의식 등이 펼쳐졌다. 낙남헌의 앞마당과 이어지는 득중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미로한정은 화성행궁이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건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성대한 행사가 펼쳐짐으로써 역사적 공간으로서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부 및 인근지역의 사민과 기민들에게 진휼행사가 베풀어졌다. 외정리소에서는 잦은 원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신평루 좌우에 배치된 장용외영에는 친군위가 머물며 행궁의 대문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화성행궁은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추구하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행궁 각 건물의 공간별 기능에 맞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낙남헌은 이러한 건립배경과 기능에 맞는 대표적 공간이었다. 아울러 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고유한 기능으로 설계, 배치되었고 평소 화성유수의 관아로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의 총체적인 문화적 역량이 결집되어 탄생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그 가치는 이어져오지 못하다 최근 들어 행궁의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행궁은 주요 건물의 실제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이유로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형편이다. 이제 정조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고 행궁 주요 건물들의 실제 기능을 파악한다면 향후 화성행궁에서의 생활과 문화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 수원시, 『원행을묘정리의궤(역주)』, 수원시, 1996.
수원시, 『화성행궁지-기본 및 지표조사보고서』, 수원시, 199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宮闕志』, 2000.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5.
수원시, 『장용영고사(역주)』 수원시, 2005.
수원시 화성사업소, 『(국역)수원하지초록-水原旨令謄錄』, 수원시, 2007.
수원시, 『(국역)화성중기-華城重記』 수원시, 2008.
-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22, 일지사, 201~204쪽, 1996.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1997
김문식, 「조선 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경기논단』 6, 경기개발연구원, 1997
유봉학·정해득, 「화성 관련 유적」,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건축공학과 석사논문, 2001.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柳承宙, 「南漢山城의 行宮·客館·寺刹建立考」,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003,
경기문화재단, 「화성행궁의 건축」,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정정남, 「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藏書閣』 21, 2009.

이방섭, 「정조의 장용영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3, 국립고궁박물관, 2010.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62.0cm,
리움미술관.

[국문초록]

화성행궁은 1789년 현릉원이 조성되고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까지 행궁의 건물들이 완성되고 각 건물에는 정조 어필의 현판이 걸리면서 행궁의 위상을 높였다.

이후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되고, 화성이 건설되면서 신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때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넓은 낙남헌 앞마당에서는 임금과 신료 및 백성들이 모두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조대 최고의 균영인 장용외영은 화성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배치되어 행궁을 직접 수호하였다.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으로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다.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활공간은 평소 유수의 거처이지만 원행 때는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된 유여택, 내당인 복내당,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된 장락당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이동식 담장이 설치된 독특한 구조의 낙남헌은 행사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궐의식 등이 펼쳐졌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은 행사공간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 옆에 자리한 득증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낙남헌과 함께 불꽃놀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노래당과 미로한정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는 진흙행사가 베풀어졌다. 신평루 주변 공간은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행궁을 호위하기 위해 친군위들이 속직하던 남북군영행각, 잦은 원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외정리소,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화성행궁은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정조의 화합정치가 실현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주제어 : 화성행궁, 정조대 화합정치, 봉수당, 낙남헌, 신흥루, 장용외영

[Abstract]

**Arrangement and Functions of Important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t Jeongjo Dynasty**

Kim, Seon-hee

Construction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began in 1789, when Hyeonyungwon tomb was built and the location of Suwon-*Eup* office was moved. Buildings of Haenggung Palace were completed in the following year and the signboards with King Jeongjo's calligraphy which got hung on each of the buildings, gave prestige to Haenggung Palace. After that, Suwon was promoted to the status of a *yusu-bu* and, with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foundation for a new town was put into place. Especially, Hwaseong Haenggung Palace underwent a large-scale expansion with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ceremony in mind. At that time, movable walls were installed in the front yard of newly-built Nangnamheon building and were made to open and close according to the situations. In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uilding, various events in which the king, court officials and commoners participated were held. This was a realization of political ideals of King Jeongjo who intended to interact with commoners directly. Also, Jangyong-oeyong, the most powerful military unit at the time of King Jeongjo, was positioned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Sinpungnu gate, the main gate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nd directly protected the Haenggung Palace.

Main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were divided into three zones. First, Bongsudang hall, the royal audience hall of Hae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Lady

of Hae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ceremony was grandly held and functioned as government office of Suwon-*Bu* in ordinary times. Living quarters, located deep inside Haenggung Palace, consisted of Yuyeotaek building which was official residence of Yusu in ordinary times but was used as temporary residence of the king during his stays, Bongnaedang building which was women's quarters, Jangnakdang building which was used as Lady Hyegyeong's bed chamber, etc. Second, Nangnamheon building, a distinct structure installed with movable walls, was used as a space for events. There, events such as grand parties to celebrate 60th birthdays for the elderly, ceremony to celebrate completion of Hwaseong Palace, special national exams to select court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and Ho-gwe ceremony (treating soldiers with food and drinks) were held.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uilding was a space for events, a stage of unity and communication where the ruling class and commoners became one. Located right next, Deukjungjeong pavilion was a stage not only for archery but, along with Nangnamheon building, for fireworks, And Noraedang building and Mirohanjeong bower were used as rest areas. Third, at the Sinpungnu gate, the main gate of Haenggung Palace, rice and porridge were distributed to the poor in celebration of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Spaces around Sinpungnu gate were used to conduct military and administrative affairs. They included North and South Forces Yeonghaenggak buildings used by night-duty royal guards to protect Haenggung Palace, Oejeongniso building housing a division in charge of the king's frequent long stays there, and Bijangcheong, Seoricheong and Jipsacheong offices in charge of miscellaneous matters of Haenggung Palace.

Hwaseong Haenggung Palace was a symbolic space in which King Jeongjo's policy of unity to strengthen the powers of king through a rule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as realized.

Keywords: Hwaseong Haenggung, King Jeongjo's policy of unity, Bongsudang, Nangnamheon, Sinpungnu, Jangyong-oeyeong

특집 :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 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머리말

1. 식민통치기구의 설치와 수원부 관아의 훼손
 2. 의료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 맺음말

머리말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제의 강제력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시작하였고, 그 광풍은 수원을 비껴가지 않았다. 이에 1906년부터 화성행궁의 신평루 옆 북군영(北軍營)을 헐어내고 수원경찰서가 들어서고, 1910년 남군영(南軍營)을 헐고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가 설치되면서 조선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화성행궁의 훼손은 1911년 자혜의원을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奉壽堂)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벽돌조의 건축물들이 행궁의 중심전각들을 헐고 높다랗게 들어서면서 화성행궁은 제 모습을 잃게 되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근대는 자주적으로 구성한 그것이 아니었다. 수원지역의 근대사를 담은 대하소설 『면동』의 작가 홍성원이 일컬었듯이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다. 동시에 수원 출신의 시인 박팔양(朴八陽)이 일컬었듯이 ‘황홀한 근대의 무지개’를 쫓아 기존의 질서와 편견을 탈출한 부류들은 새로운 세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대는 민중과 민족을 발견한 각성된 이들에게는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지만, 무언가를 쫓을 수 있는 근대의 황홀함에 달떠 친일과 치부를 향해 질주할 수 있었던 욕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 다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생존과 보다 나은 생활을 갈망으로 부유하는

존재들이었다. 그 틈새를 일제는 경찰과 군대라는 강력한 물리력과 의료시설이라는 근대적 기제를 통해 발전된 제국 일본과 후진적인 조선을 각인시키며 조선왕실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물었던 것이다.

화성행궁은 국왕이 용·건릉을 참배하러 올 때 머물던 이궁이자 행궁이었고, 평상시 수원유수가 기거하던 곳이다. 수원유수부는 이러한 화성행궁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원의 행정을 담당했던 수원판관(水原判官)이 집무하는 이아(貳衙) 및 군사적 업무를 총괄하던 경기중군(京畿中軍)이 집무하는 중영(中營)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수원부 관아의 점유와 활용은 화성행궁을 비롯한 이아 및 중영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수원부 관아와 함께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었던 화령전(華寧殿) 등은 조선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물이었지만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해 훼손되고 전용되었던 것이다.¹⁾ 이는 國亡에 따른 새로운 지배자 일본을 보여주는 식민 통치기구의 설치와 함께 조선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군수비대의 주둔과 경찰서와 재판소의 설치 등 식민통치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화성행궁 등 수원부 관아를 훼손하면서 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아 건물을 적극 활용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일제 통치기구의 설치과정과 이에 따른 화성행궁과 수원관아의 파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식민통치기구의 설치와 수원부 관아의 훼손

정조 이래 조선의 모든 국왕이 찾았던 수원은 조선시대 최대의 화성행궁이 자리 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였다. 정조 이래 사도세자의 혈족으로 왕위를 계승한 조선 왕실은 사도세자(장조)가 묻힌 용릉과 정조의 건릉을 비롯하여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화령전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황실의 권위와 역사적 자부심에 흠집을 내며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던 사례는 평양의 풍경궁(豐慶宮)이 있다.

구국과 황권강화를 목적으로 지어진 평양의 풍경궁은 1902년 건립된

1) 이동근, 「일제강점기 화성 성내외의 관공서와 경제기구」,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대한제국의 이궁(離宮)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군용지로 수용되어 군기고와 숙소로 사용되었던 풍경궁은 1907년 8월 6일 풍경궁을 호위 하던 군대가 해산되었고, 풍경궁의 태극문 밖 좌우 행랑에는 일본 군대가 병기·탄약·피복 등을 쌓아두고 지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즉 1907년 8월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으로 관제가 폐지되고 사실상 행궁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후 풍경궁은 1914년 평양자혜의원으로서 활용되었다.²⁾ 평양 자혜의원은 1906년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同仁會議院을 자혜의원으로서 인수함으로써 신속하게 개원할 수 있었다. 실제 평양 풍경궁이 평양자혜의원의 병동으로 활용된 것은 1914년부터이다. 이는 1911년 화성행궁 봉수당을 수원자혜의원으로서 활용한 사례보다 뒤의 일이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지방 관아를 자혜의원으로 사용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³⁾

화성행궁의 일부 건물을 훼손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화성행궁의 낙남헌을 개조하여 군청과 토목관구 및 세무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10년 국망 이듬해인 1911년 당시 수원의 관공서로는 水原郡衙, 권업모범장, 농상공부 임업사무소 水原苗圃, 수원경찰서, 水原區裁判所, 憲兵分隊, 수원우편국 등을 꼽고 있다.⁴⁾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자혜의원을 손꼽지 않았지만 화성행궁을 허물고 들어선 건물로는 수원경찰서와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었다. 그 당시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미 1,000명이 넘어섰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제를 위하여 일본인 학교인 수원심상소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였다. 1911년 당시 일본의 종교적 이식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本願寺布教所와 淨土宗 水原寺 및 高野山출장소를 운영하였다. 관립 자혜의원과 별도로 山口醫院, 川口醫院이 운영되었다. 동시에 일본인들의 왕래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수원역 앞에 山本여관(객실 5칸)과 시내에 八達館(객실 10칸), 山陽여관(객실 10칸)이 있었고, 굴지의 대지주로 등장한 東山농장, 國武농장, 尙老농장, 川本농장이 수원에 자리잡

2) 박성진, 「평양의 황건문이 남산으로 내려온 까닭은?」; 김윤정, 「대한제국, 평양에 황궁을 세우다」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효형출판, 2009.

3)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路線案内』, 1911, 79쪽.

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한성은행 수원지점과 한성手形組合,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금융조합 등이 설립되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기간시설 가운데 하나인 통신을 장악하여 시내에 수원우편국을 두었고 수원역 앞으로 일본인들을 위한 수원역우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물리력으로 군대와 경찰을 수원에 주둔시키는 것이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

1914년 『발전하는 수원』에서 관아로 지칭된 것으로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경기도 자혜의원, 수원수비대, 수원헌병분대,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경기도 수원苗圃, 수원우편국, 관립 농림학교, 수원정거장前우편국, 오산우편소, 안녕우편소, 오산헌병과견소, 원잠종제조소, 수원恩賜授産場을 꼽고 있다.⁵⁾

1915년 수원의 관공서 및 기타시설로 군청·守備隊·권업모범장·농림학교·恩賜授産場·蠶種製造所·지방법원지청·警察署·憲兵隊·우편국·자혜병원·금융조합·학교조합·동양척식회사출장소·전기회사 등을 들고 있다.⁶⁾

이들 관공서들은 화성행궁에 군청과 경찰서 및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 들어섰고, 대한제국의 진위대가 주둔했던 중영에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섰음을 뜻한다. 또한 판관이 근무하는 貳衙에 수비대 사무실과 재판소가 들어섰던 것이다.

1) 貳衙와 中營의 점거와 파괴 - 수비대·법원·군청의 설치

임진왜란 이후 근대시기 일본군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강화도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880년 일본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을 때 무관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군의 주둔 형태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1882년 7월 16일 일본군 2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오군란으로 맺은 제물포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측에 대해 일본공사관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적하면서 ‘공사관 수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1쪽.

6)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旅行案内』, 斯道館, 1915, 38쪽.

비대' 명목으로 일본군 병력 일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후 1개 대대로 늘었다가 다시 1883년 8월에 1개 중대로 축소된 일본군은 이듬해인 1884년의 갑신정변에 관여하게 되었다. 1885년 4월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친진조약에 따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였는 바, 1894년 청일전쟁까지 일본과 청국의 군대는 조선에 주둔하지 않았다. 이 10년간의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세력균형 기간이 조선에게는 개혁과 부국강병의 중대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이들의 세력균형은 기울게 된다. 일본군 '수비대'가 이를 통해 부활하게 되었는데, ①일본인 거류민의 보호, ②병참경비, ③군용전선선의 수비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성京城지구수비대·인천병참경비대·낙동전선경비대(洛東電線警備隊)가 설치되었다. 이들 수비대는 1896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고 경성과 그 부근에 군사경찰제 시행을 포고하면서 서울의 치안권까지 장악하였다.

주차군은 군용시설의 보호, 접령지 치안확보를 명목으로 한국의 각 지역과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군정을 선포하고 군율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물론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주권국가의 주권침해였고, 일본정부와 주차군에 의한 실질적인 한국 식민지화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1894년 갑오개혁 이래 조선의 陸軍各部局 편제는 지속적인 개편이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육군편제에 따르면 수원은 鎭衛步兵 제2연대 제1대대(수원 200, 안성 50, 북한산 50)가 주둔하는 곳이었다. 수원에는 200명의 보병이 주둔하고 있었던 셈이다.⁷⁾

1905년 4월 한국정부의 군대의 개편 당시 수원은 鎭衛 第1大隊 주둔지였다. 지방의 진위대는 7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원을 비롯하여 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황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진위 제8대대는 함경도 북청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일본군이 이곳에 다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즉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부가 있었던 주요 도시에 진위대가 배치되었던 셈이다. 각 진위대의 대대는 4개 中

7)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967, 326쪽.

隊로 구성되었고, 중대는 장교 이하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원의 진위 제1대대의 규모는 604명에 달하고 있었던 셈이다.⁸⁾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조치로 지방의 진위대는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해산을 맞이하였다. 侍衛武官府, 侍從武官府, 東宮무관부, 親王府 무관, 무관학교, 近衛보병대대(644명) 등 황실을 위한 최소 병력 745명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8,426명에 이르는 군인을 해산하였던 것이다.

지방의 진위대가 해산한 그 지점을 일본군 수비대가 장악하여 들어왔던 셈이다.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는 외교권 박탈을 넘어 군사적 강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896년 의병의 봉기에 따라 일제는 각 지방에 兵站部를 설치되었을 때 강원도와 경상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때 경기도는 340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수원은 50명이었다.⁹⁾ 수원에 언제 일본군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었을까?

1905년 3월 12일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각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일본군사령부에서 헌병과 수비대의 배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수원·공주·강경·군산 전주·목포·광주·진주·청주·대구·마산 등 11개 지역에도 수비대 혹은 헌병대를 주둔케 하고 이들 지역 간에 군사통신을 신속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군용 전신·전화 등 통신기관을 설치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고 내용이였다.¹⁰⁾

따라서 수원에 수비대와 헌병대가 배치된 것은 1905년 3월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즉 러일전쟁 중 1905년 3월 10일 일본군이 만주 봉천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면서 이튿날 일본헌병대가 궁성호위를 담당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제 군사경찰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수원에 일본군이 배치된 것은 1907년 후반으로 추정된다. 즉 1907년 12월 일본군 수비대 배치표에 따르면 수원에는

8) 金正明, 위의 책, 333~334쪽.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施政一斑 등 보고】, 報告 제12호, 1896.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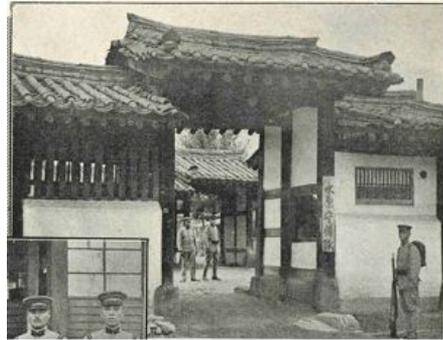
10) 『舊韓國外交文書』 7, 日案8535, 광무 9년 3월 24일;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249쪽.

西部守備區 보병 제47연대 제3대대 본부가 위치하였다. 1907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처음 상시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05년 10월 현재 한국수비대 管區구분 및 배치표에 따르면 경성지방(경성·김화·춘천·인천·충주·대구·부산·전주)와 개성지방(개성·해주)은 제13사단 보병 제51연대 병력이 경성과 개성에 사단사령부와 중대 병력이 주둔하였고, 기타 지역은 중대 단위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수원에는 주둔병력이 없었다. 또한 1907년 4월 1일 개편된 일본군 수비대 제13사단의 관할 구역 내에 있었던 수원에도 일본군은 주둔하지 않았다. 남부수비관구에 해당하는 보병 제13사단 사령부는 경성에 주둔하면서 보병 제6중대(탄현·김화·포천), 제2중대 제1소대(춘천), 제7중대 1소대(인천), 제9중대 1소대(충주), 제4중대(전주·대전), 제11중대(대구·부산)가 배치되었지만 수원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1907년 12월 시점에 수원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보병 제47연대로 바뀌면서 제3대대본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군대해산 이후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 수비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 주둔지는 鏡城·회령, 북청·함흥, 원산, 강릉, 京城, 개성, 평양, 대전·조치원, 대구·전주 등이었다. 수원은 충주·이천, 의주, 상주, 광주·부산 등과 함께 그 아래 급수의 大隊 本部가 위치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908년 5월이 되면 수원은 함흥·평양, 京城, 수원·안동·상주·대전, 경주·대구·진주·전주 등과 더불어 일본군 수비대의 주력주둔지로 격상되었다. 즉 수원은 충주수비구 관내 보병 제23연대 본부가 주둔하는 곳이 됨으로써 경기남부와 충청도 및 강원도 영서지방까지 총괄하는 군대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성환·공주·조치원·이천·음성·충주·제천·영월·삼척·강릉에 각각 보병 1중대씩 배치되었고, 홍주·예산·청주·양지·장호원·여주·괴산·단양·평창·진부·울진에 각각 보병 1소대가 배치되었으며, 홍산·전의·진위·과천·부평·청안·광혜원·죽산·안성·광주·수안보·목계·청풍·평동·영춘·주천·정선·황지·임계 등지에 보병 1분대씩 배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지역의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이후 의병전쟁으로 힘들었던 일본군의 병력을 교대해주면서 일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1908년 11월 시점에 전국의 관찰부에 해당하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하여 함경도 경성·함흥, 평안도 평양, 전라도 전주·광주, 경상도 대구·진주, 강원도 춘천 등 9곳에는 일본수비대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공주·해주·의주에는 1개 중대가 주둔하였고, 청주에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¹¹⁾ 이때 수원에는 보병



중영을 강점한 일본군수비대(1916)

제27연대 본부 및 제3·5중대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수원의 일본군 수비대는 보병 제13연대 제2대대의 보병 중대 병력만이 주둔하는 곳으로 그 군사적 위상이 격하되었다. 수원을 대신하여 김화와 충주가 주력부대의 주둔지가 되면서 의병전쟁에 영향을 덜 받는 수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10년 4월 용산을 주둔지로 하는 보병 제65연대와 교대하였을 때에도 수원은 京城·포천·김화·춘천·원주와 더불어 중대 병력이 주둔하는 곳이었다.

중대 병력 규모의 일본군수비대가 수원의 어디에 주둔하였는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1916년 『朝鮮師團創設記念號-朝鮮寫眞畫報特別號』 화보집에는 中營의 솟을대문 오른쪽으로 세로로 된 ‘水原守備隊’ 팻말이 걸려 있다. 수비대장 보병대위 樗木二之(제79연대 제1대대 제1중대장)와 그 예하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¹²⁾ 또한 1917년 제작된 수원 지도에도 수원수비대는 옛 中營 자리에 위치하였고, 수비대 사무실은 이아(貳衙) 자리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주요 병영으로 중영이 활용되었고 수비대의 행정사무는 이아에서 보았다는 것이 된다.

1917년 수원수비대와 헌병분대가 해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967, 112~116쪽.

12) 朝鮮寫眞通信社, 『朝鮮師團創設記念號-朝鮮寫眞畫報特別號』, 1916, 78쪽.

將校下士로 松本軍曹, 內海특무조장, 高田중위, 山根중위, 花岡중위, 長谷川조장, 梅本伍長, 山田군조, 谷本오장, 山田군조, 吉川군조, 新井군조, 吹拔군조 등이다.

1919년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한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본군이 밀물 듯이 들어와 민간인 학살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다시 수원에 주둔하였고, 군비축소 등의 문제로 1923년 3월 수원에서 일본군이 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

일본군수비대가 철수하고 난 뒤 그들이 주둔하였던 중영 자리는 일본인 사찰이 운영하는 高野山 國民學堂이 들어섰다. 그러나 고야산 국민학당은 1935년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8년 이 자리에 화성행궁 낙남헌을 사용하던 水原郡廳이 새롭게 들어섰다. 부지 1,699평에 군청사는 연화조 일부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 본관은 건평 173평 규모였고 회의실과 부속 건물이 별도로 지어졌는데 170평 규모였다.¹⁴⁾ 따라서 중영의 한옥 건물이 1938년 거의 대부분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영은 일본군수비대→ 고야산 국민학당→ 수원군청으로 변모되었다가 해방 후 화성군청→ 후생내과 등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수원수비대 사무실이 위치했던 이아 자리에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이 벽돌조 건물로 신축된 것은 1920년 4월의 일이다. 이미 통감부 시절인 1909년 11월 1일부터 수원구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 역시 이아(貳衙) 자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水原區裁判所 청사 修繕 및 증축공사’ 광고가 1909년 6월에 보이는데, 이는 이미 수원재판소 청사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1898년 경기관찰부에 설치되었던 京畿裁判所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재판소는 1908년 5월 경성재판소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경기재판소는 1897년 칙령 제37호로 설치되었는데, 경기 3府·34郡을 관할하였고 首班判事 1명, 判事 1명, 書記 4명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경기재판소의 위치는 漢城 中署 前平市署에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8년 2월 9일 칙령 제6호로 경기재판소를 각도 재판소의 예에 따라 경기관찰부에 설치하고 판사는 관찰사가 겸임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기재판소는 관찰부가 소재한 수원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민영기(閔泳綺)가 1898년 2월 21일 경기관찰사가 되어 3월 7일 경기재판소 判事를 겸임하는 첫 관찰사가 되었다. 경기관찰사는 華寧殿 提調도 겸

13) ‘守備隊를 解散’, 『朝鮮日報』 1923. 3. 24.

14) 이동근, 앞의 글, 218쪽.

임하였다. 1908년 3월 24일 당시 경기관찰부 주사였던 나기정(羅基貞)이 경기재판소 판사 이규환(李圭桓)과 함께 판결문(判決宣言書)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재판소는 이아의 건물을 이용하여 1908년 5월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후 일제의 통감부의 방침에 따라 1909년 11월 수원구 재판

이아의 경기재판소를 증축한 수원구(區)재판소

소로 이름을 바꾸어 설치되면서 기존의 경기재판소 청사를 수선하고 증축하면서 재판소를 확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0년 4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확장 신축되면서 이아 건물은 완전히 철폐되었던 것이다.

2) 수원경찰서의 설치와 화성행궁 파괴

일제는 1908년 7월 20일 지방관제를 고쳐 일본인 경시(警視)를 각 도 경찰부장(警察部長)에 임명하고, 각 경찰분서를 경찰서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 관청인 군아(郡衙) 소재지에는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를 두었다.¹⁵⁾ 이에 경찰 인력 3~8명으로 1개 군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경찰서는 1908년 7월 2일부터 警部 정필화(鄭弼和)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였고,¹⁶⁾ 7월 23일 京畿警察部長 겸 수원경찰서장으로 경시 이이다 아키라(飯田 章)가 임명되었다.¹⁷⁾ 1909년 5월 19일 警部 모리와끼(森脇英士命)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京畿警察部 兼務하였다.¹⁸⁾ 따라서 수원경찰서의 설치는 1908년 7월 이전의 일이다.

한편 일제 통감부 『官報』에 1909년 4월 19일자로 ‘水原警察署廳舍 및 警部官舍 신축공사’ 청부 입찰 광고를 신고 있다.¹⁹⁾ 그러나 다시 6

15) ‘勅令’, 『官報』 第四千百卅三號, 隆熙二年七月廿三日

16) ‘敍任及辭令’, 『官報』 第四千百四十七號, 1908년(융희2), 8월 8일

17) ‘敍任及辭令’, 『官報』 第四千百卅六號, 1908년 (융희2). 7. 27.

18) 『官報』 第四千三百八十四號, 隆熙三年五月廿四日

19) ‘廣告’, 『官報』 第四千三百五十七號, 隆熙三年四月廿二日

월 28일 ‘수원경찰서 巡査宿
 舎 신축공사’ 입찰 광고가 실
 리고 있다.²⁰⁾ 이는 1909년
 6월 28일 이전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는 업체에 의
 해 낙찰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경찰서 순사 관사 신축
 공사를 분리하여 다시 발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09년 수원경찰서 신축공
 사는 화성행궁의 북군영(北軍營)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신축한 것이라
 하겠다.



북군영을 헐고 신축된 수원경찰서

당시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 공사 입찰 광고와 함께 실렸던 입찰 광고
 는 龍岩浦 경찰서 청사 수선 및 警部官舎 신축공사, 馬山區裁判所 청
 사 수선공사, 咸興財務署 청사 신축공사, 馬山警部 관사 신축공사, 元
 山警部 官舎 신축공사, 永興警察署 청사 및 警部관사 신축공사 등이었
 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들
 을 지속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광고는
 모두 건축소(建築所)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바, 당시 建築所長官은 아
 라이(荒井賢太郎)였다.

건축소는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55호 ‘建築所 官制’ 반포에 의해
 만들어진 탁지부 내 조직이다. 통감부 체제 아래 각종 건축물들에 대
 한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건축소였다. 즉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
 일컫는 늑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법적인 형
 식은 외교권의 박탈이지만 통감부는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함으로써
 사실상의 식민통치와 다를없이 되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官衙 건물의 新營을 계획하였다. 이에 1906년
 2월 이미 서울 남산의 요지에 통감부 청사를 건축하여 다음 해에 완성
 하였다. 관청 건축을 신식건축으로 대폭 교체기로 한 방침에 따라 한

20) 『관보』 第四千四百十四號,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국 탁지부 산하에 ‘건축소(建築所)’라는 기구를 두고 일본인 건축 기술자를 다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탁지부 건축소가 생기면서 건축 자재의 관급(官給)을 시도하여 건축소 부설 벽돌제작소가 생겼다. 이에 1907년 독일제 기계를 도입하여 마포에 건축소 부설 벽돌공장을 만들어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부터 한일합방까지 탁지부 건축소의 이름으로 신축된 건물은 수십 채에 이른다. 이 3~4년 동안 명목상 대한제국의 관청건물과 공공건물들이 새롭게 신축되면서 기존의 궁궐과 한옥으로 이루어진 관아 건물은 벽돌로 된 근대적 건축물들로 바뀌었다. 이는 식민지적 지배와 서구문물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원 본관, 한성재판소, 내부(內部)를 비롯한 농상공부와 학부 청사를 비롯하여 경성감옥 등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서구 건축양식을 모방한 일본인들의 건축양식은 한국의 전통건축을 크게 변모시켰다. 또한 각 지방의 재판소와 경찰서 및 재무서(財務署) 청사를 비롯하여 각 항구의 세관(稅關) 건물 등이 건축소 주관으로 세워졌다. 수원경찰서 역시 이러한 틀에서 신축된 것으로 일본식 목조 건축물이었다.

1910년 8월 26일 경기경무부 관할 내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안성·인천·김포·강화·교하·개성경찰서 등 7개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당시 경찰부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 14개 도 경무부와 경무총부(警務總部)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경기도 경무부 관할로는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안성·인천·김포·강화·교하·개성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배치되었다. 당시 수원경찰서는 인천경찰서와 개성경찰서에 警視가 배치된 것에 비해 격이 낮은 警部가 있는 셈인데, 이는 수원경찰서에서 경기경무부 일을 겸무한 때 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원경찰서는 경기경무부 경시 2인(한인1, 일인1)과 일본인 경부 2인을 비롯하여 수원경찰서 경부 2명(일인 1, 한인 1), 일본인 통역생 1명 등 3명을 포함하여 7명이 있었던 셈이다.²¹⁾

경기경무부 소속이던 수원경찰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통합된 수원군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에서도

21) 『警務月報』 1910年, 1910. 8.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노구찌(野口廣三) 순사부장이 서신면 사감장에서 만세시위를 하던 민중들에게 처단되기도 하였다. 수원경찰서는 1921년부터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통치기구로 기능하였다.

3) 수원헌병대의 설치와 행궁의 훼손

1893년 12월 서울에 주차헌병대를 편성하여 이를 당시 주차일본군사령부에 부속하였고 청일전쟁이 개시됨에 따라 1894년 2월 한일협약을 체결한 결과 다시 일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의 주권과 한국경찰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동시에 함경도에 대대적인 일본군을 주둔함으로써 함경도에 군정(軍政)을 실시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의 역할과 동시에 전신과 철도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에 헌병경찰을 배치하여 군사경찰 외에도 일반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역할까지 자행하며 간섭하였다. 1908년 6월 한국인 가운데 헌병보조원 4,000명을 모집하여 일본헌병 아래 배치하여 일반 경찰사무 및 민정경찰에 복무하게 하였다.

주차헌병대는 1905년 3월 18일 편성 개정됨에 따라 본부 이하 부산·원산·인천·의주·평양·안주·개성·경성·임영·전주·대구 등 11개 분대와 그 아래 분견소 56개가 설치되었다.²²⁾ 이후 수원에 헌병분대가 설치되는 것은 1905년 11월 24일로 수원 헌병분대 분대장은 후로쿠와(古森雄能夫) 소위였다. 이후 1906년 11월 13일 제14헌병대로 재편성된 한국주차헌병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헌병분대를 京城·인천·수원·전주·대구·부산·개성·평양·안주·의주·함흥·鏡城의 12개소에 설치하고 그 아래 32개 헌병분견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²³⁾ 이때 12개의 헌병분대 가운데 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열흘도 되지 않아 11월 22일 조직이 개정되었는 바, 한국주차헌병대는 제14헌병대로 개칭되어 축소되었다. 이에 헌병분대는 京城·평양·정주·부산·전주·함흥·鏡城 등 7개소로 축소되었고, 그 아래 분견소도 20개소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수원에 헌병분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병분견소가 20개로 축소되었을

22) 李升熙, 『韓國併合と日本憲兵隊』, 新泉社, 2008, 72쪽.

23) 李升熙, 위의 책, 77쪽.

때 함께 없어진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07년 10월 29일 한국주차 헌병대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성분대, 평양분대, 천안분대, 부산분대, 영산포분대, 함흥분대 등 6개 분대 아래 46개 분견소를 두고 있었을 때 수원헌병분견소는 없었다. 즉 경성분대에는 미동·필동·용산, 인천, 평산, 고양, 문산, 마전, 철원, 양주, 의정부, 고안, 양근, 강화도, 용호도분견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성분대 관할 지역이었던 수원에 헌병분견소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1907년 군대해산 직후 수원은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듬해 1908년 1월 28일 재편된 일본 헌병대는 관구제(管區制)를 채택하면서 6개 관구로 나누고 전국적으로 분견소를 441개, 파견소 11개로 늘리면서 인원도 3배로 증원되는 대대적인 확충을 하고 있다.²⁴⁾

<표 2> 한국주차 헌병대 배치 상황

연도	分隊	分遣所	派遣所	出張所	인원 (헌병보조원)	
1906. 12. 1	7	20			289	
1907. 10. 29	6	46			751	
1908. 7. 18	6	441	11		2,182	(4,100)
1909. 8. 10	6	442	23	4	2,219	(4,100)
1910. 7. 1	77	525	3		3,410	(4,122)

이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진 의병들의 항쟁에 대한 일제의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이에 헌병보조원 제도 실시에 따른 1908년 7월 18일 개편으로 수원은 경성분대 하에 제21관구를 두고 수원분견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월 29일 조직 개편이 이루어 질 때도 경성분대 아래 수원관구를 두고 수원분견소로 존치되었다. 헌병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1910년 7월 1일 편제개정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원분대가 설치되었다. 황성신문은 1910년 7월 10일 수원헌병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²⁵⁾

24) 李升熙, 위의 책, 94쪽.

따라서 수원 헌병대는 1905년 11월 24일 수원 헌병분대가 설치되었다가 1906년 11월 22일 수원 헌병분대가 폐지되었고, 다시 1908년 7월 18일 경성분대 아래 수원헌병분건소로 축소되어 존치되었다가 1910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원분대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이때 설치된 수원헌병대는 헌병분대로 볼 수 있다.²⁶⁾ 1910년 7월 설치된 수원 헌병분대는 화성행궁 정문 신평루의 남쪽 행각과 남군영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화성행궁 정문인 신평루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헌병대와 경찰서가 들어섬으로써 일제의 지방 통치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의료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1) 화령전과 자혜의원의 설치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의료와 교육부문을 통하여 조선의 민중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일제에 의한 합방이 되기 이전에 대한제국은 1909년 12월 10일 청주와 전주 2곳에 자혜의원을 창설함을 시초로 1910년 1월 25일 함흥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1910년 6월 일본 통감은 한국 정부에 자혜의원을 증설할 것을 촉구하여 1910년 7월 21일 칙령 제 38호를 발효하여 자혜의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기존의 전주·청주·함흥의 자혜의원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8개 도시에 자혜의원이 증설되게 되었다. 즉 수원(水原)을 비롯하여 공주(公州)·광주(光州)·대구(大邱)·진주(晋州)·춘천(春川)·의주(義州)·경성(鏡城, 1920년 羅南으로 이전)이 그것이다.²⁷⁾ 이때 평양 및 대구의 동인의원(同仁醫院)이 도(道)에 이관, 자혜의원이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13개의 자혜의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고 이후 9월에 비로소 개원을 하게 되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수원지역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었다.²⁸⁾

25) '水原憲隊開設', 「雜報」 『皇城新聞』 1910. 7. 10.

水原憲兵隊는 今日開設하야 明日부터 事務를 開始한다더라

26)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路線案内』, 1911, 79쪽.

27) 朝鮮總督府, 『朝鮮道立醫院要覽』 1940, 2~4쪽; 수원시의사회, 『水原市醫師會史』 2000.

28) 한동민, 「근대 수원지역 공립의료기관 - 관립자혜의원에서 도립수원의원까지」, 『경기사학』 8, 2005.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는 미명 아래 전국의 주요 지역에 자혜의원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 개원된 각지의 자혜의원은 약품과 의사들이 태부족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약재 및 위생재료는 서울과 함경도 나남(羅南)의 일본 육군부대 창고에 보관하던 것들이 보급되었고, 의사들 역시 일본 육군 군의(軍醫)들로 충당되면서 병원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병전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뒤에 소용없게 된 넘쳐나는 군용 의약품과 군의들을 용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었다는 시혜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모와 의료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지 조선의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 일제가 수원에 자혜의원 자리로 첫 번째로 꼽았던 곳은 연무대, 즉 동장대였다. 그러나 읍내에서 거리가 멀고 난방시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장대는 온돌 시설이 없었고 군사지휘소로 개방된 건물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혜의원 자리로 선택된 곳은 화성행궁 옆의 화령전(華寧殿)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었지만 1908년 덕수궁 선원전으로 정조 어진을 이안하고 난 뒤 비어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1910년 9월 5일 수원 자혜의원이 화령전에서 개설되었다.²⁹⁾

화령전에 관립자혜의원을 개원하였을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민심이반을 두려워해서인지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雲漢閣)에는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좌우의 부속건물을 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즉 화령전 정전의 오른쪽 어정(御井) 앞의 전사청(典祀廳)과 그 부속건물 및 좌측의 풍화당(風化堂) 등 3동을 병원 건물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풍화당은 갑(甲)병실,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로 사용하고, 문칸의 부속건물은 을(乙)병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원통형의 우물이던 어정(御井)의 끊임없이 샘솟는 양질의 물은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었다.³⁰⁾

관립수원자혜의원이 개원될 당시 원장은 일본인 육군 군의 무라이(村井靜夫)와 같은 육군 군의 요시노(吉野麟至)와 조선인 의사 권태동(權

29)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291~292쪽.

30) 三木 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中外醫事新報』(1936. 5), 225쪽.

泰東), 그리고 약제사 구구성장(溝口成章), 육군 간호장 이와다(岩田恒四郎), 간호부 야마구찌(山口도미) 등이었다. 권태동 선생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각종 의료기구와 자재가 서울과 함경도 나남의 육군부대에서 가져왔고, 의사들 역시 육군 군의들을 대거 활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화령전에 설치된 자혜의원의 규모는 서무과·약제과·진료과 및 숙직실의 건평은 전체 61평으로 갑병실 20평, 을병실 11평에 불과한 상황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는 좁지만 중정의 뜰은 매우 넓어서 여름에는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문제가 심각하여 병실로 사용하던 풍화당의 온돌 외의 마루에는 다다미를 깔고 난로를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시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갔다. 실상 화령전에 자혜의원을 개원한 것은 화성행궁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2) 자혜의원의 행궁 이전과 화성행궁의 파괴

1910년 10월 화성행궁의 경기도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노천진료를 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이유로 화령전에 설치되었던 자혜의원을 화성행궁으로 옮기는 것을 실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찰부가 떠나감에 따라 일제는 화성행궁의 넓은 건물들을 주목하였던 셈이다. 기존의 화령전에 웅색하게 들어선 자혜의원을 드넓은 화성행궁으로 옮긴 것인데,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넓은 건물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수원의 중심적 행정기구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적 관아를 근대적 의료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멸망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화성행궁의 가장 중요한 정궁 역할을 하는 봉수당(奉壽堂)에 자혜의원을 설치함으로써 행궁 건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조선왕실의 권위와 그 표징이었던 화성행궁을 허무는 이중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실 및 관청 건물 대한 사용을 학교 또는 의료시설로 활용했던 일제의 고도의 술책은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발달한 일본의 근대적 신문명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선전이 가능하였

던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청사를 병원 기능에 맞게 다시금 수리 개축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 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령전의 정전 운한각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화성행궁의

정전이던 봉수당을 병원의 본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몰락을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좌익문과 봉수당 사이에 있었던 중문인 중앙문(中陽門)을 효율성을 빙자하여 철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화성행궁 봉수당으로 이전된 자혜의원(1914)

이로써 화성의 심장이자

조선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화성행궁의 훼손은 어쩌면 마땅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경복궁이 철저히 훼손되어 조선총독부가 건립되는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성행궁의 본격적인 훼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신흥루 양 옆의 북군영과 집사청의 일부는 경찰서로 사용되었고, 남군영과 서리청 역시 헌병분대와 그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이 화성행궁으로 이전하면서 좌익문 남쪽의 비장청과 회랑은 시료부(施療部)·진찰소, 외정리소는 간호부 기숙사 및 시료실(施療室), 유여택 북쪽 회랑은 약품창고, 유여택 남쪽 회랑은 전염병실이 되었다. 좌익문과 중앙문을 잇는 북쪽 회랑은 창고, 중앙문과 봉수당을 잇는 북쪽 회랑은 내과병실이었다. 유여택은 식당으로 활용되었고 북내당과 그 주변의 회랑은 남병실(南病室)이었고, 장락당에는 진찰실 및 수술실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으로 활용된 봉수당은 서무과·진료과·약제과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봉수당에서 득중정으로 이어지는 회랑은

북병실(北病室)로 활용되었고, 봉수당 뒤쪽 득중정과 이어지는 서회랑은 병리시험실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은 좌익문을 정문으로 하고 봉수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회랑을 양쪽으로 하는 구역 모두가 활용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신평루 양 옆의 경찰서와 헌병분대 그리고 낙남헌은 수원군청 서무과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화성행궁을 활용한 자혜의원의 규모와 내역은 전체 부지 면적 2,686평에 건물 면적 649평으로 서무과, 의무과, 진료실(보통부·시료부), 약제과, 약실, 연마작업실, 병실 37실(온돌실 25실, 다다미실 5실, 마루실 1실, 예비병실 6실)과 병상수 44명(일반병실 38명, 전염병실 6명) 예비병상수 10명의 규모였다. 또한 수술실, 병이시험실, 암실, 치과치료실, 시체실, 공용품 창고, 양품창고, 기계창고, 잡품창고, 장작 연탄창고, 취사장, 욕실 2, 소독 겸 건조실, 강당, 소사실, 탕비실, 숙직실 등이 있었다.

1911년 당시 수원 시내의 인구는 약 1만여 명을 넘고 있으며 일본인들도 3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주요한 기구나 건물로는 관립농림학교, 총독부모범농장, 우편국, 헌병대, 경찰서, 구(區)재판소, 자혜병원(慈惠醫院), 일본인 소학교 1개와 조선인 소학교 5개가 있었다. 일제의 중요한 통치기구 가운데 자혜의원은 헌병분대 및 경찰서같이 강제적 기구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자혜의원의 건물은 수술실로 사용하는 1동을 제외하고 모두 화성행궁의 주요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마다 건물 개수(改修)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도모하였다. 즉 시세에 발맞추어 건축 총공사비 7만8천여 원을 들여 1923년 7월부터 벽돌 건물을 기공하여 본관·병실·屍室·사체해부실·창고·소독장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옛 본관으로 사용하던 봉수당을 병실로 기타 세탁장, 창고, 간호부 숙사를 개축하여 1924년 5월 준공하였다. 부지 4,295평에 건평 762평을 새로 지었던 것이다.³¹⁾

이렇게 화성행궁의 건물을 재활용, 또는 헐어내고 신축한 자혜의원은 1925년 경기도립수원의원(京畿道立水原醫院)으로 개칭되었다. 즉 외형

31) 三木 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承前), 『中外醫事新報』(1936. 6), 278쪽.

적 변모와 더불어 일제는 1925년 4월 1일 「조선도립의원관제(朝鮮道立醫院官制)」와 「도립의원규정(道立醫院規程)」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자혜의원을 도립의원(道立醫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병원관리를 국가관리에서 지방의 도(道)로 이관시킨다는 의미였다.



봉수당을 헐고 들어선 경기도립수원의원(1929)

그리고 화성행궁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1928년 남병동(南病棟) 49평(목조)과 1935년 서병동(西病棟) 25평(연화조)을 증축하였다. 또한 1933년 3,438평의 건물을 새롭게 신축 완공함으로써 화성행궁 정당한 봉수당을 비롯한 장락당·유여택·복내당 등을 헐어내고 2층 연화조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상징적 건축물인 화성행궁을 헐어내고 일본의 힘과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근대적 병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화성행궁의 전각들은 낙남헌만을 남긴 채 철저히 훼손되어 갔던 것이다.³²⁾

맺음말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수원경찰서 및 토목관구 그리고 신흥공립소학교 및 수원자혜의원 등이 설립되면서 일제 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조선의 몰락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600칸에 달하는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낙남헌(落南軒)만을 남긴 채 왜소한 조선식 단층건물과 2층으로 된 높은 큰 근대적 병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우월한 일본을 은연중 과시하며 조선인에게 열등감을 자아내게 했던 기제로 활용하였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 머물던 별궁(別宮), 이궁(離宮)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

32) 한동민, 「성안의 의료기관」,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릉 참배 등 지방에 머물 때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으로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

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조 이래 모든 임금이 찾았던 화성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면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전통적 한옥의 가옥구조는 넓은 마당과 함께 해야 온전하게 그 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다. 단층의 한옥은 넓은 마당과 어울려야 그 단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덩그렇게 낙남헌 하나만을 남기고 모조리 헐어버렸다. 따라서 덜렁 남겨진 낙남헌과 높다란 벽돌 건물의 자혜의원은 초라하고 낙후된 조선과 발전하고 위용에 찬 일본을 의연 중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보다 높은 문화의식과 자부심을 지닌 조선인들을 폭력과 무력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보다 발달된 물질문명을 조선의 그것과 비교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우월한 일본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시나브로 조선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찰과 군대와 사뭇 다른 또 다른 일제 통치의 유효한 무기가 교육과 의료를 통한 통치방침과 연결된다. 하여 그렇게 남겨진 낙남헌은 일제시기 수원군청(水原郡廳)으로 활용되면서 힘겹게 조선을 지켰던 셈이다. 해방 뒤에는 신흥학교 교무실로도 사용되었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회(추진위원장 김동휘)가 구성되고 1992년 수원의료원이 정자동으로 신축이전 되면서 1996년 7월 19일부터 화성행궁 중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지 90년만의 일이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그것을 한 세기만에 되돌려 놓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官報』 『皇城新聞』 『朝鮮日報』
『舊韓國外交文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警務月報』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路線案内』, 1911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旅行案内』, 斯道館, 1915
朝鮮總督府, 『朝鮮道立醫院要覽』 1940
三木 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中外醫事新報』 (1936. 5)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967.
수원시의사회, 『水原市醫師會史』 2000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李升熙, 『韓國併合と日本憲兵隊』, 新泉社, 2008
『공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효형출판, 2009.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 한동민, 「근대 수원지역 공립의료기관 - 관립자혜의원에서 독립수원의원까지」, 『경기사학』 8, 2005.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동근, 「일제강점기 화성 성내외의 관공서와 경제기구」,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한동민, 「성안의 의료기관」,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국문초록]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別宮), 이궁(離宮)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릉 참배 등 지방에 머물 때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대표적 건축물이다.

동시에 화성행궁은 화성(華城)의 중심적 구조물이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임시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조(正祖) 이래 조선의 모든 국왕이 찾았던 화성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면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화성행궁과 수원의 관아가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갔다. 경찰서와 일본군 수비대, 헌병대 및 병원과 재판소 등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들이었다. 식민통치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은 몰락한 조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600칸에 달하는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낙남軒(落南軒)만을 남긴 채 조선식 단층건물과 2층으로 된 높고 큰 근대적 병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우월한 일본의 힘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조선인에게 열등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듯 일제는 교활하고도의 심리적 방식으로 식민통치 기구들을 화성행궁에 이식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물리적 통치기구 이외에 근대적 시설을 갖추 병원을 설치함으로써 조선인의 민심을 얻으면서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화성행궁, 수원경찰서, 일본수비대, 자혜의원(慈惠醫院), 화령전(華寧殿), 중영(中營), 이아(貳衙)

[Abstract]

The disposal and removal of the Hwasung Haenggung(a temporary palace) and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Han, Dong-min (Suwon Museum)

The Hwasung Haenggung was also a central structure of Hwasung. The Haenggung (a temporary palace) is a beolging or igung (detached palaces) for the temporary stay of the king as they moved to the provinces, which existed from the era of the Three Countries.

It refers to the location of temporary residence as an additionally prepared palace when the king leaves the main palace, where he always resides and oversees the national matters to stay in the provinces, during the war, for recreation, or for paying respects to the royal tomb.

Among which the Hwasung Haenggung(temporary palace in Hwasung) is the main architectural structure that had the largest scale among all Joseon era haenggung.

The Hwasung Haenggung was normally used as a government office of district administration occupied by the Hwasung Yusu (the highest ranking position of the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in the Joseon era) which was also used as the temporary residence of the king during their wonhaeng(journey to the royal tombs). The Hwasung Haenggung that was visited by all monarch of Joseon after King Jungjo, as the overpowering symbol of Joseon concerning its scale, architectural structure or function than any other haenggung of any other region.

This Hwasung Haenggung was damaged by the Japanese Rule. The police office, Japanese army guards, the military police, a hospital, a law court were installed here. They were important

groups that favored the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Empire. The robbing of this space to Colonial Rule groups also signifies the collapse of Joseon.

By placing a large modern two-story hospital structure and a Joseon style one-story building within the Hwasung Haenggung of a 600unit scale, with only the Naknamheon(a place where parties were held by the king for the elderly citizens) remaining in the center.

As so, the Japanese Empire cunningly implanted Colonial Rule groups in the Hwasung Haenggung with the highest level of psychological persuasion.

By installing a hospital that has modern facilities as well as physical government groups, the Japanese Empire was able to win the popular sentiment of the Joseon people to promote the effects of efficiently executing the Colonial Rule.

Keywords: Hwasung Haenggung,
Jahyeuiwon(a government institution hospital of the Japanese Empire),
Suwon Police Office, Japanese guards,
Hwaryeongjeong(King Sunjo's shrine for late king Jungjo with a portrait of the deceased), Ia(a county office).

특집 :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준혁

머리말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맺음말

머리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점당한지 101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 읍성철거시행령으로 화성행궁의 파괴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화성행궁은 4대 개혁과제를 앞세우며, 위민정책을 추진했던 정조의 기반이었다.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통성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정통성 회복이 곧 왕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왕권의 강화로 자신의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조는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1789년(정조 13)에 있었던 현릉원 천봉이었다.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수원도호부 읍치로 이전되면서 수원도호부의 관아를 비롯한 행정중심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했고, 정조의 결단에 의해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수원신읍치 조성 과정에서 1차 340칸의 화성행궁이 건립되고,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 건설에서 화성행궁의 규모도 확대되어 1796년 화성의 완공시에 576칸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정의 중심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되었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행궁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통감부의 압력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성행궁의 파괴는 곧 민족의 아픔이었다.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의 공간이 친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공간으로 둔갑된 것은 조선 백성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수원의 백성들은 일제강점기에도 화성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었다.

해방 이후 수원시민들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성행궁 복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지역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와 새마을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적 바탕과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수원시민들은 화성행궁 복원에 관심과 복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그리고 학술대회와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을 추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에 화답하듯 경기도와 수원시가 화성행궁 복원을 결정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오기 전에도 수원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화성행궁 복원을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건의하고 관청에서 수용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민관의 공동 노력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명소 화성행궁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의 한계이다. 불과 20여년 전에 추진했던 복원사업에 대하여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복원추진위원회 명단은 남아있지만 그들에 대한 구술 자료와 당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민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복원 과정이 역사의 부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사의 복원이자 문화유산의 복원이 간단한 기록과 설계도만이 남는다는 것은 화성성역의례를 만들어 화성의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후예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화성행궁 복원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수원 지역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과 그로 인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향후 민관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복원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필자가 정리했던 돌아가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현재 생존하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 그리고 수원시의 기록과 현재 언론 기사 등이 이 글의 주요 사료이다. 이 글에 인용된 사료는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학술대회 이후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관련자분들 모두를 인터뷰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향후 문화유산 복원의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일제강점기부터 수원시민들은 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원시민들은 화성의 보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조선일보 수원지국 기자는 부서지고 있는 수원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내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조간 1면에 기사를 실어 화성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깨어진 그릇이야 엇지하라! 남은 그릇이나 깨뜨리지 말기를 바라노니 大里坪에서 水原을 展望할 때 맛보는 訪花隨柳亭! 華西門 間의 優雅 雄壯한 風光이든 『남광루』로부터 烽火臺를 지나 蒼龍門까지 城壁外部로 散步하는 中에 잇는 感興 等이야말로 果然 苦惱에 찌들린 우리의 靈肉의 安息處이며 그는 끝까지 保存할 우리의 것임은 重論을 要치 안는 것이다. 이 문허가는 城壁 問題는 細少한 枝末의 問題인 것 가트나 우리의 마음터에 찢리는 자리는 자못 큰 것이다.”¹⁾

이 기사의 표현대로 화성은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안식처요, 끝까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화성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가치 인식이 화흥문 누각 복원을 위해 수원명소보존회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수원군청은 수원군 수원면의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팔달문에서 남암문과 남암문에서 동북각루에 이르는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화성을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며,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화수류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水原이여 왜 그러케까지 沒落하게 내어버려두는가 내 祖上의 피와 땀으로 남기어 놓 그는 水原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 내가 봄에 봄마지하러 여름에 더위 이즈러 가을에 들 求景하러 겨울에 눈 求景하러 心火날때 火푸리하러 가는 그곳을 엇지 이다지도 沒落하게 放置하는가 그것이 잇슴으로 水原이 얼마만한 慰安을 바덧스며 얼마나 水原에 對한 愛着이 깊혔든가 水原이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금자리! 訪華隨柳亭의 沒落을 막자! 우리의 誠意와 努力만 잇스면 그를 다시 되잡을 수 잇나니 成服後 藥方文格이 되지 말기를 곱히 곱히 바란다.”²⁾

이처럼 방화수류정을 비롯한 화성의 보존을 위하여 수원의 백성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화성은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화가 날 때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다. 이 화풀이는

1) 조선일보, 1927년 7월 20일. 문허지는 수원성.

2) 위의 기사.

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화성을 만든 우리들이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국민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화성은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이다. 방화수류정의 몰락을 막는 것이 결국 조선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으로 화홍문 누각은 복원되었고 방화수류정 역시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³⁾

방화수류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수원시에서 화홍문 누각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1925년 전국적으로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이 홍수로 인하여 화홍문 누각이 수원천 범람으로 소실되었다. 방화수류정과 함께 대표적인 화성의 시설물이 소실된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삼일학원과 매향학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원명소보존회가 1925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화홍문 복원을 위한 성금 모금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이왕직(李王職)’의 복원 승인을 받아 1933년 5월 25일에 복원하였다.⁴⁾ 복원된 화홍문 누각에서는 수원실업협회 회원들의 모임이 개최되는 등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었다.⁵⁾ 화홍문 복원에 이왕직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의 성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선의 명군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성곽을 정조의 후손들과 상의해서 복원하는 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정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결국 화홍문 누각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회복이자 독립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시대 문화의 상징인 화성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만 해방 이후 정국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으로 화성 및 화성행궁의 온전한 복원사업은 추진될 상황이 아니었다.

5.16 이후 최고회의 제 93차 상임위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과 향교재산관리법을 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총 7장과 73호의 부칙으로 된 문

3) 방화수류정은 수원시민의 노력으로 거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 2011년 3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09호로 지정되었다.

4)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1. 263쪽.

5)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기사.

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등을 선정하고 보호하도록 하였고,⁶⁾ 해를 넘겨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였다.⁷⁾

이 문화재보호법은 해방 이후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문화재관리법안인 ‘사적,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게 전해 줄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16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가 부패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민족문화의 수호와 청렴을 강조하였다.⁸⁾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 의지가 수원에 있는 화성의 복원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 첫 번째로 화성행궁과 함께 있는 화령전(華寧殿) 보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화령전은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돌아가시고 장헌세자의 묘소인 현릉원 재실에 소장된 정조의 어진을 이전하여 봉안한 ‘어진봉안전(御眞奉安殿)’이었다.⁹⁾

이후 정조의 대를 이어 국왕에 오른 순조와 헌종, 철종, 고종은 평균 3년여의 간격을 두고 화령전에 내려와 정조에게 제향을 올렸다.¹⁰⁾ 이처럼 정조 사후 역대 국왕들이 거동하여 참배를 한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이었다. 국왕의 화령전 거동시 화성행궁에서 재속하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화령전과 화성행궁은 조선 왕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고, 화령전은 화성유수가 매일같은 전각의 특이사항을 조정에 보고해야 할 정도였다.¹¹⁾

고종은 즉위 직후에 수원으로 행차가 없었으나 즉위 5년 3월 13일에

6) 동아일보, 1961년 12월 7일 기사.

7) 동아일보, 1962년 1월 11일 기사.

8) 동아일보, 1961년 12월 29일 기사.

9) 『정조실록』 권3, 1년 5월 정축.

10)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58쪽.

11) 순조년간 화성유수를 역임한 서유구의 행정일기인 『화영일록』에 의하면 화령전의 기와에 와초(瓦草)만 생겨도 국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수원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한 규례를 재정비 하였다. 2년 뒤인 7년 3월 12일에 1795년 혜경궁 회갑연을 위해 행차 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4일간 유숙하였다. 이 기간동안 현릉원과 건릉에 친제한 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된 화령전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전임 현임 대신들을 불러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정조의 뜻을 기리며 고종 스스로 정조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1874년(고종 11) 2만냥을 들여 화성행궁의 지붕을 고치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²⁾

화령전과 화성행궁이 정조 이후 왕실 및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 이후 화성행궁은 식민지 통치기구로 전락하고, 화령전은 조선총독부 산하 수원군청의 각종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조의 어진이 어느 시점에 화령전에서 사라졌는지 확인된 바 없지만 대략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화령전의 위상은 격하되었고, 1920년 덕성함양과 체력과 지혜를 위한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 총회가 화령전 풍화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집회는 대부분 친일 집회로서 화령전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집회에 더하여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과 잔치가 벌어졌다. 일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 품평회를 화령전에서 몇일 동안 개최하면서 이곳에서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동해대곡예단(東海大曲藝團)의 기생들로 하여금 춤과 농악, 연화(煙火)를 개최하였다.¹³⁾ 국왕의 어진을 모신 사당을 놀이터로 만든 것이다.

특히 화령전의 중심 건물인 운한각은 공수도 도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제의 화령전 가치에 대한 훼손은 극에 달하였다. 더불어서 화령전 편액과 운한각(雲漢閣) 편액 등이 모두 사라져서 건축물의 외향은 그 대로일지 몰라도 화령전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6년 화령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고, 수원시민들이 오랫동안 화성과 화령전을 지켜온 것

12)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61쪽.

13) 조선일보, 1927년 10월 31일 기사.

을 높이 받들기 위하여 화령전 보수의 의미를 두었다.¹⁴⁾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운한각(雲漢閣)’을 써서 설치하였다.¹⁵⁾ 대통령이 직접 편액을 쓰는 경우는 이후 자주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편액이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66년에 문화재의 편액을 쓴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1966년에 화령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한 것은 바로 수원시민들이 화홍문 복원사업부터 시작하여 정조의 일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정부에서 수원시민들의 화성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화령전에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화성의 복원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원시의 이상적인 결합의 노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해방 이후에 화성행궁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의 내용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써야 했던 무지의 시대였고, 더욱이 화성행궁 터에는 관공서와 병원이 자리잡고 있기 형편이어서 이를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일을 쉬운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1975~1979년 5개년 계획으로 국비 32억8천600만의 재원을 들여 화성성곽을 복원한 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수원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화성행궁 복원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였다.

처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움직임은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4월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전 수원시장)은 향토 사학자 이승연에게 수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줄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심재덕 문화원장은 정조가 수원을 건설하고 수원에 내려와 거주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궁궐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14) ‘화령전 중수 기념문’. 1966년. 현재 화령전 운한각 내부의 정조 어진을 모신 합자 오른편 상단 벽에 설치되어 있다.

15) 현재 이 편액은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사항에 의거하여 철거되어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지니게 되었고 당시 젊은 향토사학자이자 지우(知友)인 이승언씨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이승언씨는 그 부탁을 받고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 수원에 관한 조선시대 사료(史料)가 있을 곳을 찾은 결과 5월에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칼라로 된 『화성행궁도』 사진과 필름을 받아왔다.¹⁶⁾

이 일을 계기로 6월부터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이 수원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¹⁷⁾ 몇 달 뒤인 1989년 9월 30일 화성행궁 복원 추진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수원문화원에서 가졌다. 이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은 심재덕 문화원장이 맡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1989년 10월 6일 개최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¹⁸⁾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작은 의미로는 정조시대 이후 200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주입된 서울의 변방 의식에서 탈피해 상처받은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원 시민의 열망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는 정신적 바탕을 이루자는 것이다.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냉소가 있기도 하였다.¹⁹⁾ 복원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 수원의료원을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16) 심재덕 구술(김준혁 정리),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3쪽.

17) 발기인 명단(무순) : 심재덕, 안익승, 이실경, 최봉수, 송순호, 서봉도, 이종학, 리제재, 이천우, 이병규, 최홍규, 박응렬, 조한식, 정규호, 김운성, 조정환, 박환규, 이승원, 이종대, 김동휘, 오상근, 이승언, 이재영, 성병길, 감용구, 문제복, 전용택, 정령향, 김우영, 임병호, 송철호, 이종덕, 유재영, 안희두, 최종엽, 이상봉, 홍사일, 홍의선, 차의순, 차재익, 이창식, 이흥구.

18)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심재덕, 홍의선, 안익승, 추진 본부장 이흥구, 기획부장 임병호, 총무부장 송철호, 사료편찬부장 이승언, 섭외부장 김상용, 홍보부장 김우영, 이사 김동욱, 김학두, 리제재, 송태옥, 이상봉, 이완선, 조호호, 최홍규, 감사 이근환, 정규호, 강용구, 위원(가나다순) 강한영, 구중서, 권용택, 김병오, 김상용, 김운성, 김인기, 김정만, 김학선, 남부희, 문기호, 문제복, 박병찬, 박상봉, 박연곤, 박원효, 박용은, 박종무, 박찬균, 박환규, 백석현, 백충기, 송경섭, 송철호, 오갑진, 오병호, 오익환, 유재영, 유철현, 윤규섭, 윤대철, 윤수천, 이도형, 이명재, 이병렬, 이보현, 이상길, 이재인, 이재원, 이재영, 이종대, 이종원, 이창식, 이흥구, 임병호, 임영석, 임용상, 이광일, 정운엽, 정일함, 정학균, 조희문, 차석경, 최홍식, 한상욱, 홍기준, 홍사일, 홍성선, 홍성원, 홍순범, 홍신선.

19)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의 증개축이 결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낡은 병원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김동휘 위원장(현 등잔 박물관장)과 경기도 유네스코 회장 안익승 선생(작고), 심재덕 수원문화원장 등이 임사빈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다. 이 결과 임사빈 지사는 흔쾌히 화성행궁 복원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의 신축을 그만두고 이전을 약속하였다.²⁰⁾

수원의료원 이전 확답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학술적 뒷받침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의 ‘사신도(四神圖)’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학술업무와 사료편찬부장 맡고 있던 이승언은 규장각에 있는 사도세자의 『현릉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에서 사신도를 발견하고 1789년 12월 7일이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²¹⁾ 사신도는 죽은 사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덤의 벽이나 관 내부에 주작·현무·백호·청룡 등을 그린 것으로 평안도 강서지방의 대묘(大墓)와 용강군의 쌍용총 등 고구려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으나 조선시대 왕릉이나 세자의 묘소에서 발견된 것은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신도의 원화 발견으로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미술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²⁾ 이처럼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의 복원만이 아니라 정조시대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단순히 이승언의 발표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학술대회의 마지막 차례로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 김동휘 구술. 2003년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에 앞서 김동휘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수원의료원 이전과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내용을 구술하였다.

21)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경향신문. 1989년 12월 8일 기사

22) 위의 기사.

제1차 건의 사항

1. 수원 화성행궁지인 수원시 남창동 6의2(수원의료원 소재지) 신평동 256(구 경기도 여성회관 소재지), 신평동 257(수원경찰서 소재지) 등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 요망.
2.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조치하여 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행궁과 아름답게 조화된 수원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책 수립 요청.²³⁾

이와 같은 복원추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마침내 1990년 12월 22일 화성행궁의 중심부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한 수원의료원이 이전하였고, 1993년 8월 10일에 화성행궁 복원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선정되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행궁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행궁복원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설명회와 더불어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²⁴⁾

1994년 3월에는 시비 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지에 대한 유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해 5월 13일에는 구)수원의료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원의료원이 화성행궁 부지에 신축되어 영원히 복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은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화성의 보존과 복원에 헌신해 온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23)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7쪽

24) 화성행궁 복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심재덕, 부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안익승, 위원 조정환, 김용규, 유재언, 최봉수, 송후석, 남우철, 김주태, 김동휘, 이상해, 박언곤, 윤규섭, 이제재, 임택명, 이종학.

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수원의료원 이전과 경찰서 등 관공서 이전 확정 이후 수원시는 화성행궁복원사업을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수원의료원 이전과 신축 문제를 해결한 수원시민들의 헌신적 성과에 화답 하듯 수원시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1993년 4월에 화성행궁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먼저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계획과 예산을 동반하여 행정부가 복원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행궁 복원을 위한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시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 12월 행궁지 1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발굴조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기에 발굴조사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도(御道)가 확인되고, 지하에 매몰된 장대석열(長臺石列)이 확인되어 다른 유구의 잔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차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도, 경룡관지, 유여택지, 복내당지 등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장대석 이외에 석누조 등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1, 2차 발굴조사의 성과로 화성행궁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²⁵⁾ 발굴조사는 제3차로 1998년 8월 12일부터 1998년 10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주도하여 유여택 등의 초석을 발굴하였고, 4차 발굴조사는 1997년 7월 29일부터 1999년 10월 11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중양문과 외정리소 일대의 초석들을 발굴하였다. 제5차 발굴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역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였으며 화성행궁 당시의 것이 아니라 최근 교란된 유구를 발견하였다.²⁶⁾

사실상 1차 발굴에서 화성행궁의 주요 전각 위치를 대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실시설계 시 화성행궁 복원 시점을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1796년(정조 2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화성의 완공이 1796년이기에 화성행궁

25) 『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수원시,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1997. 17쪽.

26)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104~122쪽.

역시 그 시기에 최종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정조 사후 화성행궁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²⁷⁾

수원시는 1996년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 7월 1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²⁸⁾

충실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행궁 복원에 한걸음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6월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화성 및 화성행궁의 복원을 주장한 심재덕 문화원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은 수원시의 역점사업이 되었다. 심재덕 시장은 처음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결성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행궁 복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시는 1996년 수원성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200년 효의 도시, 2000년 꿈의 도시’를 주제로 내걸고, 화성행궁 복원, 효행대문 건립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 주제는 역사속의 수원, 살맛나는 수원, 아름다운 수원, 세계속의 수원, 쾌적한 수원이었다.

주요 기념사업으로 화성행궁 복원, 성곽 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 효의 성곽 순례 및 봉수대 거화 등 전통 문화사업, 수원 200주년 뮤직페스티벌 등 축제행사, 효행대문 건립, 수원 갈비축제, 세계연날리기 대회 등 수원 상징행사, 국제컨벤션시티 건립, 광교산 시민 휴양지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의 100년을 내다보기 위한 2095기획단도 만들어 수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성행궁 복원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2002년까지 1차 복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다.²⁹⁾

1997년 7월 봉수당 상량식에서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선언하였다.

27)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78쪽

28)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4쪽

29) 경향신문, 1995년 11월 30일 기사. 동아일보 1995년 12월 1일 기사.

“민족의 정기와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화성행궁은 바로 그 화성의 모태로서 화성행궁의 복원을 통해 민족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재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³⁰⁾

당시 화성행궁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복원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경복궁복원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왕실건물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³¹⁾

1997년 12월 심재덕 시장은 수원농생명고등학교 동문회보에 화성행궁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글을 실었다. “앞으로 화성행궁이 완전히 복원되면 이곳은 효의 성역으로 가꾸어지고 민족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행궁은 수원시장의 절대적 복원의지와 함께 수원시의 주요 과제로 지속적 사업이 되었다.³²⁾

1998년 수원북중 동문회보에도 화성행궁 복원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화성행궁은 일제시대 그들의 민족정기와 역사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으나 현재 주건물인 봉수당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복원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 효의 살아있는 교육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³³⁾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7월 1일 수원시의 지방자치제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심재덕 수원시장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복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 활용하여 수원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³⁴⁾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의 복원이 수원시의 노력만이 아닌 시민과 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사업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³⁵⁾ 이것이

30)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31) 동아일보, 1996년 7월 11일 기사.

32)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12월. 심재덕 기고문.

33)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6월. 심재덕 기고문.

34) 민선2기 수원시장 취임사, 1998년 7월 1일.

35) 해병대사령부 창설 50주년 기념 축사. 1999년 1월. “정조께서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화성 성곽을 축성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을 건립했습니다. 화성은 지난 97년 말 유네스코로부터 빼어난 기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바로 민관 협력에 의한 최초의 문화유산 복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1997년 12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은 한층 가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화성은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1997년 12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1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 108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중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가치있는 문화유산에 화성이 당당히 등재된 것이다.

당시 화성은 세계유산 등록기준 ii ‘한 시대나 하나의 문화권을 통해 건축, 기념물, 문화환경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과 iii 소멸된 문명이나 문화전통에 대해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사례,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는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대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 라고 하였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화성은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 화성을 방문한 실바(Nimal De Silva) 교수는 “화성의 역사는 불과 200년 밖에 안됐지만 성곽의 건축물이 동일한 것이 없이 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였다.³⁶⁾

이와 같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화성 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화성행궁에 대한 복원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갔다. 1998년 3월 25일 화성행궁 봉수당이 복원되었다. 경릉관과 장락당 등도 같은 복원되었는데 이 복원식에 2000여명이나 참여하는 대성황을

또 능행차 때마다 목으셨던 화성행궁은 일본 무력통치 시기에 저들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으로 인해 훼손됐으나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복원 중입니다.”
36)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71~174쪽.

이루었다.³⁷⁾ 당시 기사에서도 화성행궁 봉수당 복원에 공로를 기여한 곳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봉수당 복원 이후 총 공사비 325억원을 들여 장락당, 유여택, 경룡관, 신평루 등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2002년 7월 26일에 1단계 공사로 482칸, 3261.23㎡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단청을 하였으며, 궁중유물전시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을 모각하여 봉수당 등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10월 9일 역사적인 화성행궁 개관식을 거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³⁸⁾

화성행궁 개관에 앞서 민선3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김용서 시장 역시 민선 1,2기의 화성복원 정책을 계승하여 화성의 문화관광 사업 확대와 더불어 화성과 화성행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곽테마박물관(현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을 천명하였다.³⁹⁾

2003년 10월 9일 개관식에 김용서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의 공로에 대한 언급을 직접 거론하였다.

“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정조대왕(正祖大王, 在位 1776~1800)께서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침(園寢)을 참배하기 위해 목었던 궁(宮)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 행궁 중 최대규모였다. 하지만, 화성행궁의 여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병원·군청·경찰서 등이 들어서면서 낙남현만 남고 모두 파괴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수원의료원 증축 계획이 수립되어 화성행궁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뜻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원 증축반대 및 화성행궁 복원운동을 전개하였다. 화성행궁의 복원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 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에 이르러 역사적 개관을 하게 되었다. 2003. 10. 수원시장”⁴⁰⁾

37) 경향신문, 1998년 3월 26일 기사.

38)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74쪽.

39) 2002년 수원시장 송년회사. 2002년 12월 31일.

40) 「화성행궁 복원 비문」, 수원시. 2003.

화성행궁 복원은 1단계로 복원정비 : 482칸, 발굴조사 : 13,200㎡, 토지매입 8,846㎡, 건물매입 28동으로 사업비 32,533백만원(국비 2,700 도비 4,979 시비 24,854)가 투입되었다. 2단계 복원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와 맞물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⁴¹⁾

수원시는 2003년 10월에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등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여 행궁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수원 화성행궁을 찾는 관람객은 3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일같이 화성의 자랑인 무예24기 시연과 주말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조시대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맺음말

이제까지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노력을 살펴보았다. 수원 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화홍문 누각을 복원하기 위한 ‘수원명소보존회’의 창립과 모금은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화성행궁 복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화성행궁 복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체 면적의 반 정도의 공간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 복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복원 사업에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했던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화성행궁 복원사는 단순히 수원지역에 있었던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달사이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문화유산의 복원은 철저히 관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시민의 주창과 경기도와 수원시의 수용으로 이루어

41) 화성행궁 2차 복원 예상 총 사업비 : 30,000백만원(국 5,000 도 10,000 시 15,000).

어진 모범적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에 있어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화성행궁 복원사업과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거의 없다. 자료 관리의 소홀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화성행궁 복원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것과 당시 관련자 모두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구술사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조의 화성건설의 의미와 복원사업이 모두 하나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일이거니와 수원의 문화도시 위상을 복돋는 일인 것이다.

인문학 도시 수원 만들기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화성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인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차사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조실록』
『화영일록』
『화성성역의궤』

단행본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화성행궁 복원 비문』, 수원시, 2003.
『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수원시,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1997.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1.

[국문초록]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정의 중심 역할도 담당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되었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행궁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통감부의 압력에 의해 훼손되었다. 화성행궁은 철거되어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토목관구, 병원으로 신축되어 식민지 정책추진의 전위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까지 화성행궁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9년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화성행궁의 복원이 시작되었다. 수원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관의 거버넌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조시대 개혁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다. 더불어 정조시대 화성행궁에서 개최되었던 다양한 문화행사를 복원함으로써 21세기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수원은 진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탄생하는 것이다.

주제어 : 화성행궁, 화성, 정조, 수원시, 복원, 문화유산

[Abstract]

**Historical meaning of the restoration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through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Kim, Jun-hyeok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Hwaseong Temporary Palace is significant since it is not simply a place where Jeongjo would stay when visiting Hwaseong but a space where he promoted long-term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entral place for politics, economy, societies and cultures in the south of the capital area at his time. The authentic importance and functions of the palace were continued after the rule of Jeongjo and extended further as Hwaseong grew to be a large town and the commercial functions of Hwaseong were expanded. Accordingly, Hwaseong Temporary Palace would serve as the venue of the office of Hwaseong Regional Government and as the hub of administration.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constructed as part of the long-term two-capital system promoted by Jeongjo and so the residents of Hwaseong would yearn for the rule of Jeongjo even after his death. It is why religious services were continually offered to Jeongjo at Hwaseong Temporary Palace and Hwaryeong Pavilion by the royal family and the royal court till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destroyed.

Such a historic site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gradually ruined since the Japanese forcible occupation of Korea. It is true that gradual damages happened of the historic palace before 1910, but it was not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imperial household of Korea but by the pressure from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in Korea. In the site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which was removed, Suwon County Government, Suwon Police Station, Civil Engineering Provincial Office, and a hospital were established instead and used as advance-guard institutions for Japanese colonial policies.

The restoration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began long after the emancipation of Korea in 1989 when Hwaseong Temporary Palace Restoration Committee was set up centering on Suwon Cultural Center. The restoration was proposed by Suwon citizens and the proposal was accepted by Suwon City Government. It is the first ever case in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of Korea cultural heritages. It may be called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The work is not just to restore cultural heritages but also recover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region and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driven at the time of King Jeongjo. Moreover, various cultural events, which would be held at Hwaseong Temporary Palace during the rule of Jeongjo, are to be restored so as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which can appeal to the people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With the palace restored, Suwon will be reborn as a true city of world cultural heritages.

Keywords: Hwaseong Temporary Palace, Hwaseong, Jeongjo, Suwon City, restoration, cultural heritage.

특집 :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역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

한국체대 교양학부 교수

심승구

머리말

1.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2.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3.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 맺음말

머리말

이 글은 화성행궁(사적 478호)의 ‘파괴와 복원 100년’에 즈음하여 행궁 복원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활용방안과 미래적 가치를 전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¹⁾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의문과 관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 화성행궁의 복원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단순한 역사유적의 복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수원 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물음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마도 그 같은 의문은 현재 추진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1) 그 동안 필자는 수원 화성과 관련한 몇 가지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전시 연구>>, 수원시화성사업소, 2006.

심승구,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재연연시 고증연구>>, 수원시, 2007.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복원과 전망>, <<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8.

심승구, <<수원 화성의 궁중문화 축제(진찬, 과거, 약조)의 고증연구>>, 화성운영재단, 2008.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 6호, 수원학연구소, 2009.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화성행궁의 2차 복원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둘째,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잘 알다시피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와 원행을 위한 공간이다.²⁾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같은 걸음으로 드러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행궁에 대한 역사적 천착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수원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을 때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의 심장이요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행궁의 복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화성행궁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파악은 선결 과제인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의 활용에 대한 성찰이다. 이미 화성의 중심이 된 화성행궁은 화성성곽과 함께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행사와 전시, 그리고 이벤트와 축제가 행궁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역사공간을 대중들에게 소통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들이다. 다만, 이 같은 화성행궁의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그동안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온 느낌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함께 공유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고민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최홍규 외,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이외에 화성행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1.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장기 지속의 지리적 공간 위에 완만하게 흐르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현실 공간은 오랜 과거의 시간들이 켜켜히 쌓이고 깔려 있는 짙은 역사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공간은 이미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기억의 장’이 틀림없다.³⁾

그러한 역사적 공간 위에서 현대인들은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위하여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필연적으로 역사적 공간을 수없이 지우고 살아가는 운명에 놓여 있다. 바꿔 말하면, 현실의 공간은 이미 역사적 흔적과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지워진 상태다. 과거의 공간을 지워야만 현실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실은 도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곳곳에는 과거로부터 현실까지 살아있는 공간, 희미하게 잔존되어온 역사의 공간들이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삶은 바로 도시의 공간 속에 무너지고 지워진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만일 역사적 공간을 다 지울 수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전통과 현대의 공간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정체성은 시공간 속에 새겨진 지역의 나이트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공간의 내부구조와 흔적을 통해 그 성쇠를 읽어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개체적 경험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집단적으로 축적한 지식 정보를 뒷 세대에 전달하는 역사적 존재다.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이야기이며,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된다. 한 도시의 인간도 공간의 역사를 통해 지역의 인간으로 탄생한다. 인간의 삶의 조건인 역사적 공간이 인간을 키워내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⁴⁾ 역사적 공간이 소멸된 곳에서 문화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사의 공간을 파손하고 문화의 기억을 삭제해가면서 세우는 도

3)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인문콘텐츠>>21, 2011. 24쪽.

4) 상동.

시란 상상력이 거세된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또한 부수고 훼손하는 도시는 문화를 꿈 꾸기 어렵다.

도시는 역사적 공간을 통해 색(色)과 향(香)과 미(美)가 묻어나는 이야기의 꽃으로 역사와 철학, 미술과 음악, 그리고 시와 노래를 만들어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밤하늘 풍경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나고 싶다. 화성의 팔달산 서장대에서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 저녁을 일깨우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도시를 만나고 싶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역사를 배우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화를 만드는 상상력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역사공간의 복원은 그 출발점이다. 삶의 에너지도, 도시의 창조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2.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1) 행궁의 개념과 의미

예로부터 임금의 수레가 머무르는 곳을 '행재(行在)' 또는 '행궁(行宮)'이라 하였다.⁵⁾ 이때의 행(行)은 '다닌다'의 뜻이 아니라 '돌다'의 의미로서, 순행(巡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행궁은 곧 '임금이 행행(行幸)할 때 머무는 숙소(宿所)'를 가르킨다.⁶⁾ 이처럼 행궁은 평상시 임금이 상주하는 궁궐에서 나와 거동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을 뜻한다.⁷⁾ 또한 행궁은 행전(行殿)이라고도 하였다. 행전은 행궁과 유사한 뜻이면서 그 격을 높힐 때 주로 사용하였다.⁸⁾

당시 궁궐 중에 법궁(法宮)은 곧 임금이 남면(南面)하여 다스림을 내

5) 人君所駐 既曰行在 又曰行宮(《세종실록》권95, 24년 2월 갑인).

6) 臣則曰, 人君行幸宿所, 多在郡邑公廡, 稱以行宮者, 自是例也, 水原邑治, 寬敞之廡, 尙多不可傍照行宮之例, 而作爲攢室耶(《승정원일기》 1665책, 정조 13년 9월 29일(임자)).

7) 왕이 행행 시 머물러 자는 것을 지숙(止宿)이라고 하였다. 행궁을 대신하는 말로는 행재 또는 행재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經國大典》卷4, 兵典, 雜類, 用刑). 이외에 행궁은 이궁(離宮), 주필지(駐蹕地), 숙어소(宿御所), 이어소(移御所) 등으로도 쓰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임금이 거동 가운데 궁궐 내에 머물러 정사를 보는 곳을 시좌소(時坐所) 또는 시어소(時御所)라고 하였다.

8) 행전(行殿)에는 방룡(房櫺)·완점(筦簞), 장악(帳幄)·궤안(几案) 등 국왕을 상징하는 물건이 갖추어졌다(《정조실록》권44, 20년 2월 11일(정해)). 따라서 행궁이 단순히 공간을 의미한다면, 행전은 이러한 기물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였다. 다만, 행전은 숙소가 아니더라도 모화관행전(慕華館行殿)처럼, 장전이 설치되어 공간을 부르기도 하였다(《철종실록》권6, 5년 8월 24일(경신)).

는 곳이고, 이궁(離宮)은 임금이 상하는 법궁(法宮)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행궁은 주로 출궁하여 임어(臨御)하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행궁은 주로 도성 밖 행차 때 머무는 공간을 뜻하였으나, ‘정릉동행궁’ 이나 ‘육상궁행궁(毓祥宮行宮)’처럼 도성 내 임어공간에서도 행궁이라는 말을 썼다.⁹⁾

원래 국왕의 움직임은 '거동(舉動)'이라 하였다. <<춘추전(春秋傳)>>에 따르면, "거동은 임금의 큰 의절(儀節)로서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¹⁰⁾고하여, 국왕의 출입에 많은 인원과 의식절차가 뒤따랐음을 말해준다. 거동의 본딴말인 거동은 '일거일동(一舉一動)'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국왕의 나들이를 폭넓게 나타낸 용어다. 고대 국가의 제왕들은 수레를 타고 출입했으므로 이를 '동가(動駕)'로 불렀다.¹¹⁾

특히 고대 중국의 갑골문에서 확인되듯이, 일찍부터 임금의 나들이를 '행행(行幸)'이라 하였다. 행행(行幸)은 "한 사람의 거동이 만민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一人之行 萬人之幸)"는 뜻이 담긴 말이다.¹²⁾ 임금이 여러 지역을 돌며 행운을 전한다고 해서 '순행(巡幸)'으로 쓰기도 하고, 임금의 수레가 머무는 곳에 백성이 그 덕을 받는다는 뜻에서, '요행(繞幸)'이라고도 하였다.¹³⁾ 오늘날 '뜻밖에 얻는 행운'을 요행이라 표현하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 백성이 임금을 만나는 일은 더없이 크나큰 행운이었다. 행행(行幸)은 유교사회였던 조선왕조에서 군주의 덕을 보여주는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용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에서 국왕의 도성 밖 나들이는 모두 '행행'이라고 하였다.¹⁴⁾ 조선후

9) <<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 (계해). 한편, 이궁은 임금이 정궁에서 벗어나 도성 안이나 밖으로 거동할 궁궐을 말한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후 한양에서 궁궐을 지을 때 이궁조성도감(離宮造成都監)을 둔 사례나 성종때 거동할 창덕궁을 이궁이라고 말한 사례가 확인된다. 행궁 또한 도성 내외를 가리지 않고 임금의 머무는 공간을 말하지만, 행궁은 거의 대부분 도성 밖의 머물 때의 숙소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행궁의 구체적인 개념과 변화, 기능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0) <<태종실록>>권2, 1년 8월 병자.

11)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수원학>>6호, 2006. 75~77쪽.

12) 行幸 一人之行 萬人之幸 (<<經國大典抄解>> 禮典, 行幸).

13) <<經國大典註解>>下, 兵典 侍衛, 巡幸.

14) 조선시대에 국왕의 거동을 '행차(行次)'라 하지 않고, '행행(行幸)' 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

기 정조의 현릉원 참배를 '원행(園幸)'이라 부른 까닭도 바로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행궁(行宮)은 '임금이 행행(行幸)을 위한 숙소인 별궁'을 의미한다. 특히 정조는 화성행궁을 통하여 효의 실천과 민생을 살피 군주의 덕을 베풀어 왕도정치를 실현함은 물론 군민동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단순히 명분이나 꿈과 같은 추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성을 비롯한 수많은 행행을 통해 민생의 고통과 질고를 살핀데서 뒷받침 된다.

2) 조선 이전의 행궁의 변천

행궁의 기원은 궁궐의 조성과 그 궐을 같이 해 왔다. 따라서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궁궐과 함께 행궁도 세워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행궁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 가운데 백제 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백제의 제16대왕 '진사왕(385~392재위)이 구원(狗原)으로 사냥을 갔다가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¹⁵⁾ 행궁이 이미 4세기 중엽에 사냥을 위한 국왕의 임시 숙어소(宿御所)로 쓰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고구려의 2대 유리왕 때에는 이궁(離宮)의 기록과 3대 태조왕이 선위한 후에 별궁(別宮)에서 죽은 사실이 보이며,¹⁶⁾ 백제의 아신왕이 한성별궁(漢城別宮)에서 태어난 기록도 확인된다.¹⁷⁾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도성의 궁궐 이외에 이궁, 행궁, 별궁 등이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치열한 정복전쟁이 계속되던 삼국시대에는 피난을 위한 이궁, 순행(巡行)과 군사훈련을 위한 행궁이 상당수 마련되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고려초기인 현종 때 거란군의 침략으로 전주에 파천했던 왕이 여양(여산), 공주를 거쳐 귀환하던 중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베푼 내용이 보이는가 하면,¹⁸⁾ 한

광자원화>, 75~80쪽).

15) 이때 구원은 평안북도 개천군(价川郡)으로 짐작된다(<<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8년).

16)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1, 유리명왕 3년.

<<삼국사기>>권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94년.

17)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8년.

18) <<고려사>>권4, 세가 제4, 현종 1.

양의 용산행궁,¹⁹⁾ 해주행궁,²⁰⁾ 홍왕사 행궁²¹⁾, 평양행궁, 충주행궁, 안동행궁, 상주행궁 등 다양한 행궁이 확인된다. 특히 수많은 외침에 따라 국왕의 파천이 빈번했던 만큼, 피난처로서 강화의 이궁과 함께 전국적으로 행궁이 출현하였다. 더구나 고려사회는 풍수도참사상의 영향 아래 동경, 서경, 남경의 삼경설(三京說)에 따라 여러 지역에 이궁을 설치하였다. 또한 명종때에는 지리쇠왕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업(基業)을 연장시키고자 개경 둘레에 삼소(三蘇)를 두어, 좌소(左蘇)인 백악산(白岳山), 우소(右蘇)인 백마산(白馬山), 북소(北蘇)인 기달산(箕達山)에 각각 행궁을 짓고 주기적으로 순행(巡幸)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흥미로운 사실은 능행을 위한 행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고려왕조는 오례(五禮)체제를 확립하면서 교외에 거둥하여 지내는 환구(圓丘), 배릉의(拜陵儀), 선농적전(先農籍田) 등의 제사를 위한 행궁(行宮)을 마련하였다. 즉 국왕의 친향절차(親享儀)가 마련되면서, 치재(致齋)를 하루 전에 행궁(行宮)에서 지냈다.²²⁾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야외 제사를 위한 행궁이 필요하였다. 특히 왕릉에 참배하는 의식(拜陵儀)의 경우에 사전에 행궁은 다 능 앞에 적당한 터를 잡아 마련하되, 왕은 하루전날 행궁에 도착하여 재숙(齋宿)하였다.²³⁾ 배릉의가 정비되면서 능행(陵幸)을 위해 행궁이 설치한 점은 이 시기 행궁의 중요한 특징이었다.²⁴⁾ 조선시대 능행을 위한 행궁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불교사회였던 고려

19) <<고려사>>권89, 열전 제2, 후비 2.

20) <<태조실록>>권1, 총서.

21) <<고려사>>권122, 열전 제35, 환자 안도적.

22) <<고려사>>권59, 지 제13, 예 1, 길례 대사 1, 원구.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고려사>>권62, 지 제16, 예 4, 길례 중사, 적진.

23) 諸陵. 拜陵儀 將拜陵所司承制內外宣攝 隨職供辦王御別殿齋心兩日 凡行事執事官及從駕衆官各於本司清齋一日無本司者於公所 前發一日奏告太廟如常儀 所司預掃除所拜之陵及室內務極潔淨不得喧雜 尚舍局於陵近所設行宮 鋪王座如常儀 行宮皆於前所量地之宜 又於陵室之側量設小次 奉禮設王拜位於陵東南隅西向其有山谷隱映則隨地設位望陵而拜又設拜位於陵室階下之東南南向設行事官位於王位之南稍東又設隨駕兩府拜位於門外以西爲上門非南向則量地之宜設文武百官位於其後兩班相對爲首所司備珍羞庶品務極豐潔 前一日晡時王至行宮繳扇華蓋導從如常儀 若拜日至行宮則未明五刻變駕動如常儀 王至望陵拜所侍臣退合班立 太常博士引太常卿太常卿引王至拜位立太常卿前奏 請再拜 王再拜 奉禮曰 再拜 贊者承傳宰臣樞密侍臣及隨駕衆官皆再拜訖王至行宮齋宿 (중략) 訖王還齋宮侍衛如常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24) 심승구,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현대화 방안연구>>, 국가보훈처, 2007. 11~14쪽.

시대에는 흥왕사행궁과 같이 사찰이 행궁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3) 조선시대 행궁의 추이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행궁도 변화하였다. 우선, 신왕조의 수도가 바뀌자 한양에는 새로이 법궁과 이궁이 세워졌다. 반면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법궁과 이궁들이 폐지되고 대신 행궁이 들어섰다. 그리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왕의 거동이 한양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조선 국왕의 왕릉들이 도성 밖 경기도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래 개성 중심의 고려 왕릉들이 분포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또한 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거리에 새로운 주정소와 행궁이 정해졌다. 한양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도로망과 도로 거리를 기준으로 각지에 행궁을 미리 정하였다. 여기에 왕릉이 늘어나면서 능과 연결되는 능행길과 행궁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왕의 도성 밖 출입의 날짜에 근거한 새로운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 공간의 재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행궁은 본래 정해진 공간이 일정한 국왕이 도성 밖으로 출궁함에 따라 이름 붙여지는 공간이었던 만큼, 시대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다. 태조때에는 함흥으로 행차하는 바람에 안주를 비롯한 함경도 지역에 행궁이 생겼고, 태종때에는 이성계의 옛 집을 행궁으로 삼았고, 강무를 위해 광탄, 철원, 완주, 연천, 광주, 상촌, 춘천, 순성, 직산, 분수령, 강화, 삼기행궁 등이 보인다. 이는 조선 건국이후 강무(講武)제가 확립되고 순행(巡行)을 위한 국왕의 행차가 많아짐에 따라 경기, 황해, 강원, 충청, 평안, 전라도까지 행궁이 확대되었다.

세종때부터 배릉의(拜陵儀)와 산릉친행의(山陵親行儀)가 만들어지면서 행궁에서 재숙(齋宿)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는 고려시대의 배릉의에 이은 것이지만, 황제례가 아닌 제후례에 입각하였다. 또한 세종때에는 온천을 행차하기 위한 온양, 청주(초수), 이천, 진위, 직산, 수원, 광주, 과천 행궁 등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임금이 행궁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지자 행궁에서 성절에 하례하는 의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세조때에는 순행을 위한 개성, 평양, 입곳과 온천을 위한 온양, 고성 행궁

이 보이며, 성종때에는 통제원, 광탄, 낙생 행궁, 풍양궁이 등장한다. 중종때부터는 배릉을 위한 행궁으로 풍양궁이 확인된다.

임진왜란은 선조의 파천으로 인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새로운 행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에 따라 선조의 복상은 고양, 과주, 개성, 영변, 영유, 강서, 평양, 의주 등지를 중심으로 행궁이 설치되었다. 특히 환도한 선조가 궁궐이 불타자 정릉동 월산대군의 옛 집 명례궁을 정릉동 행궁으로 삼아 궁궐로 활용하였다. 이는 서울에 행궁이 만들어진 첫 사례였다. 또한 광해군대에는 정릉동행궁을 경운궁(慶運宮)으로 개칭하였다. 행궁이 정궁으로 승격된 유일한 사례다.

전란에 따른 행궁은 인조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강화와 남한산성에 새로이 행궁을 중수하거나 새롭게 조성하였다. 또한 1640년에는 호남관찰사 원두표가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의 격포에 행궁을 건설하였다. 효종때에는 제물포진에 있던 수군만호를 강화도로 옮겼고, 북벌을 위해 제물포에서 강화로 가는 수로를 개척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시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월미도에 세웠다. 현종때에는 치료목적의 온양, 수원 행궁이 확인되며, 숙종때에는 장릉, 후릉, 제릉 참배를 위한 과주, 풍덕, 자연도, 인천, 월미도, 영종도, 과천, 수원, 진위, 직산, 천안, 온양 행궁에 행차하였다.

영조때에는 숙종에 이어 배릉을 위한 행차가 많았다. 남한산성, 이천, 광주, 고양, 과주 행궁과 함께 사묘(私廟) 행궁인 옥상궁행궁(毓祥宮行宮)이 등장한다.²⁵⁾ 당시 사친묘(私親廟)에 유숙하는 것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²⁶⁾ 친모인 숙빈최씨를 전배하기 위한 영조의 효심은 도성내의 옥상궁행궁을 탄생시켰다. 이는 선조대 궁궐이 불타 정릉동행궁을 만들어 사용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영조가 사친묘인 옥상궁에 전배하고 그 곳에 유숙함으로써 행궁을 만들어 낸 선행은 후일 정조가 사도세자의 전배를 위해 화성행궁을 건설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밖의 고양, 이천, 과주, 영종도, 온양, 남한산성, 북한산성, 김포, 풍덕, 개성부, 장단, 격포, 수원, 진위, 직산, 유포 행궁

25)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한편, 영조의 사친묘는 영조1년에 조성하였으나, 옥상궁의 묘호가 만들어진 것은 20년 뒤의 일이다. 기록상으로 옥상궁행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영조 29년의 일이다(<<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계해)).

26)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9일(기사).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등이 확인된다.

정조는 영조에 이어 영릉(寧陵)과 영릉(英陵) 전배를 시작으로 경기 일대의 선왕들의 능침(陵寢)과 소녕원(昭寧園), 순회묘(順懷墓)와 같은 원묘의 행행을 이어갔다. 특히 사도세자의 사묘인 영우원을 화산에 옮기는 동시에 화성행궁을 조성함으로써, 원행을 위한 행궁을 세우되, 유수부로 승격함으로써 행궁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현릉원을 행차하기 위해 종래 과천로와 달리 시흥로를 새로이 건설하고 시흥, 안양, 사천(사근참), 과천 행궁 등을 새로이 조성하였다. 또한 양천, 김포, 부평, 안산 행궁이 조성되었다. 이외 남한산성, 이천, 여주 행궁 등이 이용되었다. 정조 사후에 화성 행궁 옆으로는 화령전이 세워졌다. 이는 후대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배경이 되었다.

정조대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은 계속되었고, 이를 위한 행궁도 꾸준히 세워지고 중수되었다. 이에 따라 제왕들의 능행도 지속되었다. 근대 이후 국권 위기 속에서 행궁은 더욱 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서경의 평양행궁에 이어, 1905년 개성의 대흥산성 행궁이 마지막으로 중수된 것도 그같은 배경을 깔고 있었다. 이처럼 행궁이 지속되었던 것은 행궁이 단순히 국왕의 출궁시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국가체제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하면, 행궁은 곧 지역에 살아있는 또하나의 왕실의 권위와 안녕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4) 화성행궁의 특성

행궁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행행시 머무는 임시적 공간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행궁을 유지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아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독자적인 행궁으로만 사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궁은 지방 관아를 겸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조선의 행궁은 크게 왕실가족의 치료와 휴양을 위한 온천 행궁, 수도권의 보장처인 유수부 행궁 내지 산성행궁, 능행 또는 원행을 위한 능행 행궁, 어진 보장을 위한 어진 행궁, 기타 강무와 순행,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행궁들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화성행궁은 능행을

위한 행궁의 성격을 뚜렷히 갖는다. 화성행궁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8세기말에 중흥군주 정조가 세운 화성행궁은 행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자랑한다. 화성행궁의 규모(576칸)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시흥행궁의 규모(114칸)나 그 보다 앞선 시기에 지은 북한산성 행궁의 규모(129칸)이나 남한산성 행궁의 규모(227칸)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한 규모는 행궁이 수원유수부의 기능을 겸하는 동시에 후일 정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고려된 것이었다. 다른 행궁들이 능행이나 피난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 궁궐로서의 기능을 염두했던 것과 구별된다. 또한 다른 행궁이 지어진 후 갈수록 행궁의 기능보다도 읍치로서의 기능에 머물렀던 데에 비해 화성행궁은 행궁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더구나 정조 사후 화령전의 건설됨으로써, 화성행궁은 끊임없이 중수되고 한편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행궁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정조 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정성이 기울여진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18세기말 조선을 이끌어갔던 콘트럴타워였다. 우선 행궁의 좁은 의미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행궁, 유수부, 화령전으로 구체화된다. 그것은 왕궁으로서의 기능, 수원을 다스리는 관아로서의 기능, 정조를 기리는 제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령전은 정조 사후에 추가된 공간이지만, 정조가 세운 행궁과 함께 정조의 얼이 살아있는 행궁의 한 몸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화성 성곽으로 보호받으며 후대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화성행궁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간적 정체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정체성은 행궁을 중심으로 화성 성곽, 용건릉, 만석거와 대유둔 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평산성의 신도시로서 18세기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군사시설을 갖추어 자체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치군사적 기능, 사도세자와 정조가 묻힌 왕릉을 참배하기 위한 행궁적 기능, 신도시 백성들의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자급자족적 기능을 말해준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행궁의 정체성은 광주, 개성, 강화와 함께 유수부로서 수도 한양의 보장처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성행궁은 단순한 지역의 행궁이 아니라 18세기말 조선

의 수도권 일대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문화를 작동시켜 나갔던 콘트럴타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은 중세 사회 속에서 근대 사회의 의미를 꿈꾸는 미래의 공간이었다. 사실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단순히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와 그 기간 동안에 베풀어진 현릉원전배, 과거시험, 양로연, 사미각종 의례와 행사들은 그동안 실학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경험, 효의 윤리와 실천, 군민동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조의 개혁의지가 응축된 살아있는 문화축제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은 18세기 군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공간이었고, 민심화합의 공간, 왕실문화와 민중문화가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융합의 공간이었다. 이는 이미 중세의 공간인 동시에 근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은 조선 행궁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표적인 행궁이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수원의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정조의 치밀한 계획 속에 완성된, 국왕이 손수 계획하고 현판까지 준비하여 완성한 조선 유일의 행궁이었던 것이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공간, 꿈만 꾸는 공간이 아닌 실천하는 공간, 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 그것이야 말 화성행궁이 갖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인 것이다.

4.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지난 1997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그 이름을 알렸다. 그로부터 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원의 얼굴’이 되었다. ‘수원의 얼굴’이 화성이라면, 행궁은 ‘수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이 본래 행궁과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기 때문이다. 마치 심장이 뛰어야 생기가 돌아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행궁은 화성 성곽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리다. 훼손된 지 100여년 만인 지난 2002년에 1단계 마무리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원의 심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아직 행궁 복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화성행궁은 복원한 뒤 수원의 중심공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나갔다. 원래 화성 성곽도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처참하게 파괴된 뒤에 국가적 관심과 노력으로 원형의 형태를 복원한 건축물이다. 18세기말 정조시대의 산물이지만, 오늘에 와서 다시 그 원형성을 회복한 셈이다. 그 결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다. 하나는 18세기말의 화성이 동시대 세계의 성곽들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재발견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재의 복원이 갖는 가치 역시 결코 작지 않다는 경험을 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1997년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화성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에 국가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곧이어 2002년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기록재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화성과 화성행궁의 원형 복원은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와 같은 귀중한 기록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록은 단순히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낼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위의 두 의궤를 포함하여 <<의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은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뛰어난 기록이다. 바로 그러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복원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이 곧 ‘기록의 입체화’다.²⁷⁾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수원에는 과거 옛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다. 18세기말에 새로운 꿈의 도시로 탄생한 수원의 옛 공간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기록유산이야말로 수원을 영원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이다.

실제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지역에서 역사문화도시를 꿈꾼다. 이를 위해 관민이 함께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 근원적 욕망은 지역문화의 원형 내지 상징을 발견하는데 있다. 지역의 정체성에 근간이 되는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상징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발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²⁸⁾ 그것은 현대사회를 바쁘게

27) 심승구, <디지털시대 역사학의 소통과 전망><<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인문학 제 분과와 CT>> (문화관광부주최 2007년도 제1차 CT포럼 발표문), 2006.

살아가는 지역과 그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체성의 근원이자 새로운 삶과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넘어 창조도시를 꿈꾸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원형을 찾고 발견하는 과제는 쉽지 않다. 설령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원천 내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로 기록의 부재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원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정조시대가 남긴 수많은 문헌자료를 통해 수원의 옛 도시의 원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처럼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진 소중한 기록유산의 존재야 말로 수원의 가장 큰 보물이다.

‘기록의 입체화’를 통해 복원된 행궁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즉 문화의 생기화다. 예컨대 전통 문화의 경우, 구조와 표상이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어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로 전환하는 현대화 작업을 말한다. 어느 문화도 마찬가지로 선조들은 우리에게 유적과 기록을 남겼다. 유적은 파괴되고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아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기록의 입체화’가 그랬듯이, ‘입체의 생기화’ 또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의 생기화 작업을 위해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등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이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좀더 깊고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동안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듯이, 복원한 행궁의 생기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입체화에 어려움 만큼이나 생기화 문제 역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귀한 보물은 귀하게 쓸 때만 가치를 영속시킨다. 이는 귀한 보물을 아껴 활용하기를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귀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활용하자는 의미다. 화성 행궁의 지속가능한 가치는 생기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28) 심승구,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의 현황과 과제><<충남의 역사문화기반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2007. 참조.

너무도 서둘러 상품화를 바라거나 관광화, 축제화를 꿈꾸는 일은 신중함을 요한다. 소비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화와 관광화, 축제화는 곧 문화유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또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단기간의 유흥’ 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성행궁에 대한 본질적 가치의 무대화 내지 배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증이 결여된 전시와 재현 및 이벤트 행사 등 활용에 치중한 결과 왕궁에서는 행궁의 품격과 진정성을 거의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화성행궁의 가치의 발굴과 축적의 필요성은 경시한 채, 축제처럼 인공적인 전통의 진행과 같은 현대화에 대한 강조는 자칫 본말을 전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행궁의 경우에 행궁이 무엇인지, 그러한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최소한의 문제에 대해 성찰과 개념들이 천착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통을 소비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상품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단기간의 성과주의 내지 업적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성행궁의 가치와 문화공간을 체계적이고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맺음말

올해는 화성행궁이 지어진 지 21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화성행궁은 1911년 조선읍성철거령에 의해 훼손과 복원이라는 커다란 골곡과 변화를 경험해 왔다.²⁹⁾ 이처럼 화성행궁이 겪은 지난 200여년의 성쇠는 근현대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곳곳하게 다시 일어난 지역민

29) 다만, 여기서 유념할 문제는 일제에 의해 화성행궁이 무조건 파괴되었다는 관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수원 화성행궁에 설립된 자혜병원의 경우 식민지가 되기 직전인 1910년 7월 22일에 세워진다. 한 해전 1909년 지방 3곳에 처음 설립된데 이어 수원을 비롯한 14곳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근대식 병원과 학교의 설치가 행궁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훼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자세가 필요하다.

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매우 닮아있다. 화성행궁을 비롯한 많은 전통 문화유산들은 식민지와 근대화, 전쟁과 산업화라는 미명아래 허물어지고 일그졌다가 이제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수원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이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귀중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더구나 문화유산들은 문화가 산업이 되는 콘텐츠시대의 무한보고라는 사실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화성행궁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반추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방향타로 다가온다.

18세기말 조선에서 새로운 중흥의 시대를 꿈꾸던 화성행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먼저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 효심을 실천하면서도 군민동치(君民同治)의 시대정신, 개혁과 실학을 통한 위민정신 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향으로 짓는 궁궐의 관행과 달리 화성행궁은 동향으로 건설하였다. 이는 팔달산의 자연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어떤 이는 혹 행궁이 왜 그렇게 왜소하고 소박한가를 묻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국력이 약했던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일 정조가 사치와 탐욕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유교적 정치철학이 사치와 탐욕을 용납지 않은 것이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호뭇함과 아울러 아쉬움도 남는다. <<화성성역의궤>>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 보이는 행궁의 많은 부분이 복원되지 않거나 잘못 복원된 부분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한 부분이 복원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은 참으로 다행하고도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복원과정에서 엄밀한 고증이 부족하여 실제와 다르게 복원된 건물이 확인된다. 이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 생활과 연결된 별주나 장독대, 측간, 마굿간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행궁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궁은 국왕이 이곳을 찾았을 때 생활을 영위하던 공간이다. 또한 평소에는 수원유수의 일상공간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먹고 자면서 살아갔음을 말해주어야 한다. <<화성성역의궤>>에 보이는 취병이나 판장 등이 없는 점도 아쉽다. 머지않아 원래대로 복원되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18세기말 찬란한 유교문명을 건설한 조선의 진정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 <<高麗史>>
- <<經國大典>>
- <<經國大典抄解>>
- <<經國大典註解>>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최홍규 외,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전시 연구>>, 수원시화성사업소, 2006.
심승구, <<디지털시대 역사학의 소통과 전망>><<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인문학 제 분과와 CT>> (문화관광부주최 2007년도 제1차 CT포럼 발표문), 207.
심승구,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의 현황과 과제><<충남의 역사문화기반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2007.
심승구,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현대화 방안연구>>, 국가보훈처, 2007.
심승구,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재연연시 고증연구>>, 수원시, 2007.
심승구, <<문화재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연구>> (문화재청, 2007)
심승구, <<문화재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8).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복원과 전망><<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8.
심승구, <<수원 화성의 궁중문화 축제(진찬, 과거, 야조)의 고증연구>>, 화성운영재단, 2008.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 6호, 수원학연구소, 2009.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인문콘텐츠>>21, 인문콘텐츠학회, 2011.
심승구, <한국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와 전망-문화콘텐츠학의 정립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예술철학의 문화콘텐츠 실크로드 HRD사업 팀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2011)
심승구, <한국의 무형문화와 문화콘텐츠 -역사학적 재현을 중심으로-><<제4회 문화와 창조산업 국제 연합 심포지엄 발표문>>(글로벌콘텐츠학회 주최, 한국외대, 2011)

[국문요약]

지난 1997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그 이름을 알렸다. 그로부터 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원의 얼굴’이 되었다. ‘수원의 얼굴’이 화성이라면, 행궁은 ‘수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이 본래 행궁과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기 때문이다. 마치 심장이 뛰어야 생기가 돌아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행궁은 화성 성곽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리다. 훼손된 지 100여년 만인 지난 2002년에 1단계 마무리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원의 심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화성행궁의 특징은 첫째, 18세기말에 중흥군주 정조가 세운 화성행궁은 행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자랑한다. 둘째,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18세기말 조선을 이끌어갔던 콘트럴타워였다. 셋째, 화성행궁은 중세 사회 속에서 근대 사회의 의미를 꿈꾸는 미래의 공간이었다. 화성행궁은 조선 행궁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표적인 행궁이다. 특히 화성행궁은 수원의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정조의 치밀한 계획 속에 완성된, 국왕이 손수 계획하고 현판까지 준비하여 완성한 조선 유일의 행궁이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공간, 꿈만 꾸는 공간이 아닌 실천하는 공간, 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 그것이야 말 화성행궁이 갖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인 것이다.

주제어 : 행궁, 화성행궁, 화성행궁의 정체성, 역사공간, 공간의 복원, 복원의 의미

[Abstract]

Hwaseong Rural Palace in Suwon of culture space usage & value for future

- Based on the historical identity -

Shim, Seung-koo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of Korean History. Lirr.D)

Suwon was designated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and made its name to the world. Hwaseong has been the meaningful representative symbol as face of Suwon since that time. If Suwon's face is Hwaseong, rural palace can be the heart of Suwon because originally, Hwaseong is a castle which was built to defend rural palace and a family burial ground.

Rural palace is the basic power and principles leading Hwaseong's castle like people feel more lively when its heart is beating and then smile quietly.

In that respect the valuation of Hwaseong rural palace's restoration, in 2002 in more than a century since it damaged, does represent much to us. It has come back as heart of Suwon in our modernized life.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rural palace is as below. First, it is the largest and superior to the others at the close of the 18th century. Second, the identity of it is control tower which led Joseon Dynasty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ird, it was future space for dreaming modern society in medieval days.

Hwaseong rural palace is symbolic space and representative rural palace among Joseon's one.

In particular, King Jongjo planned to build the new town in Suwon, and it was complet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him.

That is the only Joseon's rural palace which called as Hwaseong

rural palace. Hwaseong rural palace is, as a place not to stay but to dream, and moreover, to put the dream in practice beyond reality. That is what Hwaseon rural palace would mean real value and meaning.

Keywords: Hwaseong Rural Palace. Restoration, symbolic space

일반 논문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근대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을 중심으로 -

수 원 대 강 사
박철하

머리말

1.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설립과 주도층의 존재양상
2. 자본가층의 사회·정치 활동
3.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동

맺음말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의 근대사회의 역사성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근대 자본가층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동안 수원지역에 관한 연구는 민족운동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연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원의 자본가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들이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식민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대 수원지역 자본가층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역의 상공업의 발달과정과 함께 식민지적 상황에서 자본가층의 물질기반, 사회적 역할 및 정치적 동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원지역의 조선인 자본가들만으로 설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을 중심으로 1930~40년대 수원지역의 자본가층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설립과 주도층의 존재양상

수원은 경성과 매우 가까운 도시로 ‘부(富)’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도시였다. 하지만 조선인이 직접 경영하는 공장이 없음에 대하여 수원의 조선인 실업가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양성관·차유순·한광호·송병엽 등 수원을 대표하는 지주와 자본가들은 1929년 봄 농상공업(農商工業)의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공장을 설립할 계획 아래 화성흥산주식회사를 발기하였다.¹⁾

화성흥산주식회사는 1929년 5월 30일 수원공회당에서 제1회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이 완성되었다. 주주총회는 주주 10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 의장 양성관(梁聖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도 선출되었다.²⁾

하지만 출발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당시는 불경기가 몰아치는 시기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주금이 납입되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정관』 가운데 <역원(役員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관에서는, 취체역은 100주 이상, 감사역은 50주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하여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취체역은 50주 이상, 감사역은 20주 이상으로 수정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의장 양성관을 비롯하여 몇몇 대주주들이 극력 반대했다. 의장이 퇴장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결국 수정 가결된 정관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갔다. “수원에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되는 회사인 만큼 없는 자의 쓰라린 설움을 참아가며” 일반 소액 주주들이 양보함으로써 기존 정관은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불입금 문제였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조사위원 보고에서, 불입금 1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은 겨우 4~5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호하게 보고되었다. 오랜 시간 논란을 벌이다

1) 「수원에 신회사 조직을 준비 중」, 『동아일보』, 1929년 5월 29일

2) 「회성회사 창립」, 『동아일보』, 1929년 6월 4일. 이하 화성흥산주식회사 창립 및 주주총회 상황은 이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가 대부분의 주주가 가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주주총회는 폐회되었다.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개선되었다.

화성홍산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은 회사 설립 이전 수원의 대표적인 조선인 실업가와 지주들이었다. 화성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매년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들은 각종 신문들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통해 확인된다.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1929년 5월 30일 설립 이후 1931년경까지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설립의 주체들이라고 판단된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³⁾

대표취체역 : 양성관

취체역 : 차유순 용운희 조한교 홍사헌 한광호 송병엽

감사역 : 한상봉 권태동 권영일

화성홍산주식회사 설립 당시 취체역과 감사역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취체역의 경우를 보면, 화성홍산주식회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 가운데 양성관(梁聖寬)과 차유순(車裕舜)은 당시 홍사헌(洪思勛)과 함께 수원의 대표적인 ‘3대 지주’에 속하는 지주이자 실업가이다. 양성관은 수원전기주식회사와 용수홍농주식회사의 취체역 및 수원금융조합장이었으며, 차유순은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의 취체역이었다.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의 감사역으로 있던 한광호(韓光鎬)는 이미 수원군농사장려회 부회장, 조선농회 평의원, 수원금융조합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한교(趙漢敎)는 1909년 주식회사 한성은행에 입사하여 1929년 6월 퇴사할 때까지 20년 동안 금융계에 몸담고 있었으며, 화성홍산주식회사 설립 당시 수원양조주식회사 취체역을 맡고 있었다. 홍사헌은 수원양조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취체역이었다. 송병엽은 당시 서울의 조선농업주식회사의 감사였다.

감사역의 경우, 한상봉은 1920~1927년까지 경기도평의회원, 1924~1927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3) 「화성홍산회사 증역을 개선, 『매일신보』, 1932년 5월 31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년판

인물로,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과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대표 취체역을 맡고 있었다. 권태동은 수원의 대표적인 의사로서 역시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감사역을 맡고 있었다. 차유순과 한상봉, 용운회는 1908년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⁴⁾

화성흥산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몇 차례의 임원 변동과정을 거쳤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 변동 현황(1929.5.30~1945.8)

연도	임원	비고
1929~1937	대표취체역: 양성관(송병엽) 취체역: 차유순 용운회 조한교 홍사헌 한광호 송병엽 (이길태) 감사역: 한상봉 권태동 권영일	1937.4.2 송병엽, 홍사헌, 차유순, 조한교 취체역 사임 1937.4.17 이길태 사망 1937.5.31 조한교 감사역 취임
1937~1941	대표취체역: 이광현 취체역: 양규봉 홍사훈 한광호 이인(李愼) 차준담 최재엽 감사역: 권태동 김종응 이정규 (조한교)	1938.9.16 조한교 사망 1939.5.30 김종응 취임 1941.5.30 권태동 퇴임
1941~1945	대표취체역: 홍사훈 취체역: 양규봉 이인 한광호 차준담 감사역: 이정규 조인행	1941.7.25 최재엽 사망 1941.7.31 김종응 사임 1943.10.7 이광현 사망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상공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각각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수원양조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사, 화성자동차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등 수원지역 각종 상공기업을 경영하였다. 각 기업체별 임원들 가운데 화성흥산주식회사 관련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대표 취체역-한상봉 // 취체역-차유순, 홍사훈, 양성관 //

감사역-권태동, 한광호, 이길태

*수원양조주식회사

대표취체역-조인행 // 취체역-홍사헌, 조한교

대주주-홍사헌

4)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 1908년 9월 25일 발행, 62쪽

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각 연도판 참조

*화성자동차주식회사

취체역-송병엽, 이인 // 감사역-조한교 김종응

대주주-송병엽, 이인

*용수농농주식회사

취체역-양성관, 홍사훈, 이길태 // 감사역-한상봉, 권태동

대주주-양성관, 홍사훈

*주식회사 제일사

대표 취체역-양규봉 // 취체역-이광현 // 감사역-양성관

대주주-양규봉, 이광현

이 외에도 차준담은 193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 수원에 내려와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에 화성홍산주식회사 취체역이 된 이후 수원금융조합장을 비롯해 중앙자동차주식회사 대주주이자 취체역,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대주주, 조선건물주식회사 및 수원상공주식회사 이사, 조선토목주식회사 대표 등을 지냈다. 조인행은 화성금융조합장(1942), 조선인쇄주식회사 대표(1943), 수원어업조합장(1943) 등을 지냈다.

당시 조선인 회사 가운데 화성홍산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제일사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수원 최대의 주식회사는 실상 제일사(第一社)였다. 자본금 50만원으로 1931년 4월 18일 창립된 대회사이다. 영업 종목은 곡물비료, 금융대차, 창고업, 새끼와 가마니(繩叭), 시멘트, 월성화(月星靴), 소주 등이다. 이 중에서도 비료포대(肥料叭)와 곡물 가마니(穀用叭)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총독부로부터 지정된 책임량이 200만 개에 달하며, 조선 각지는 물론 대만, 편창(片倉), 조선질소비료, 만주 매철 유한공사 등에 대량 매출을 하였다. 1934년 현재 사장 양규봉, 전무 이광현이 그 중심에 있었다.⁶⁾

제일사는 조선인의 힘으로만 경영하던 기업이었다. 제일사에서는 빈곤한 가정 여자들이 대전이나 경성 등지로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대표 양규봉과 상무취체역 이광현은 우선 수원에서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 구제책으로 설치비 4

6) 「농촌을 상대로 제일사는 활약, 수원에서 최대 주식회사」, 『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만원을 들여 제사공장을 설치하고, 1933년 10월 9일 공녀(工女) 선발 시험을 치렀다. 모집정원 40명에 지원자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경험 있는 여자만 40명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섬유공업에 나섰다.⁷⁾

화성흥산주식회사는 4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래 대금업에만 전력을 다해 왔다. 1937년 봄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제일사의 주도그룹의 일원인 이광현이 대표로 취임하였다. 이때 영업 목적을 방적(紡績)으로 변경하고 자본금도 50만원으로 증자하여 공장건축 기지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전환을 꾀하였다.⁸⁾

한편 수원의 자본가들은 수원지역의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수원의 조선인 상업인들은 1908년 수원상업회의소를 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내 일본인상업회의소와 통합해야 했다. 하지만 수원에는 일본인상업회의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는 해산되고 말았다. 수원의 일본인 상공업자들은 1923년 8월 2일 수원실업협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조선인 상공업자들도 참여하였다. 점차 실업협회 내에서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입지도 점차 강화되어 1937년에는 최재엽과 차준담이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선정되었다. 1941년 수원실업협회에서는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여 그해 12월 26일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1942년 3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월 23일 상공회의소 초대 의원들을 선거하고, 4월 1일 발족식을 가졌다.⁹⁾ 조선인 초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초대의원

- 부회두 차준담(수원상공주식회사)
- 상임의원 김학배(수원직물공장)
- 의원 이광현(화성흥산주식회사)

7) 「수원제일사서 제사공장 설치」,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23일

8) 「화성흥산회사 방적공업 진출」, 『매일신보』, 1937년 5월 26일

9)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 성황」, 『매일신보』, 1937년 5월 2일; 경기도경찰부장, 「(경고비 제460호) 水原實業協會役員會開催ニ關スル件」, 1941년 2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부장, 「(경고비 제460-2호) 水原實業協會役員會開催ニ關スル件」, 1941년 3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수원상공회의소 초대의원 선거 완료」, 『매일신보』, 1942년 3월 28일; 『수원상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0~631쪽 참고

- 의원 홍길선(수원주조주식회사)
- 의원 조인행(수원주조주식회사)
- 의원 차재윤(소화직물공장)
- 의원 이인(李 愼, 화성홍산주식회사)
- 의원 이승화(삼화상회)
- 의원 김현정(수원축음기상회)
- 의원 임병진(삼원상회)
- 특별의원 양규봉(주식회사 제일사)

수원상공회의소 초대 의원으로 당선된 조인행, 차준담, 이인(李 愼) 모두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취체역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인행과 차준담은 당시 경기도회의원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전시 통제경제체제에 따라 1944년 8월 18일 <조선상공경제회령>이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수원상공회의소는 경기도상공경제회 수원지부로 개편되었으며, 9월 28일 수원상공회의소 해산식이 거행되었다. 1944년 9월 1일자로 경기도상공경제회 설립위원으로 20명이 임명되었는데, 수원읍의 조선인 위원으로는 조선상공회의소 부회두였던 차준담이 포함되었다.

일제강점기 1930~1940년대 수원지역의 조선인 자본가들, 특히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수원지역 상공업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농상공 자금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신탁, 부동산업, 양조업, 운수업을 비롯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방적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1940년대에 일부 임원들은 경성부를 비롯해 전국적인 토목건축업에도 진출하였다.

2. 자본가층의 사회·정치 활동

1) 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주요 자본가층은 수원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먼저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⁰⁾

10) 이 글에서는 1929년 5월 화성홍산주식회사 설립 이후의 교육기관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930년대에 들어와 수원은 경성 이남에 있는 옛 수도로 21개면에 16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회지로서 보통학교 졸업생은 증가되고 있으나 상급학교로 취학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1931년 봄 일본의 동양대학(東洋大學) 문과를 졸업한 홍사운(洪思運)과 무장야(武藏野) 음악학교를 졸업한 홍길선(洪吉善)은 수원에 중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중학교 설립의 준비단계로 중학강습소(中學講習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원지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그 결과 1931년 9월 16일자로 경기도 학무국으로부터 중학강습소 인가를 받았다. 그들은 10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 학생들을 모집하고 제반 설비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강습소의 강사들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신현익(물리화학)과 차준담(영어)이 강사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¹¹⁾

당시 경기도평의회원 한광호는 줄곧 중등교육기관이 없음에 대하여 고민했다. 이에 수원에 중등학교로서 농업학교를 설립하고자 한광호가 중심이 되고 수원·안성·진위·용인 4개 군의 유력가 484명의 연서로 수원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다.¹²⁾ 한광호는 도평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원에 중등정도의 농업학교 설립을 주장하였다. 수원에는 농업시험장, 고등농림학교 등이 있으므로 중등정도의 농업학교를 설립하여 농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실업협회에서도 중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3년 4월 1일 역원회를 개최하고 도평의회원 한광호로부터 그간의 중등학교설립 운동 경과를 듣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수원읍회 의원과 유지들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¹³⁾

특히 한광호는 1933년 3월 27일 수원읍회의를 기회로 회의 종료석상에서 중학기성회 조직문제를 제안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을 이끌어냈다.¹⁴⁾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1935년 2월 28일 수원중등학교기성회 발회식이 거행되고, 부회장으로 최재엽이 선임되었다. 이후 기성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부금 모집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상임이사

11) 「수원중학강습소, 16일부로 인가」, 『매일신보』, 1931년 9월 22일

12) 『매일신보』, 1932년 1월 13일; 『매일신보』, 1939년 2월 4일

13) 「수원실업협회 역원회 개최」, 『매일신보』, 1933년 4월 4일

14) 「수원의 중학교 기성회를 조직, 한광호씨 발기로」, 『매일신보』, 1933년 4월 3일

15인을 선임하였는데, 조선인으로는 한광호와 이광현을 비롯하여 이완선, 김병호, 윤태인 등이 포함되었다.¹⁵⁾



<1937년 4월 25일 수원공립농업학교 낙성식 당시 경기도지사 대리로 참석한 도 산업부장 윤태빈 축사 모습(『매일신보』, 1937년 4월 27일)>

수원공립농업학교는 1936년 6월 18일부터 전국에서 학생들의 응모를 받았다. 다음날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배부 하였는데 55명 모집에 수험표를 받은 학생 수가 680명이었다. 무려 경쟁률이 13:1이나 되었다.¹⁶⁾ 7월 1일 수원공립농업학교 개교식이 거행되었으며, 임시로 수원공립보통학교를 교사로 이용하였다.¹⁷⁾ 수원공립농업학교 건물은 그 이듬해 완성되어 1937년 4월 25일 낙성식을 하였다.

수원공립농업학교는 개교 직후 학부형회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가 1940년에 5년제로 완성됨에 따라 학부형회를 해산하고 그해 4월 28일 수원농업학교후원회를 조직하였다. 후원회장으로는 최재엽이 추천되었다.¹⁸⁾

1939년 7월 22일 수원지역의 유지들은 수원고등여학교를 설치하고

15) 「수원중등학교 창립기성회 위원회, 상임이사 15명을 선임하고 기부금모집 방법 토의」,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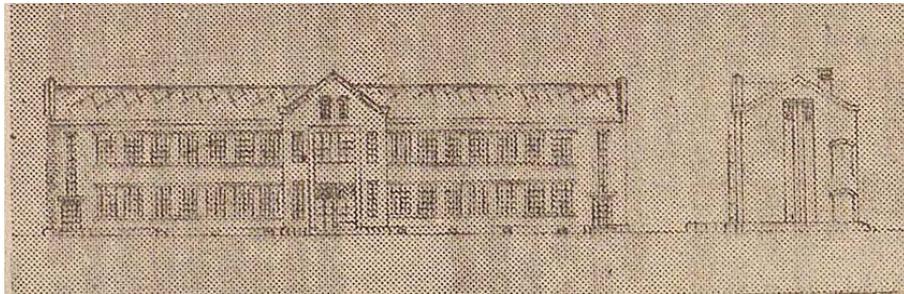
16) 「수원농업학교 창립초부터 입학난, 55명 모집하는데 응모자는 700여 명」,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22일. 제1회 입학시험 합격자는 『매일신보』, 1936년 6월 26일자에 게재되었다.

17) 「수원농업학교, 7월 1일 개교식」, 『동아일보』, 1936년 7월 3일

18) 「수원농업학교후원회 창총 성황」, 『동아일보』, 1940년 5월 5일

자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발기인으로는 조선인의 경우 최재엽, 한광호, 양규룡이 참여했다.¹⁹⁾ 수원고등여학교는 1941년 봄 신학기부터 개교하게 되어 학생 모집을 끝낸 뒤 5월 7일 개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²⁰⁾

수원상업전수학교는 1941년 3월 27일 인가받고, 4월 27일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²¹⁾ 설립자는 수원의 3대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취체역을 지낸 홍사훈이었다. 사재 20만원을 내어서 학교 교사를 신축하고자 수원을 남부정에 1만 4천 평을 매수하고 1941년 10월 27일 건평 400평의 벽돌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²²⁾



<수원상업전수학교 교사 설계도(『매일신보』, 1941년 10월 31일)>

수원의 실업인들은 기존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향여자심상소학교는 1934년부터 경영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년사업가’ 차준담은 매향여자심상소학교후원회를 조직하고 앞장서서 물심양면으로 활동하여 사재를 털어 교실을 증축하기도 했다. 차준담은 1937년 수원 삼일여자보통학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자담으로 4~5백원의 비용을 들여 학교 담벽을 건축하였다.²³⁾ 본래 미국 감리교 조선부인선교회유지재단에서 경영하던 중 미국선교사의 귀국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동안 차준담이 자력으로 경영을 유지해왔었다. 전 경영자인 선교회에서 자금부족으로 경영하지

19) 「수원고등여학교의 설치운동 구체화」, 『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

20) 「수원고녀개교식」, 『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21) 「수원상업전수교, 27일 개교식 거행」, 『매일신보』, 1941년 5월 2일

22) 「수원상전교 기공식」, 『매일신보』, 1941년 10월 31일 3면

23) 「수원삼일교 서광」, 『매일신보』, 1937년 6월 17일

못하게 됨에 따라 차준담은 기꺼이 자신이 단독으로 경영하겠다고 천명했다. 선교회에서도 이에 무조건 승낙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41년 2월 10일 취임식을 거행했다.²⁴⁾ 차준담은 해방 이후 사재 500만 원을 쾌척하여 수원매향고등여학교재단을 확립하고, 1946년 8월 5일 수원매향고등여학교로 확장하고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²⁵⁾

화성학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직된 수원상업회의소에서 1910년 11월 11일자로 상업강습소를 야학으로 인가받아 출범하였다. 1914년 4월 화성학원으로 변경한 이후 1920년에 전 조선에 향학열이 팽창되면서 5,6백 명의 아동을 수용하게 되어 수업료만을 가지고도 4,5년간은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점차 향학열이 식어가면서 재정의 곤란을 겪게 되었고 폐교될 지경에 이르자 1926년부터 홍사훈이 사재를 털어 5,6명의 교원 봉급을 자부담해 왔다. 1930년 4월에 이르러 시민 일반은 홍사훈의 헌신적 교육사업에 감복되어 자발적으로 유지회를 조직하고 몇 백 원 몇 천 원씩 기부하여 1만 2천원이 넘는 기본자산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²⁶⁾

수원공립보통학교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1933년 5월 21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최재엽은 부회장, 양성관·차유순·조한교·홍사훈은 고문, 한광호·신현익·윤태인·김병호 등은 후원회의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²⁷⁾

2) 경기도(평의)회 활동

일제는 1920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지방자치’란 미명 아래 도평의회(도회), 부협의회(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의 기관을 두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방행정 변화는 치안확보와 조세 체제의 정비를 통한 식민지적 관료제의 구축이었다. 실질적으로는 3.1운동 직후 민심을 수습하고 치안을 회복하여 조선인의 독립의 열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의결권한이 없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도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지방에서 협력자들을 양성하여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인들에게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24) 「새주인 만난 매향교, 차준담씨가 인계 경영」, 『매일신보』, 1941년 2월 9일

25) 「5백원을 쾌척, 수원매향여고재단을 확립, 차준담씨 미거」, 『동아일보』, 1946년 8월 15일

26) 「역사 깊은 화성학원 기초확립의 서광, 홍사훈씨의 성심으로 완성」, 『매일신보』, 1932년 9월 7일

27) 「지방집회」, 『매일신보』, 1933년 5월 25일

전반적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²⁸⁾

1930년대에 들어와 지방제도 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 면협의회를 제외한 부(읍)회는 물론 도평의회가 의결기관인 도회로 개편되었다.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임기 또한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도회위원의 정수는 도별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선거를 통한 민선의원이고, 3분의 1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관선의원이었다.

수원군의 경우 1930년까지는 민선의원 1명을 선거하였으나, 1933년부터 2명으로 늘었다. 수원군의 도평의회원 및 도회위원은 다음과 같다.²⁹⁾

<표 2> 1920~1945년 경기도평의회·도회위원 현황

연도	도평의회원	연도	도평의회 도회위원	연도	도평의회 도회위원
1920~1924	한상봉	1930~1933	한광호	1941~1945	조인행 차준담
1924~1927	한상봉	1933~1937	최재엽 신현익		
1927~1930	홍사훈	1937~1941	최재엽 한광호		

위의 도평의회 및 도회위원들은 살펴보면 신현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임을 알 수 있다. 즉, 감사 한상봉(1929~1937년), 취체역에 이어 대표를 역임한 홍사훈(1937~1945), 취체역 한광호(1929~1945), 취체역 최재엽(1937~1941), 취체역 차준담(1937~1945), 취체역 조인행(1941~1945) 등이었다.

또한 한광호는 1930년 수원면협의회원을 거쳐 1933년부터 1945년 8월 일본이 몰락할 때까지 수원읍회 의원을 지냈고, 최재엽은 1933년부터 1941년 사망할 때까지 수원읍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곧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상공업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한상봉의 경우는 1924~1927년 경기도평의회원이면서 동시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최재엽 또한 1941년에 중추원 참의

28) 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위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1쪽

29) 동선희, 위의 책 <부록>, 310쪽 345쪽 참조

가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을 지낸 사람으로 경기도평의회원 또는 경기도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1927~1930년 경기도평의회원을 지낸 홍사훈의 활동을 살펴보자. 홍사훈은 1929년 3월 4일 경기도평의회에서 토목사업 과정에서 소작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즉, 1928년도 경기도 각지에서 개최된 도로품평회(道路品評會)에서 부역을 강제로 하고 전답은 물론 농작물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는 등 지방농민의 피해가 매우 컸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로공사에 대하여 지주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작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도로공사에서는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³⁰⁾ 또한 경기도평의회에서 공성학이 제출한 보통교육의 보급을 위해 수업료를 경감하라는 의견서에 홍사훈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1930년 경기도평의회 선거에 수원군에서는 한광호, 이길태, 송병엽(宋秉燧)이 입후보하여 한광호가 당선되었다.³¹⁾ 1931년 3월 5일 경기도평의회 회의에서 한광호는 각 면의 구장(區長)을 유급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³²⁾ 경기도평의회는 1931년도 3월 회의 결과를 의견서 명목으로 도 당국에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한광호는 궁민구제사업 시행에 관한 건, 호세(戶稅)의 면제점 및 부과 저감의 건, 경기도 남부지방에 중등학교 또는 실업학교 설치요망의 건, 부락단위의 농업소조합 설치방법 장려의 건 등 4개의 의견서 제출에 참여했다.³³⁾ 한광호는 1932년 경기도평의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남부지방에 중등학교 증설을 계속 요구하였다.

1933년 5월 11일 경기도회 의원선거에 4명이 입후보 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최재엽 69표, 신현익 55표를 획득했다. 이때 차점자는 한광호로 51표를 득표했다.³⁴⁾ 이전까지는 수원군의 도평의회원은 1명이었으나 1933년 도회로 변경되면서 2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거구 지방의 발전과 일반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소화할만

30) 「각지의 도평의회, 경기 제2일」, 『매일신보』, 1929년 3월 6일

31) 『매일신보』, 1930년 3월 15일; 『매일신보』, 1930년 3월 25일

32) 「경기도의 제9일」, 『매일신보』, 1931년 3월 7일

33) 「경기도평의회 의원 요망안 내용, 개회 이래 누누협약한 결과 당국에 의견 제출」, 『매일신보』, 1931년 3월 8일

34) 「결의권 부여 후의 최초 선거 결과 발표」, 『매일신보』, 1933년 5월 12일

한 인원의 배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의 수원과 개성 지역에 각각 1명씩 도의원을 증원함에 따른 것이었다.³⁵⁾ 1933년 도회의원 선거는 이전 1920년부터 실시된 도평의회 시기와는 달리 도정 자문기관에 결의권을 부여하는 첫 번째 선거였다.

1934년 3월 7일 경기도회의에서 최재엽은 학교교장 문제에 대하여 일본인 교장은 206명인데 비하여 조선인 교장은 15인으로 그 차별이 심하므로 조선인교장을 50%까지 채용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무부장은 조선에 사범교육의 역사가 짧아 교장 적임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당국에서도 '내선차별(內鮮差別)'이 없이 자격자를 전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익은 1934년 3월 7일자 경성일보 조건 사회면에 게재된 교육계의 불상사 문제에 대하여 그 사실 유무를 따져 물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회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쳐 그 사건 전말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이 제의되었고 도지사사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대답한 뒤에야 회의가 끝났다.³⁶⁾

3월 8일 속개된 회의에서 신현익은 "교육의 목적은 인격 함양에 있다. 목하 교육제도는 조선인을 내지인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참된 내선융화를 목적하려면 조선인을 내지인으로 만들지 말고 내지인을 조선인화하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학교에 조선어과를 신설하고 조선인 교원을 배치하여 내지인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내선융화의 실례를 들어가며 열변을 토했다. 이날 최재엽은 수업료 반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³⁷⁾

3월 9일 속개된 회의에서 신현익은 위생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생설비에 대하여 개론은 설명한 뒤 전염병 예방책과 공동목욕탕, 무료진찰, 위생사상보급 등을 질문했다. 또한 순회진료를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불친절을 원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의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당국의 불철저함에 대한 원망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장은 원망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으며, 사람마다 다른 것이므로 원망의

35) 「도의증원을 간망, 수원과 차별함은 유감이라고」, 『매일신보』, 1933년 4월 17일

36) 「백척간두에 선 농촌에 비상책 수립을 중용, 교육계 불상사 기사로 아연 긴장, 의장은 선거를 약속」, 『매일신보』, 1934년 3월 9일

37) 「소학교에 조선어과 설치를 강편 주장」, 『매일신보』, 1934년 3월 10일

여부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재엽은 아편중독자에 대한 확정되거나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³⁸⁾

1934년 3월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과 신현익은 수원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재엽은 갑종 농업학교 증설에 관한 의견서를 건의하였다. 이는 수원읍회원 일동과 수원실업협회에서는 통과에 노력해달라는 격려 전보를 경기도회 의원들에게 보냈다. 더욱이 신현익과 최재엽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할 정도로 ‘민의를 존중’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갑종 농업학교 증설 가결에 앞서 최재엽은 농촌진흥운동과 농업입국의 조선의 대의를 들어가면서 그 실현의 시기 적절성을 제창하고, 신현익은 수원군의 의원들은 이 안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언명하면서 농교의 위치는 수원이 적절하다고 역설하였다.³⁹⁾

1935년 3월 19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도립의원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아 빈민에 대한 시료를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현익은 순회진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고 공동목욕탕의 증설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공의(地方公醫)로서 왕진을 가서 왕진료를 즉석에서 청구할 때 없다고 하면 불미한 얘기가 오가는 등 불평이 많은 지방이 있는데 이후 공의는 인격자를 선정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위생과장은 공동목욕탕을 점차 증설할 것이며, 순회진료는 단시일에 순회 진료 일수를 늘려 유효하도록 노력중이라 답했다. 신현익은 또한 농촌에 의료기관을 더 충실히 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부장은 공의에 대하여 보다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⁴⁰⁾ 3월 22일 회의에서 최재엽은 몇 년 전부터 수원에 중등학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1936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⁴¹⁾

1935년 3월 18일 경기도회의에서 신현익은 제3고보를 수원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사립학교가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년도 보조예산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무부

38) 「경기도회 제6일」, 『매일신보』, 1934년 3월 11일

39) 「경기도회 제9일, 수원농교안 통과, 격려전이 설비(雪飛)」, 『매일신보』, 1934년 3월 16일

40) 「도내 나병환자는 3월 중순까지 일소, 경기도회 제7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21일

41) 「보통학교를 증설, 농업교육에 주력하라, 경기도회 제9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23일

장은 제3고보 설치에 당국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나 예산 관계상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사립학교 보조액은 사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금후 형편에 따라 가급적 원조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다.⁴²⁾

1937년 2월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경기도내 중소상공업자를 적극적으로 보조 장려하여 산업진흥을 시키고, 농가의 부업을 장려해서 농가경제를 다소라도 윤택하게 할 방법을 물었다. 또한 가축시장의 사용수수료 일부를 읍면의 재정으로 하는 문제, 면직원에 대하여 물적우대를 위해 증급하는 것은 좋은데 정신적 우대 즉 성적과 근속 여부에 따른 주임관 대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산업과장은 농가부업품이 현재 과잉상황으로 그 판로에 대해 통제회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공업의 권업 장려는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⁴³⁾

1937년 3월 1일 경기도회의에서 신현익은 경기도 당국에 대하여 교육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는 관념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우를 우대할 의사가 없는지, 중등학교처럼 보통학교에도 수신(修身) 전임 선생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최재엽은 경기도 실정에 비취 공업학교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중등정도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최근 상급학교 입학률이 좋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중등학교의 학급은 다음 해에 얼마나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학무과장은 공업학교 설치안은 항상 예산을 세우지만 삭제를 당하고 있으며, 학급 증설은 국고의 지원으로 증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⁴⁴⁾

1937년 3월 3일 경기도회의에서 최재엽은 농촌부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양잠업의 누에(繭)판매를 당국이 좀 더 원활하게 해 줄 것, 금년부터 조선인교장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 최근 영리추구 경향이 있는 도립의원 규탄하며 시료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 수속을 보다 간편하게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⁴⁵⁾

1937년 5월 10일에 치러진 경기도회 의원 선거에서 수원군에서는 3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당선되었다. 한광호(42세)가 85표, 최재엽

42) 「인구를 표준하여 학교를 시설하라(경기도회 제6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19일

43) 「경기도회 제4일」, 『매일신보』, 1937년 2월 26일

44) 「교육문제로 의연 격론, 설화의 공방전 백열(경기도회 제8일)」, 『매일신보』, 1937년 3월 3일

45) 「각 도회의 본무대화」, 『매일신보』, 1937년 3월 5일

(43세)이 82표로 당선되었으며, 함께 출마했던 전 경기도회 의원 신현익은 23표로 고배를 마셨다. 한광호는 다시 경기도회 의원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최재엽은 연임되었다.⁴⁶⁾

1939년 2월 24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경기도민 다수가 농민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케 하는 기채로 공업용지 조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는 오히려 당시 시국(時局)에서 후방의 생활상 다소간 불안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업용지 설정이 경성과 인천 사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⁴⁷⁾ 이는 최재엽이 늘 주장하는 경성과 수원을 잇는 산업발전책을 염두에 둔 지적이었다. 1939년 3월 3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한광호는 수원 통학생을 위한 보건위생 시설 방책, 수원의 가정여학교 확충, 각 전문학교 입학생 가운데 일본인 학생에 비해 조선인 학생의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이 학력차이 때문인가, 입학난 완화를 위해 행교재산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경기도 학무과장은 전문학교 문제는 경기도에 관계가 없으며, 향교재산 이용문제는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⁴⁸⁾

한편 도회의원들은 일제의 전시 동원 및 통제정책에 기여하였다. 1938년 2월 경기도회 회의에 즈음하여 도회의원들은 경기도회 이름으로 중국침략의 전선에 나가 있는 일본군의 지휘관에게 축전을 보내고, 조선인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일본 내각 각 대신들에게 축전을, 또한 조선교육령 개정에 대해서도 축전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때 최재엽은 조선교육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축전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은 모두 제안대로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학제개혁 감사전>은 다음과 같다.⁴⁹⁾

“학제개혁 감사전(感謝電)

반도의 교학(敎學)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은(皇恩)에 욕(浴)하고 현저한 발달을 수(遂)하였음에 이제 또 각하의 어고배(御高配)에 의하여 근근(近近) 교육령을 개정하여 이 진작을 도하고자 함에 도민은 환희

46)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매일신보』, 1937년 5월 11일 호외

47) 「경기도회 제2일의 논진」, 『매일신보』, 1939년 2월 26일

48) 「향교재산 이용, 입학난 완화하라」, 『매일신보』, 1939년 3월 4일

49) 「경기도회, 2대 제도 실현과 복지향군에 감사전」, 『매일신보』, 1938년 2월 25일

감격하는 바이다. 본 도회는 개회의 벽두 만장일치로서 자에 감사의 의(意)를 표함 경기도회 의장”

최재엽은 1937년 12월 중국침략의 전선에 나가 있는 일본군을 위한 위문단에 경기도회의원 대표 3명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경기도회 의원으로는 한상룡과 최재엽 외에 일본인 의원 길전수차랑(吉田秀次郎)이 함께 했다. 이들은 1938년 1월 17일 귀국했다.⁵⁰⁾

1941년 5월 10일 치러진 경기도회 의원 선거는 90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28명의 민선의원이 당선되었다. 전시상황에서 유권자 2,249명 가운데 42명(1.8%)만이 기권하고, 무효표는 1표에 그칠 정도로 전례 없는 투표였다고 한다. 또한 새로이 당선된 사람이 21명이나 되었다.⁵¹⁾ 이러한 시기에 수원에서는 차준담과 조인행이 1941년 5월 경기도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⁵²⁾ 이들은 모두 새롭게 도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차준담은 36세, 조인행은 50세였다. 1944년 11월 당시 경기도회 의원 차준담과 조인행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도내 <각군 순회 미곡공출 격려> 운동을 위해 각각 양주군과 포천군에 파견되기도 하였다.⁵³⁾

3.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동

1930~1940년대 수원지역의 자본가층은 전시체제하에서 침략전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전쟁협력단체에 참여하였다. 전시체제기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제 협력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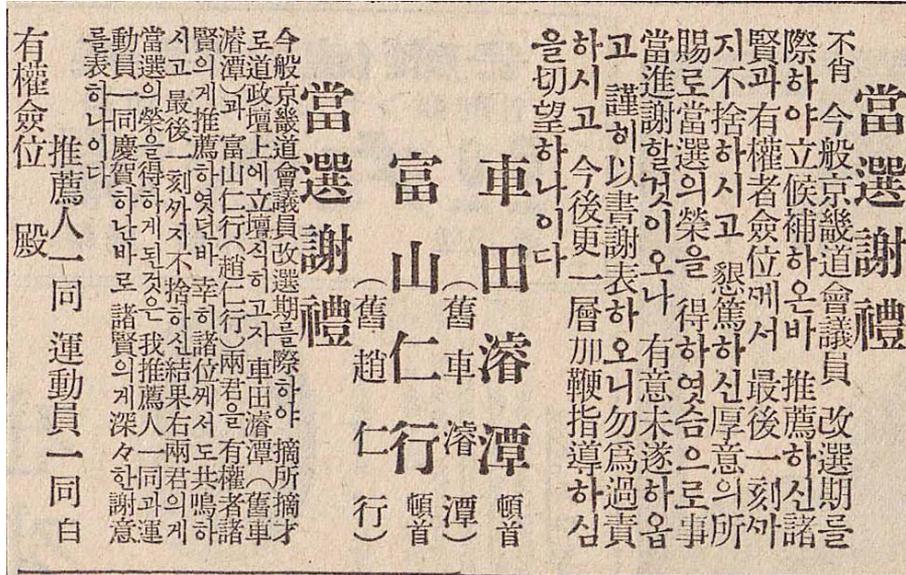
먼저 일제의 침략전쟁 군사장비 지원활동을 보자. 이러한 양상은 일제의 만주침략 직후부터 나타난다. 한상봉은 일제의 만주침략 이듬해인 1932년 경성부 필운동 157번지에 거주할 때 ‘애국기(愛國機) 조선호(朝鮮號)’ 헌납금으로 경성부에 1원을 냈다.⁵⁴⁾ 양성관은 일제의 만주

50) 『매일신보』, 1937년 12월 29일; 「인사」, 『매일신보』, 1938년 1월 18일. 중국의 일본군 위문단에는 자작 윤덕영 일행과 조선군사후원연맹의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51) 「신인들 압도적 우세, 감탄할 기권을 감소, 익찬을 표현한 도의원 선거전」, 『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52) 「영예의 당선자」, 『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53) 「경기도 미곡공출 격려 인사」, 『매일신보』, 1944년 11월 29일



<차준담과 조인행의 경기도회 의원 당선사례/『매일신보』, 1941년 5월 14일>

침략 이후 고사기관총 구입비로 1,600원을 지원했다.⁵⁵⁾

일본의 중국침략 직후인 1937년 9월 21일 수원의 유지들이 수원군청 회의실에 모여 수원군수를 좌장으로 하여 “수원호(水原號)” 육군용 비행기 1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실행위원 41명을 선정하고 군내 19개면에서 4만 2천원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즉석에서 자진 기부한 금액이 1만 4천 5백원에 달했다. 이때 양성관 5천 5백원, 차유순 5천원, 윤태정 3천원, 윤주성 1천원을 기부했다.⁵⁶⁾ 이후 9월 30일까지 누계 2만 4천 760원에 달했는데, 추가로 이광현 1천원, 홍사헌 4백원을 기부한 것이 확인된다.⁵⁷⁾ 한편 홍사헌은 “애국군용기 경기호” 건조비로 300원을 기부했다.⁵⁸⁾

54) 「조선훈납금, 경성부 취급」, 『매일신보』, 1932년 3월 16일
 55) 「기관총 헌납」, 『동아일보』, 1933년 3월 26일
 56) 「총후의 애국적성, 유지 80여명 회합, “수원호” 헌납 결의」, 『매일신보』, 1937년 9월 23일
 57) 「“수원호”에 응집하는 군민의 애국단성」, 『매일신보』, 1937년 10월 7일. 헌금자는 다음과 같다. 이광현 1000원, 홍사헌 300원, 정병덕 300원, 오득영 300원, 윤태인 250원, 이경의 250원, 이광현 150원, 박기석 100원, 임병구 50원, 조공환 40원 등
 58) 「애국군용기 수원호 헌금 속속 답지」, 『매일신보』, 1937년 9월 17일



<중일전쟁 직후 군용비행기 “수원호” 제작비를 헌납한 양성관과 차유순/ 『매일신보』, 1937년 9월 23일>

화성홍산주식회사의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각종 일제의 전시통제 및 전쟁협력단체를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하였다. 중일전쟁 직후 수원읍에서는 방호단을 조직하고 방호연습을 실시했는데, 차유순과 양성관은 방호연습에 사용하라고 각각 500원을 기부하였다.⁵⁹⁾

홍사훈은 수원국방의회에 참여했다. 수원국방의회는 수원의 일본인 유지 향전(香田)을 회장으로 하고 홍사훈 외에 수십 명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참여했다. 수원군내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양성관이 500원을 의연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수원국방의회에서는 1933년 4월 19일부터 용산 20사단의 장교를 초청하여 수원읍 2곳, 매송면, 봉담면, 발안면 등 6개소로 나누어 군사강연과 만주사변 영화를 상영하였다.⁶⁰⁾

1938년 7월 7일 오전 8시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경성전기 수원지점 뒤 광장에서 국민정신총동원수원연맹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24개 단체와 5천여 명의 관민(官民)이 모였다. 이사장은 수원군수인 허섭(許燮)

59) 「각 지방의 애국열, 『매일신보』, 1937년 7월 18일

60) 「수원국방의회 활동, 『매일신보』, 1933년 4월 24일

이었다. 결성식에서 경기도회의원 최재엽(崔在燁)이 개회를 선언했다.⁶¹⁾ 7월 15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국민정신총동원 경기연맹이 창립되었다. 이때 최재엽은 상무이사로 선정되었다.⁶²⁾

1917년 10월 수원신사가 창설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에 장소가 좁다고 새로 조성하고자 1938년 12월 23일 수원신사봉찬회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총공사비를 9만원으로 예정하고, 장소는 수원심상소학교 왼쪽 산 중턱으로 정했다. 회장은 당시 수원군수 허섭(許燮), 부회장은 양성관과 수원읍장이 맡았으며, 이사로 이진영(李珍榮)외 13명, 평의원으로 윤원영(尹元榮) 외 102명이 참여했다.⁶³⁾

조선총독부는 1939년 12월 17일 유림들을 동원하여 “거국 대동단결의 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진중보국의 지성”을 취지로 수원유도회(水原儒道會)를 결성하였다. 군수가 회장을 맡았으며, 양성관과 권태동이 부회장을 맡았다. 최재엽과 한광호는 고문을 맡았고, 차준담, 윤태중, 홍길선 등은 이사로 참여했다.⁶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사는 1938년 4월 15일 주식회사 매일신보사를 창립했다. 『매일신보(每日申報)』는 1905년 8월 11일 창간되어 34년간 발행되어 오다가 1938년 4월 15일자로 주식회사 매일신보사(每日新報社)를 설립하고, 신문제호도 『매일신보(每日新報)』로 변경하였다. 차준담은 주식회사 매일신보사의 찬성인으로 참여했다.⁶⁵⁾

또한 차준담은 1939년 1월 매일신보사 주최 ‘중지(中地)황군위문 및 전후경제시찰과 대만 주요도시 산업시찰단’의 참가인사에 참가하였다.⁶⁶⁾ 매일신보사 주최 ‘중남지대만(中南支,臺灣)시찰단’ 44명 가운데 차준담도 포함되어 있다. 시찰의 목적은 중국 상해, 남경, 항주, 대만 등의 문화와 발전상을 시찰하고 일본군을 위문하기도 했다.⁶⁷⁾

1942년 9월 국민총력수원군연맹에서는 조선의 징병제도 시행에 대

61) 「경기도 각군에도 정신총동원 연맹 7일에 결성식 거행(수원)」, 『매일신보』, 1938년 7월 9일. 이때 미나미 조선총독과 鹽原 학무국장의 축전이 낭독되었으며, ‘황국신민서사 제창’ ‘국가합창’ ‘국기제양’ 등의 순서대로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62) 「정신총동원경기연맹 금 15일로써 수탄생(遂誕生)」, 『매일신보』, 1938년 7월 16일

63) 「수원신사 조영코저 봉찬회 조직 활동」, 『매일신보』, 1938년 12월 25일

64) 「유림보국운동 각지에서 유도회 결성」, 『매일신보』, 1939년 12월 21일

65) 『매일신보』, 1938년 4월 15일

66) 「만원 후도 신청 답지 부득이 7명 추가, 본사 중지시찰단 인기 백열화」, 『매일신보』, 1939년 1월 11일

67) 「대망의 이날! 본사주최 중남지, 대만시찰단, 44명 금일 오후 등정」, 『매일신보』, 1939년 1월 19일

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일본어 보급운동’ ‘생산확충’ ‘저축장려’ ‘한해(旱害)극복’ 등을 강조하기 위해 강연대를 수원군 각지에 파견했다. 강연을 통하여 “총후국민의 사기를 고무하여 황국신민의 의식을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수원의 대표적인 자본가이자 정치가인 차준담, 신현익, 조인행, 한광호 등이 강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민총력수원군연맹의 시국강연 순회일정은 다음과 같다.⁶⁸⁾

<표 3> 국민총력수원군연맹 시국강연 순회일정(1942.9)

장소	일시	연사
수원읍	9월 25일	白川元藏
일왕면	9월 16일	車田濬潭(차준담)
반월면	9월 16일	木村榮吉
매송면	9월 28일	鈴川泰重(윤태중)
봉담면	9월 17일	平山鉉益(신현익)
비봉면	9월 19일	平山鉉益
음덕면	9월 18일	車田濬潭
마도면	9월 19일	富山仁行(조인행)
송산/서신	9월 26일	清原光鎬(한광호)
팔탄면	9월 18일	眞城仲秀
장평/우정	9월 30일	鈴川泰重
향남/양감	9월 17일	富山仁行
정남면	9월 19일	眞城仲秀
오산/동탄	9월 23일	白川元藏
태장면	9월 14일	木村榮吉
안용면	9월 29일	清原光鎬

특히 전시체제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전쟁협력 단체에서 차준담의 활동이 주목된다. 차준담은 1941년 9월에 발기한 조선임전보국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조선임전보국단은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皇道精神)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하여 전시체제에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단체였다. 차준담은 1943년에 개최된 징병제 실시 전선공직자대회에도 경기도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⁶⁹⁾

또한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7월 일제는 공산주의 등 항일 사상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선인 전향자들로 시국대응전선사

68) 「시국강연 순회, 수원연맹서 각 면에」, 『매일신보』, 1942년 9월 17일

69) 『징병제실시 감사와 적 미영격멸 결의 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 1943

상보국연맹을 결성하였다. 차준담은 1939년 11월 말 현재 경성지부 관내 수원분회(1939년 4월 8일 결성)의 부분회장으로 활동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행위 등을 살펴보았다.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인들만으로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조직했다. 그 임원들은 대체로 농업과 상업 및 공업 자금의 대부분을 중심으로 한 금융신탁 회사나 자동차 운송, 부동산, 양조업 등에 종사하는 상공인들이었다. 특히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3대지주’ 또한 임원으로서 각종 상공업에 참여하였다. 화성흥산주식회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방적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에 진출을 피하기도 했지만 사업경영의 중심은 농상공자금 대부에 있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수원공립농업학교를 비롯해 수원고등여학교, 수원상업전수학교 설립을 주도함은 물론 각 교육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직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수원의 주요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활동에 나섰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기도(평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 모두가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상봉과 최재엽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역임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수원지역의 산업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회 의원직을 걸고 학교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동시에 교육 및 행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타파하고자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1930~1940년대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일부 임원들은 일제의 전쟁협력에 나섰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장비 제조비용을 지원하거나 하면 전쟁협력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징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황국신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아직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자본가층에 대한 연구는 일천할 뿐이다. 이 글 또한 짧은 시간에 우선적으로 『매일신보』와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본가로서 화성홍산주식회사 임원의 존재양상과 도의회 활동 및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동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 이동근, 「1920년대 수원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 농업진흥책」,
『수원학연구』 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 김인호, 「근대 수원 경제의 특징과 진로」,
『수원학연구』 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 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일수, 『근대 한국의 자본가 - 대구의 은행·회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출판부, 2009
-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물고을’ 수원, 한반도의 배꼽을 꿈꾸다』(‘수원’명칭 7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수원박물관, 2011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의 근대사회의 역사성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근대 자본가층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근대 수원지역 자본가층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역의 상공업의 발달과정과 함께 식민지적 상황에서 자본가층의 물적 기반, 사회적 역할 및 정치적 동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행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인들만으로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조직했다. 그 임원들은 대체로 농업과 상업 및 공업 자금의 대부분을 중심으로 한 금융신탁 회사나 자동차 운송, 부동산, 양조업 등에 종사하는 상공인들이었다. 특히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3대지주' 또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각종 상공 회사를 경영하였다. 화성흥산주식회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방적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에 진출을 피하기도 했지만 사업경영의 중심은 농업 및 상공업 자금 대부에 있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수원공립농업학교를 비롯해 수원고등여학교와 수원상업전수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직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수원의 주요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활동에 나섰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기도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 모두가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상봉과 최재엽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역임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수원지역의 산업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회 의원직을 걸고 학교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동시에 교육 및 행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타파하고자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1930~1940년대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일부 임원들은 일제의 전쟁

협력에 나섰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장비 제조비용을 지원하거나 하면 전쟁협력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징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황국신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주제어 : 화성홍산주식회사, 자본가층, 학교설립, 전쟁협력

[Abstract]

**Existing Aspect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in Suwon district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 with a focus on the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Park, Chul-ha(Suwon University, lectur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and its activities as a part of the process of inquiring into the historicity of the modern society of Suw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in Suwon district, it's essential to do research on the material foundation, social role and political trends of the capitalist society in the colonial situation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ommerce & industry in Suwon district.

This paper took a look at the political & social activities and the acts of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basis with focus on the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which was established mostly by the Korean capitalist society in Hwaseong distri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rom the 1930s to the 1940s.

The Korean capitalists in Suwon district organized Hwaseong Heungsan Co.,Ltd only with Korean people. On the whole, the board members were the persons involved in commerce & industry such as a financial trust company centering on a loan business for agriculture, commerce & industry, motor transport, real estate, and brewery business. Particularly, the representative '3 major landlords' in Suwon district were also

the board member of Hwaseong Heungsan Co.,Ltd. , running various commercial & industrial companies. Hwaseong Heungsan Co.,Ltd. once attempted at launching into an industry with focus on the spinning business after the mid-period of the 1930s, but its cen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lay in a business loan for agriculture and commerce & industry.

The major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le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 Suwon district from the front. They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Suwon Girls' High School, Suwon Commerce Initiating School[the former school of the present Suwon Commercial High School]including Suwon Public Agricultural School. In addition, the key board members donated their own property for financial backup of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or ran the schools which were faced with financial woes in person.

The major capitalists themselves in Suwon took the lead in political activities. Particularly, 7 persons who were appointed as the provincial council members of Gyeonggi-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ll of whom were the major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Among those persons, Han, Sang-bong and Choi, Jae-yeop were appointed even as an advisory committee of Jungchuwon which was an advisory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y contributed to the colonial polic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while putting a lot of efforts into the industrial & educational development in Suwon district. Further, they dared to promote school establishment by venturing their post of a member on the provincial council; at the same time, they aggressively set forth their opinions in an effort to break down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appear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From the 1930s to the 1940s, some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took the lead in cooperating with the war of the Japanese imperialism; for example, they dared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expenses for military equipment, and took the lead in propagandizing the purpose of conscription system by participating in a support group advocating the Japan-led war in person, and even took a lecture for implanting the "Consciousness of a subject of an Empire Country' into Korean people.

Keywords: Hwaseong Heungsan Co.,Ltd.
The capitalist society of Suwon,
School Establishment,
Cooperation with the war of the Japanese imperialism

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나혜석·홍사용·박팔양의 시를 중심으로

시 인
정수자

머리말

1.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의 세 양상

- 1) 나혜석-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 2) 홍사용-식민 수탈 속의 자주 혹은 주체성
- 3) 박팔양-식민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맺음말

머리말

한국문학에서 지역 문학을 구별하고 그와 관련된 문학적 정체성을 논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장르적 속성상 필수적인 인쇄매체의 중앙 집중으로 지역적 특색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 현상이 극심하던 근대 초기에는 잡지사나 신문사 등의 매체가 모여 있는 서울 중심의 작품 활동을 했으므로 지역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원 지역 고유의 정체성 구현이 어려운 것은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리적 여건에서도 비롯된다. 수도권 아닌 지역에 비하면 수원 특유의 문화적 독자성 실현과 구축이 더 힘든 것이다. 문화 전반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당시는 한국문학 전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므로 수원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여건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글은 수원 출신 문인을 중심으로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수원문학’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지역문학¹⁾으로서의 특성이나 지역적 정체

1) 지역문학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화되는데, 논자에 따라 개념이나 정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문인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일정 기간

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추정이 작용한다. 당시 수원 지역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문학 활동을 함께 하며 문학적 개성과 지향을 열어갈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면을 감안할 때, 수원이라는 지역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 여부를 떠나 이 지역 출신 문인들이 직면한 새로운 세계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우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규명함으로써 지역문학 연구의 한 단초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의 대상을 나혜석(羅蕙錫)·홍사용(洪思容)·박팔양(朴八陽)으로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도 근대 인식과 지역적 특성이 더 드러나는 시편을 택하되, 이들의 문학적 대응이 두드러진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1920년 전후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 시대적 공통점과 수원군 출신 문인이라는 지역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렇듯 지역적 연관성을 매개로 세 문인의 작품을 다시 고찰함으로써 수원문학에 대한 지역문학으로서의 정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시 수원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문인이었으므로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인식이나 지역적 특성 등의 규명을 통해 지역문학으로서의 수원문학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원문학의 정체성과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의 세 양상

나혜석·홍사용·박팔양은 문학 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수원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이 지역에서 어떤 교류를 했고, 지역문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 다만 홍사용과 박팔양은 가까운 지역의 선후배로 홍사용이 초기에 일정 부

살다 떠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역의 정서와 풍토, 그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작품 즉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그려내는 문학을 지역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지역문학에 대한 소고」, 남기택·오홍진·김현정·김화선·오연희, 『경계와 소통-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44쪽 참조.

2) 세 문인의 고향은 수원(나혜석), 동탄(홍사용), 안릉(박팔양)으로 모두 수원군에 속함. 수원군은 1914년부터 1949년 8월 14일부로 승격(하루 만에 시로 개칭)할 때까지 수원, 오산, 반월, 의왕, 동탄, 태장, 안릉, 남양, 봉담, 우정, 향남,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등 20개의 면이 있었음.

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실이 드러난다. 홍사용이 박팔양의 문청 시절 동인지인 『요람』에 작품 ‘비평’을 해준 것이다.³⁾ 하지만 나혜석은 지역적 연고에서 흔히 드러나기 쉬운 친연성이나 학연 같은 공유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차이와 그 차이가 만든 공간적 배경 그리고 거리상 좀 더 떨어져 있는 고향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문인이라는 매개항을 갖고 있는 이들의 문학을 살펴보면 당시의 수원 지역의 어떤 면모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경험한 식민지 근대와 수원 지역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작품에 투영되며 당시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왜곡된 근대’라고 불리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는 세 문인의 작품 속에서도 타파와 극복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잘못 시작된 근대에 대한 인식이 부정과 비판, 저항 등으로 집약되면서 민족이나 민중 혹은 여성이 주체로서는 새로운 근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과 대응은 문학적 경향이나 지향이 확연히 다른 중에도 작품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유린된 근대를 부정하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작품을 통한 구체적 대응이나 방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세계를 대별하면, 나혜석은 근대에도 여전히 가부장사회의 여성 억압과 차별에 주목하여 여성의 각성과 독립 나아가 해방을 꿈꾸는 문학적 응전을 보여준다. 홍사용은 문예지 발간과 신극(新劇) 등의 문화운동을 펼치는 한편 서정시와 민족의 정신성을 찾는 민요시 창작을 통해 식민지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박팔양은 민중계층의 각성과 투쟁을 통해 식민 근대의 구조적인 모순 타파와 극복에 시적 투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이들이 처한 식민지 근대의 비판은 물론 자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근대를 위한 시적 기획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시대적 응전이 두드러진 작품에 수원의 지역성이 함께 들어 있는 시편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중에도 지역성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홍사용에 비하면 나혜석과 박팔양 시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찾기가

3) 홍신선, 「박팔양의 시세계」, 『한국시의 논리』, 동학사, 1994, 121쪽.

더 어려운 형편이다. 주제만 아니라 소재 차원에서도 지역 특유의 정서나 지명을 드러내는 작품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나 지명을 명시하지 않는 작품에서도 수원 지역의 삶이나 정서 등이 간간히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향에서의 원초적 경험들이 시적 형상화라는 추체험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적 고유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각각의 작품 속에 투영된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정서 등의 규명을 통해 수원 지역의 특성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1) 나혜석-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정월(晶月) 나혜석은 1917년 『여자계』(창간호)에 「부부」를, 『학지광』에 「잡감」을 발표하며 문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나혜석은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며 한국문학사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새 장을 열었다. 각성한 근대 여성으로 가부장사회의 억압과 인습을 문제 삼는 글쓰기로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도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그녀가 “여성화가로서, 여성해방론자로서, 그리고 여성작가로서 언제나 자신이 내딛는 한걸음의 진보가 조선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각 위에서 나혜석은 가부장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강단 있게 펴나갔다. 남성 중심의 봉건적 인습에 묶여 있던 조선사회를 겨냥한 문학적 대응이 당대의 어느 인물보다 선각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것이다.

나혜석(1896~1948)은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 291번지에서 출생, 개명한 집안에서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삼일여학교와 서울의 진명여학교를 졸업한 후 떠난 일본 도쿄사립미술학교 유학에서는 신문물을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쿄에서 새로운 예술과 근대적 정신을 마음껏 흡수한 나혜석은 그림과 글에서 자신이 꿈꾸던 예술 세계를 찾아나갔다. 그런 중에도 나혜석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옥고를 치르고, 오빠 나경석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여성으로서의 활동 기반을 넓혀갔다. 이러한 과정은 나혜석이 조선 최초의 여성서양화가로 우뚝 서는 한편 유학 때 시작한 글쓰기를 확장하며 여성주의 작가

4)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9, 10쪽.

로 입지를 굳히는 든든한 자양이 되었다. 이후 여성의 각성을 통한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한 글쓰기는 어느 신여성보다 도전적인 길로 이어졌다. 나혜석의 글쓰기 자체가 곧 각성한 여성 주체로서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편수가 적어 아쉽지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산문에 메모처럼 삽입한 3편까지 합하면 시는 모두 9편이다).

나혜석의 근대적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 시는 「인형의 家」를 들 수 있다.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견고히 단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중략...)

4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맑은 암흑 橫行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 「인형의 家」 (<매일신보> 1921. 4. 3, 『정월 라혜석 전집』) 부분

이 작품은 “(각본) 『인형의 家』 중 마지막 회의 삽입 시”⁵⁾이다. 입센(Henrik Ibsen)의 희곡 『인형의 家』⁶⁾는 “노라”의 삶을 통해 남성 중심사회의 폐습과 여성 해방을 환기한 세계적인 문제작이다. 이 시에서 “노라”이자 나혜석 자신의 표상인 “인형”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조선 여성 모두의 환유로 증폭된다. 그리고 하나의 “위안물”로 도구화한 여성의 삶에서 “견고히 닫혔던/문을 열”라는 후렴은 가부장사회를 향한 모든 여성의 주문으로 확장된다. “장벽”과 “(닫힌)문”에서 “노라를 놓아주”라는 남성을 향한 명령이나 “나를 보아/정성으로 몸을 바쳐” 달라는 여성 후배들을 향한 부탁 또한 절규로 들릴 만큼 강력하다. ‘무수한 노라’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조선여성의 절실함⁷⁾으로 가부장사회의 억압과 각성을 일깨우는 데서 나오는 힘 때문이다. 남성 위주 “사회제도의 규범에서 해방되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한 꿈”⁸⁾이 나혜석의 기본 인식임은 물론 나혜석 문학의 기본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넛물」은 「인형의 家」와 달리 소박하지만 수월 지역을 다룬 시로 주목된다.

쫄쫄 흐르는 저 넛물
흐린 날은 푸르죽죽
맑은 날은 반짝반짝
(...중략...)
츄든지 더웁든지
싫든지 좋든지
언제든지 쉬임없이
외롭게 흐르는 넛물
넛물! 넛물!
저렇게 흘러서

5) 서정자 엮음,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203쪽.

6)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최초 번역은 『매일신보』(1921. 1. 15~4. 3)에 게재되는데, 당시 제목은 『인형의 家』였고, 이때 나혜석은 삽화를 그리고 삽입 시도 썼다. 이승희, 「번역의 성 정치학과 내셔널리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2004, 213쪽 참조.

7) 이승희, 앞의 책, 223쪽.

8) 이분희, 「나혜석 시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6, 54쪽.

湖되고 강되고 海되면
 흐리던 물 맑아지고
 맑던 물 파래지고
 퍼렁던 물 짜지고
 (華虹門 樓上에서)

- 「넛물」(『폐허』 2호 1921. 4, 『정월 라혜석 전집』) 부분

이 시에서 눈여겨볼 것은 “華虹門 樓上”이라는 장소의 표기이다. 굳이 장소를 부기한 데서 수원 출신 나혜석의 자부심과 애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녀가 화홍문을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수원에 와 있을 때 쓴 수필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편의 글에서 나혜석은 화홍문 근처 방화수류정이 지닌 명소로서의 풍광에 대해 자금을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華虹門 樓上”이라는 명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넛물”을 나혜석의 경험과 시간이 담긴 수원 지역의 특수한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애인 최승구를 잃고 난 후의 작품임을 감안하면 나혜석의 상처 입은 내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고향의 넛물에서 위로 받으며 치유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화자의 시선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물의 천변 만화나 밤낮없이 외로운 흐름 속에서 삶의 한 속성을 읽는 성숙한 모습에 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흐리던 물 맑아지고/맑던 물 파래지고/퍼렁던 물 짜지고”라는 구절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수궁하며 자신의 아픔을 승화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의 품을 던지지 드러내는 것으로 넛물의 정화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는 힘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혜석의 문학적 선취는 여성의 여러 문제를 근대적 인식으로 다룬 소설 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학적 의의도 소설과 평설을 위주로 하는 페미니즘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명되어왔다. 가사나 육아를 논하는 산문에서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을 향해서만 말하는 한계¹⁰⁾를 보이지만,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9) 수원의 화산, 화홍문, 방화수류정, 연무대, 봉녕사 같은 지명이나 특정지역에서의 산책과 추억을 비중 있게 다룬 수필은 「날아간 청조-연애와 결혼 문제」, 「나의 여교원 시대」, 「독신 여성의 정조론」 등이 있다.

누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특성은 시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직설 위주의 메시지 전달에 치우치거나 미적 완결성 미흡을 드러내기도 한다. 시가 나혜석의 주 장르가 아닌 데다 산문에 비하면 시의 미적 자율성 문제가 더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시대를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맞서는 문학적 대응은 어느 시인보다 확고한 것이었다. 이는 각성한 여성으로서 근대를 대하는 인식과 대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형의 家」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나혜석이 추구하는 여성의 각성과 해방은 그녀가 소설¹¹⁾에서 집중하는 주제로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첨예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여성의 대상화나 타자화에 머물러 있던 당시 남성 위주의 문학 관에도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균열을 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나혜석은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표명하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 그런 점에서 초근대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 그것들이 자신을 과멸로 이끌어도 굴함이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자 기념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¹²⁾ 무엇보다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적 태도가 한국 여성주의 문학을 건인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를 포함하여 나혜석이 일관한 여성적 글쓰기는 근대를 직시한 선각이자 실천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사회를 향한 도전적 글쓰기는 이중의 식민지에 대응한 문학적 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딸로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또 다른 식민지인 조선 가부장사회의 딸로 여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체적 글쓰기를 통해 전근대적 가부장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며 온몸으로 응전한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나혜석의 글쓰기는 페미니즘의 선취라는 근대적 실현으로 서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이것이 깨워준 자의 사명이

10) 배효진, 「나혜석 문학 연구-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논문, 2004, 65쪽.
 11) 소설의 제목은 「경희」·「회생(回生)혼 손녀(孫女)에게」·「규원(閼怨)」·「원한(怨恨)」·「현숙(玄叔)」·「어머니와 딸」로 제목만 일별해도 모두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최동호, 「나혜석의 선각자적 삶과 시-그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나혜석, 한국 근대를 거닐다』, 윤범모 외, 푸른사상, 2011, 207쪽.

요./개인 자의 직분이다.”(「光」 부분)라는 시구처럼 각성한 여성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분연히 보여준 것이다. 그로 인해 나혜석은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한국 여성주의문학의 한 선례로 평가된다. 나혜석이 수원 출신의 조선 최초 여성서양화가만 아니라 한국 여성주의 문학을 앞서 연 선각으로 남게 된 것이다.

(2) 홍사용-식민 수탈 속의 자주 혹은 주체성

노작(露雀) 홍사용은 1920년 『文友』에 「크다란 집의 찬 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만 아니라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쓰면서 <토월회>를 통한 신극(新劇) 운동에도 헌신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활동 폭이 넓었다. 하지만 홍사용은 「나는 王이로소이다」의 시인으로 알려지면서 문학적 조명이나 평가 역시 시 쪽에서 더 받고 있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낭만주의적 애상과 비탄을 주제로 한 ‘백조파’¹³⁾ 정서를 대변하는 시인이라는 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예동인지 『白潮』의 발간 비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백조파의 시적 지향을 공유하는 동안 홍사용도 감상적 낭만주의에 침윤된 채 ‘눈물의 왕국’¹⁴⁾을 세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요의 율격과 민족적 정서에 바탕을 둔 시가 많다”¹⁵⁾는 지적처럼, 비애와 애상의 정조를 주제로 하면서도 민족 공동체의 정서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3·1운동 후의 좌절에 따른 절망과 퇴폐가 뒤섞인 낭만적センチ멘털리즘으로의 세계를 거두고 민요시운동으로 뛰어드는 데서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홍사용 스스로 말하듯, 서구시 흥내를 버리고 민족적 리듬과 정서를 찾기 위한 길로 조선의 민요 ‘메나리’를 발견하면서 메나리 창작과 확산에 집중한 것이다.

홍사용(1900~1947)은 경기도 수원군(현재는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492번지가 본적지이고,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용인군(기흥면

13) 1922년 『白潮』를 창간하며 작품 활동을 함께 한 시인들. 낭만적이고 비관적인 정조가 두드러진 시세계를 공유하며, 근대시사의 한 국면을 타개했다는 평가를 받음. 동인지 출간은 홍사용의 헌신적 노력으로 가능했으며, 홍사용·박종화·이상화·노자영·김동환·박영희 등이 주요 구성원임.

14)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1986, 209쪽.

15)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363쪽.

농서리 용수골)에서 출생을 했지만, 백여 일 후 서울 재동으로 옮겨 유년기를 보내고, 다시 동탄에 와서 청소년기를 지낸 것이다. 다시 상경해서 휘문의숙을 다녔고, 3·1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에 와서 얼마간 있었다. 무엇보다 홍사용이 돌모루[동탄]에서 보낸 청소년기가 주목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한 때의 경험들이 시에 삼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작품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며 지역성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사용의 대표작인 「나는 王이로소이다」만 아니라 「통발」이나 향토정서를 주로 다룬 민요시 등에서 고향의 정서나 민속놀이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고향의 서정적 재현 가운데 보여주는 일제 치하 농촌의 황폐한 현실이다.

다음 시는 지역의 명칭과 고향 정서를 드러내는 시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뒷동산의 왕대싸리 한 짐 베어서
달 뜬 봉당에 일서 잘하시는 어머니 옛이야기 속에서
뒷집 노마와 어울려 한 개의 통발을 만들었더니
자리에 누우면서 밤새도록 한 가지 꿈으로
돌모루[石隅] 냇가에서 통발을 털어
손잎 같은 붕어를 너 가지리 나 가지리
노마 뭇 내 뭇을 한창 시새워 나누다가
어머니 줄음에 단잠을 투정해 깨니
햇살은 화안하고 때는 벌써 늦었어
재재바른 노마는 벌써 오면서
통발 친 돌城은 다— 무너트리고
통발은 떼어서 장포밭에 던지고
밤새도록 든 고기를 다— 털어 갔더라고
비죽비죽 우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나를 본다

- 「통발」(『白鳥』 1호, 1922.1, 『홍사용전집』) 전문

이 작품에서 홍사용은 “돌모루”라는 지명을 드러내며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돌모루[石隅] 냇가에서 통발을” 갖

고 고기 잡던 경험은 곧 토속적인 시공간의 재현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추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탈을 대목에서 중의적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빼앗긴 고기를 아쉬워하는 구절 즉 “밤새도록 든 고기를 다 털어 갔더라”는 박탈감이 강자의 횡포와 수탈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황상 “재재바른 노마” 역시 근대화에 앞선 경험으로 조선을 식민 지배하며 갖은 수탈을 일삼았던 일제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어수룩한 화자는 “단잠을 투정해 깨니/햇살은 화안하고 때는 벌써 늦”어버린 상황에서 겨우 “비죽비죽 우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근대에 뒤쳐진 채 홀로 “단잠”에 빠져 나라까지 잃은 참혹한 지경을 아이들의 고기잡이에 빗대어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나를 본다”는 대목은 억울한 상황을 직시하는 의미와 함께 이후의 대비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겠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역시 눈물을 통해 비참한 농촌을 환기한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王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十王殿에서도 쫓기어 난 눈물의 王이로소이다.

(…중략…)

열한 살 먹던 해 正月 열나흘날 밤, 맨젯더미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 인데요, 命이나 긴가 짧은가 보려고,
王의 동무 장난꾼 아이들이 심술스러웁게 놀리더이다. 모가지 없는 그림 자라고요
王은 소리쳐 울었소이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나무꾼의 山타령을 따라가다가 건넛山 비탈로 지나가는 상두꾼의 구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
그 길로 웅당우물로 가자면 지름길로 들어서면은 짙레나무 가시덤불에서 처량히 우는 한 마리 파랑새를 보았습니다.
그래 철없는 어린 王 나는 동무라 하고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서 무릎을 비비며 울었소이다.

(…중략…)

아아, 뒷동산 將軍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뜰구름은 얼마나 많이 王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나는 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王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王! 이 世上 어느 곳에든지 설움 있는 땅은 모두 王의 나라로소이다.

- 「나는 王이로소이다」(『白鳥』 3호, 1923.9, 『홍사용전집』) 부분

이 시는 백조과 시절의 홍사용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눈물”의 빈번한 등장과 “어머니”에 기대는 어린아이 어조의 산문시 형태는 홍사용 특유의 비탄 정조를 극대화하고 있다. 서사적 구성은 실패로 끝난 3·1운동 뒤의 상실감, 좌절 등을 보상해준 어머니의 품과 그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었던¹⁶⁾ 시대 상황의 한 축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눈물의 왕”은 곧 식민 현실에서 배태된 이 땅의 자식들이고, “설움 있는 땅” 역시 우리의 잃어버린 국토 전체를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가지 없는 그림자”이자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은 “과랑새”를 쫓다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 우는 상황 자체가 아이에게도 희망이 허락되지 않는 현실의 환유로 확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홍사용이 쓰는 “맨젓더미”, “옹당우물”, “장군바위” 같은 지명 즉 지역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명칭들이다. “열한 살” 때 본 석우리 모습으로 식민 치하 헐벗은 농촌을 환기하면서 단순한 감상주의적 퇴행을 넘어서는 식민지 소년의 “울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후 홍사용은 민요시운동을 펼치면서 ‘메나리’에 착안하여 민요시 창작에 집중한다. 민요야말로 3·1운동의 좌절 후에 공동체적인 대응을 견인하거나 민족적 정신을 형상화할 만한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나 사람과 환경 사이에 주고받는 낮익고 속 깊은 수작이 저절로 메나리 가락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속임 없는 우리의 넋 울리는 소리 그대로”¹⁷⁾라는 소신에 입각한 하나의 시적 기획이었다. 따라서 홍사용이 열중한 민요시론과 민요 짓기는 “우리 민요의 재인식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과 전통성을 회복”¹⁸⁾으로 식민 근대를 헤쳐가기 위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임성조, 「홍사용의 시세계와 문학사의 의미」,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1988, 126쪽.
17) 홍사용, 「조선은 메나리 나라」(『별건곤』 12·13호, 1928. 5), 『홍사용전집』, 뿌리와날개, 2000, 320쪽.
18) 김도훈, 「노작 홍사용의 민요시론」, 『민요론집』 제8집, 민속원, 2004, 47쪽.

이러한 기획에 따라 홍사용은 공동체적 삶과 정서를 주제로 하면서 당대를 담아낼 수 있는 민요시 창작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평온한 시절을 그리는 민요 중에도 농촌의 피폐한 상황을 암시하는 장면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밥 빌어 죽을 쑤어서/열흘에 한끼 먹을지라도/바빠나 돌아보소/속 못 채는 우리 남아/타는 애 썩은 가슴도/ 그 동안 벌써 아홉 해구려(「이한(離恨)-속, 민요 한 묶음」 부분)” 같은 시는 궁핍이 계속되는 농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물 캐러 가면은 먼산바라기/옹당우물 거울삼아 무엇을 보누/술도치에 몽당술을 감쳐야 쓰지「감출 수 없는 것은」 부분)” 같은 대목에서는 농촌의 전통 정서를 고향의 지명에 얽어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는 조선적인 주체성 구현이라는 민요시 창작 의도를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후 홍사용은 민요를 조선의 낯이자 주체성 실현의 유일한 길로 삼는다. 민요만이 조선의 시가라는 인식 하에 판소리나 노동요까지 ‘메나리’에 포괄하는가 하면 양시조와 신시 같은 애국계몽기 이후의 운문장르 전체를 부정¹⁹⁾하면서까지 조선의 향토성과 민족성 추구로 경사된 것이다. 하지만 민요론과 민요시 창작은 민요의 본래적 측면을 도외시한 창작으로 인해 작위성과 도식성을 노정한다. 또한 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대한 추구가 앞서서 삶의 궁핍한 현장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는 민요가 민중이라는 공동체의 체험이 자연스럽게 담기며 정착된 노래임을 간과하거나 당대의 민중 정서로 육화하지 못 할 경우에 초래할 어려움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홍사용의 민요시운동은 “밖으로 서구적인 것을 안으로 봉건적인 것을 동시에 부정함으로써 근대문학이 평민문학의 발전이라는 민족적 주체의 민주적 각성”²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홍사용의 민요시론과 창작은 조선의 낯 즉 조선인의 전통 정서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식민 치하의 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사용은 여러 편의 시에서 ‘돌모루’ 같은 구체적 지명이나 지역의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남다른 고향 의식을 보여준다. ‘쥐불날

19) 구인모,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허상』, 소명출판, 2008, 179쪽.

20) 최원식, 「홍사용 문학과 주체의 각성」, 『한국학문집』 제5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8, 118쪽.

이’, ‘통발 놓기’, ‘별점치기’ 같은 경기 지역의 민속놀이 또한 종종 그리면서 향토적 정서를 재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홍사용 시의 이러한 면모는 “같은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인케 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 자신의 동일성을 함께 실현하려는 예”²¹⁾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조파의 낭만과 감상에 함몰된 채 “현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셴티멘털리스트가 아니라 현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민족이 처한 공동 운명을 등한시하지는 않”²²⁾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응이라 하겠다. 이렇듯 홍사용이 보여준 수원 지역의 삶은 곧 당시 조선의 농촌과 농민의 생활상이다. 식민 통치의 강압과 수탈 아래 피폐해진 돌모루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민족적 자주와 주체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3) 박팔양-식민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여수(麗水) 박팔양은 1923년 최초의 사화집인 『폐허의 염군』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프로 문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경향파’²³⁾의 일원으로 사회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많이 썼다. 등단 초기에는 감상이 두드러지거나 모더니즘 그리고 다다이즘에 경사되어 모던한 풍의 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등단 초기에 하나의 풍조였던 “셴티멘털리즘을 주조로 하면서도 시적 대상을 한결같이 사회 현실에서 취하는 특성”²⁴⁾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계급의식을 시적 바탕으로 삼았을 무렵의 박팔양 시에서는 식민 근대를 타개하기 위한 저항 정신과 투쟁 의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팔양(1905~1988)은 수원군 안룡면 곡반정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박제현]가 양반관료지만 별로 너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란 박팔양(팔양은 아명 팔복을 향렬에 따라 바꾼 것임)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찍부터 서울 유학을 했다. 재동공립보통학교와 배재고보, 경성법학전문학

21) 홍신선, 「한국시의 향토정서에 대하여」, 『현대시학』(1995, 12), 현대시학사, 687쪽.

22) 이병기, 「노작 홍사용 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6, 24쪽.

23) 부산자계급해방문학을 추구한 시인들로 당시 시단의 감상과 안이한 현실 인식을 비판하며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 후에 ‘焰群社’와 ‘PASKYULA’를 해체·통합하여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를 발족, 프로시의 예술성과 대중화를 모색함. 박팔양을 비롯해 임화권환·안막·김기진·박영희·박세영·조벽암·백철·이찬·이용약·박아지·김형원·이상화·김창술·유완희 등이 있음.

24) 유성호, 「현실성과 서정성의 갈등과 통합」, 『박팔양 시선집』, 현대문학, 2009, 200쪽.

교를 다녔는데, 당시 배재고보에는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의 주역인 박영희와 김기진 등이 재학 중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팔양이 받았음직한 정치적·사상적 영향을 암시한다. 하지만 박팔양은 문학으로서의 예술성을 중시하여 시의 미적 자율성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는 그의 시적 궤적 “등단 초부터 『요람』 동인→카프 가입 및 탈퇴→구인회 가입 및 탈퇴→만주 체류→6·25참전→북한문단 지도자”²⁵⁾라는 역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박팔양의 시세계도 몇 번의 변모를 보여준다. 『요람』 동인지 시절에는 지역 선배인 홍사용의 평을 받으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 감상적 낭만주의 풍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또 정지용을 본으로 삼아 모더니즘을 추구하며 구인회에 가입하고 활동할 즈음에는 도시적 감수성을 중시하는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박팔양의 시적 특성은 신경향과 시와 거기서 더 진전된 혁명적 내용의 카프시라는 사회주의적 세계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의 시에서도 관념의 직설적 토로보다는 “전통적 서정시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주정토로의 방식이나 상징 등의 수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리얼리즘 형상화 방법의 다양한 가능성”²⁶⁾을 더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박팔양 시의 현실 타개 의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근대 초기의 식민 현실에 대응하는 저항의식을 더 보여주기 때문이다.

박팔양의 근대 인식과 대응이 두드러진 시로는 「밤차」를 들 수 있다.

추방되는 백성의 고달픈 백(魄)을 신고
 밤차는 헐레벌떡거리며 달아난다
 도망꾼이 짐 싸가지고 솔밭길을 빠지듯
 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이 괴물이어!

차창 밖 하늘은 내 답답한 마음을 닳았느냐
 숨막힐 듯 가슴 터질 듯 몹시도 캄캄하고나
 유랑(流浪)의 짐 우에 고개 비스듬히 눕히고 생각한다

25) 김낙현, 「박팔양 문학 연구-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5쪽.

26)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앞의 책, 363쪽.

오오 고향의 아름답든 꿈이 어디로 갔느냐

비답이집 비답이장같이 오붓하던 내 동리
그것은 지금 무엇이 되었는가
차바퀴 소리 諧調 마치 들리는 중에
희미하게 별려지는 괴로운 꿈자리여!

(…중략…)

그러나 기관차는 夜音を 뚫고 나가면서
'돌진! 돌진! 돌진!' 소리를 지른다
아아 털끝만치라도 의롭게 할 일 있느냐
아까울 것 없는 이 한 목숨 바칠 데가 있느냐

- 「밤차」(『조선지광』 1927.9 『박팔양 시선집』) 부분

박팔양의 시대 인식이 격양된 어조 속에 표출되는 작품이다. ‘밤차’에 “유랑(流浪)”하는 민중 즉 조국을 떠나는 조선 유민을 중첩하는 장면은 황막한 식민 현실의 축소판이다. “추방되는 백성의 고달픈” 혼을 싣고 가는 길, “도망꾼이 짐 싸가지고 출발길을 빠지듯/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유랑민의 묘사가 전보다 치열해진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야음”으로 상징되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시대의 암흑을 뚫고 가려는 박팔양의 의지는 “돌진”이라는 기차의 외침을 통해 고조된다. 여기서 기관차는 “시대의 암흑을 뚫고 나아가려는 가열찬 현실 타개 의지의 표상”²⁷⁾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비답이집 비답이장같이 오붓하던 내 동리”에 대한 생각과 “그것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 짐작도 안 되는 고향 걱정이 깔려 있다. 여기서 “비답이집”은 ‘답장’ 같이 가난하지만 “오붓한 동리”인 고향 즉 수원 곡반정리의 집이자 조선 농촌의 환유일 것이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름답든 꿈이” 사라진 식민지 고향의 공핍과 암흑을 되새기며 그것의 타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팔양은 시에서 수원 지명이나 정서를 내세우지 않으므로 “고향”이

27)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83쪽.

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다. 산문 「여름철과 나의 추억」에서 박팔양은 고향 풍광을 아름답게 그리며 그가 갖고 있는 고향 생각의 일단을 드러낸다. “내 고향은 서울서 南쪽으로 얼마 멀지 아니한 ××인데 그 마을에서도 山길로 約十里가량을 드러간다. 드러갈 때에는 山길이지만은 드러가기만 노흐면 洞里는 압히 훤히게 턱 터진 넓은 들로 向하고 있다. 뒤에는 언덕, 압혜는 들, 그 가운데 내가 살든 村이 있는데 그 압들에는 맑은 내(川)가 길게 흘러있다.”²⁸⁾ 들판이 넓어 ‘곡반정’으로 불린 박팔양 고향을 선명하게 묘사한 이 대목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고향의 모습은 박팔양이 등단 초에 한동안 추구한 자연 시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요한 봄 한낮에 풀밭에 누워
내 자라던 옛 고향 생각을 하니
구름이 아득하여 천리로구나
생각이 아득하여 천리로구나

남쪽으로 날으는 제비를 따라
잊어버린 고향 길 찾아가보자
늙으신 나의 부모 젊은 내 형제
두고 온 나의 고향 잊기 어려워

- 「고향 생각」(『삼천리』 1929.6) 『박팔양 시선집』 전문

내가 흙을 사랑함은,
그가 모든 조화의 어머니인 까닭이외다.
그대는 보셨으리다. 여름 저녁에
곱게 곱게 피는 어여쁜 분꽃!
진실로 기적이외다. 그 검은 흙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운 빛깔이 나오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宇宙의 秘密이외다.

- 「내가 흙을」(『시대공론』 1호 1931.9) 『박팔양 시선집』 부분

28) 박팔양, 「여름철과 나의 추억」, 『신민』 제16호, 1926. 7, 69~70쪽, 김낙현, 앞의 논문, 11쪽에서 재인용. 지금 곡반정동에는 박팔양의 생가로 추정되는 집(백부 박우양의 집)이 아직 남아 있어 보존 문제가 시급하다.

수원 지명을 딱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박팔양의 고향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다. 「고향 생각」에는 박팔양 초기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감상적 고향 회고를 보이는데, 그것도 ‘수원’ 출신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나칠 만큼 일반적인 고향의 모습일 뿐이다. 다만 “늙으신 나의 부모 젊은 내 형제/두고 온 나의 고향”에서는 말 그대로 “잊기 어려”운 원체험의 공간이자 식민 지배로 피폐해진 고향을 환기하고 있다. 「내가 흠을」에서는 고향의 흠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서나 “분꽃”처럼 작고 여린 생명에 경탄하는 서정적 발견이 잘 나타난다. 자연에 경외를 품고 자연의 세계를 추구하던 이 무렵의 시인에게는 “흠이 모든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을 산출하는 모태 같은 존재”²⁹⁾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향”과 등가의 상징성을 지니는 “흠” 혹은 “어머니”라는 원초적 경험과 공간을 다룬 시에서는 고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팔양은 많은 시편에서 식민 현실의 타개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추구를 보여줬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육화를 채 거치지 않은 진술을 직설적으로 펴거나 어떤 행동의 독촉을 받는 것처럼 부채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도 있다. 시냇물 소리조차 “나에게 속살대기를/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이 어느 때이뇨”(「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부분)라고 듣는 등 실천의 강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괴로운 조선의 울음소리가” 늘 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낳으려 신음”(「괴로운 조선」 부분)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술가에게도 “모든 미는 오랜 옛적에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도다//예술가여 그대의 손으로 칼을 갈으라/그대의 목을 베일 칼을 갈으라”(「神에 대한 질문」 부분)는 선동적인 주문을 거침없이 외치기도 한다. 이런 시를 통해 확인되는 박팔양의 근대는 미(美)조차 사라진 암흑의 세계이자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며,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을 촉구하고 추동하는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오래 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 부분)이라는 시구는 현실인식과 서정성의 탁월한 결속을 보여준

29) 서민정, 「박팔양 시의 특성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2, 17쪽.

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박팔양이 카프 맹원으로서의 현실인식과 낙관주의를 보이면서도 이념일변도보다는 문학주의에 보다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³⁰⁾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문학 근거에는 예술로서의 미적 자율성과 시적 인식의 깊이에 대한 추구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식민 근대에 박팔양이 택한 문학적 대응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중이 주체가 되는 현실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수원 출신의 대표적 문인 나혜석·홍사용·박팔양의 시를 중심으로 근대 인식과 대응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동시대 문인 중에서도 식민 근대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적 응전의 치열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수원 지역문학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나혜석이 보여준 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추구, 홍사용이 보여준 식민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 도모, 박팔양이 보여준 식민 근대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의지 등은 수원 지역의 문학사에서 귀한 성취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수원 지역의 문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 출신 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등을 고향 의식 속에 담아내는 것도 수원문학의 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수원 출신 문인의 문학에 대한 규명은 지역문학을 위한 연구인 동시에 수원문학의 미래를 위한 정초 작업이다. 현재 홍사용은 <노작문학관>과 <노작문학상> 운영으로 지역에서의 계승을 진행하는 중이고, 나혜석도 <나혜석기념관>으로 또 다른 계승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과 달리 박팔양은 월북 혹은 좌파 시인이라는 선입견을 아직 받고 있다. 남·월북 문인 해금 조치 후의 범문단적 조명과 평가에 비하면 수원에서는 자기 지역 문인에 대한 평가조차 소홀했던 셈이다. 하지만 통일문학사는 물론 수원의 지역문학사를 생각하더라도, 박팔양은 가려졌던 만큼의 조명과 평가가 필요하다. 식민 현실의 타개를 위한 문학적 응전이었던 신경향파나 프로시만 아니라, 고향의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의 아

30) 홍신선, 앞의 책, 129쪽.

름다움이 실현되는 낭만적 서정의 세계 등 다양한 깊이로 한국시의 자장을 넓힌 시인이기 때문이다.

나혜석·홍사용·박팔양 고찰은 수원 지역의 문학적 정체성과 가능성을 찾아보는 기획의 일환이다. 수원문학의 범주화에 포괄되는 문인과 작품의 발굴은 물론 수원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축적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를 학문적으로 구축해갈 때, 한국문학 내에서의 수원문학 위상과 지역문학적인 독자성을 심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방향성 모색에도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전집 및 선집

- 노작문학기념사업회, 『홍사용전집』, 뿌리와날개, 2000.
서정자 엮음, 『원본 정월 나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유성호 엮음, 『박팔양 시선집』, 현대문학, 2009.

논문 및 저서

- 김낙현, 「박팔양 문학 연구-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김도훈, 「노작 홍사용의 민요시론」, 『민요론집』 제 8집, 민속원, 2004.
류현영, 「나혜석 서사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3.
배효진, 「나혜석 문학 연구-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논문, 2004.
서민정, 「박팔양 시의 특성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2.
이병기, 「노작 홍사용 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6.
이분희, 「나혜석 시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6.
임성조, 「홍사용의 시세계와 문학사의 의미」,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1988.
조은혜, 「나혜석 회화의 성립과 전개」, 조선대 석사논문, 2004.
최원식, 「홍사용 문학과 주체의 각성」, 『한국학문집』 제5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8.
한동민, 「나혜석과 수원-고향 水原과 池洞에서의 생활」, 정월나혜석학술회의논문, 2009.
홍신선, 「한국시의 향토정서에 대하여」,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95.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정월 나혜석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구인모,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허상』, 소명출판, 2008.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1986.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남기택·오홍진·김현정·김화선·오연희, 『경계와 소통-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윤범모 외,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9.
장석주 외, 『땅은 글이 되고 시는 물이 되고』, 경기문화재단, 2006.
홍신선, 『한국시의 논리』, 동학사, 1994.

[국문초록]

이 글은 수원 지역 문인들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고찰 대상은 나혜석·홍사용·박팔양의 초기 시편이다. 이들은 근대 초기의 수원군 출신으로 등단 시기(1920년 전후)도 비슷하다. 하지만 작품을 통한 수원 지역문학의 정체성 모색은 쉽지가 않다. 서울 중심의 문학 관과 위성도시라는 조건 외에도 수원의 문학적 지평을 함께 열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왜곡된 근대’로 불리는 식민 근대는 이들에게도 타과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타자에 의해 이식된 식민 근대를 부정하며 민족이나 민중, 여성이 주체로 서는 새로운 근대를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인식 속에 지역의 삶을 함께 담아내는 작품은 많지 않다. 홍사용이 지역과 함께 근대를 담아낸 데 비하면 나혜석과 박팔양은 그런 작품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각각의 작품에서 지역의 삶과 언어, 정서 등이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근대 인식과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면서 각자의 시적 개성을 이루고 있다. 나혜석은 근대에도 여전한 가부장사회의 여성 차별과 억압을 직시하며 여성의 각성과 해방을 향한 응전을 보여준다. 홍사용은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시와 민족의 공동체 정신을 찾는 민요시를 통해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을 모색한다. 박팔양은 민중계층의 각성과 투쟁을 통해 식민 현장의 모순과 억압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극복하는 데 시적 의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식민 근대에 대한 비판 속에 지역성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지역성의 구현 정도에는 편차를 보이지만, 형상화라는 추체함을 거치는 동안 고향에서의 경험들이 수원 지역의 정서나 특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문학의 정체성도 이러한 작품들의 규명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토대 위에서 수원문학의 방향성과 미래상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근대 인식, 대응, 식민 근대, 수원문학, 나혜석, 홍사용, 박팔양

[Abstract]

Understanding Modernism and Reaction of Writers in Suwon region

-Based on poems of Na Hyeseok, Hong Sayoung and Park Palyang

Jeong, Su-ja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xtent of understanding modernism and the reaction of writers from Suwon region. The target of study is early works of poems written by Na Hyeseok, Hong Sayoung and Park Palyang. They started their literary career in the sam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1920) and are from Suwon District in the early modern era.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the identify of local literature of Suwon, based on their works. Other than the fact that Suwon is a satellite city with the same literary circle with Seoul(capital of Korea), it was not prepared to open a new prospect in the field of Suwon's literary cultur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that is often referred to as 'distorted modern era' was the object for them to overcome and avoid. They seek to find a new modern era with women/Koreans/public being the leader, denying the legitimacy of colonization period. However, there are also a few works that depicted local lives with the background of modern era. Hong Sayoung describe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theme of modern era. However, Na Hyeseok and Park Palyang did not produce much of works with the same theme. However, each of their works sends out the image of local lives, language and sentiments.

Each writer has different stand on the understanding of modern era and their reaction that forms individual's unique poetic characteristics. Na pointed out the continuing suppression

on women in a male-driven society (even in modern era), and challenged to awaken/liberate women. Hong seek the independency and self-awareness of people who were exploited, through lyric poetry and folk poems encouraging people to find Korean's unique community spirits, based on local custom. Park paid his attention to overcome/break own suppressing state of colonization through awakening the public to fight for their rights.

Their works reveal locality amid the criticism on modern era. This shows that the experience in their hometown manifests as local sentiment and characteristics of Suwon District, after going through re-enactment. Therefore, the identify of Suwon culture can be established once understanding on their works continue to be studied. Based on its found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seek the direction and image of future of Suwon literature.

Keywords: understanding modernism, reaction,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Suwon literature,
Na Hyeseok, Hong Sayoung, Park Palyang

신여성 林孝貞의 생애와 활동

화성시 향토박물관 연구원
정명희

머리말

1. 林孝貞의 집안과 三一女學校 졸업
2.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救國民團에 參與
3. 1920년~30년대 계몽활동
4. 1940년대 朝鮮臨戰報國團 幹部로서의 활동

맺음말

머리말

임효정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넘쳤으며, 전통적 유교사상이 남아 있던 당시에 여성으로서서는 드물게 근대적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전통사상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임효정은 신여성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때로는 독립운동으로 때로는 계몽운동으로 표출되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애석하게도 시대적 과제를 잘못 인식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였다.

1903년 용인에서 출생한 임효정은 5세 때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수원삼일여학교와 경성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기독교의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배웠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학생비밀결사조직인 구국민단에 가담하여 적극적 독립운동을 펼쳤다. 또한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하여 선진학문과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였고, 유학생들 중에도 흥사단, 수양동우회, 근우회 등의 단체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유학 후 조선으로 돌아와 여류명사들과 함께 강연회와 좌담회에 참여하여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평등사상과 민족주의사상을 체득한 임효정에게 가장 큰 과제는 조선독립과 교육을 통한 여성계몽운동

이었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남성보다 교육열이 뒤떨어지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식을 높이는 계몽활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극심해지자 계몽주의자들도 더 이상 계몽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또한 안창호와 남편 최용환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임효정을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특히 일제가 조선인을 선동하여 식민지화를 더욱 굳게 구축하려던 1940년대 임효정은 이미 여류명사로 조선여성들에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그녀의 영향력을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당위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일제가 주관하는 강연회에 참석하거나 시국좌담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하였고, 연설문과 기고문 등에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였다.

임효정 개인사에 대한 연구는 전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국민단, 흥사단, 근우회, 수양동우회 등의 단체활동과 동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의 연구에서 단편적인 사실들만 언급되어져 왔다. 그러나 임효정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구국민단활동¹⁾과 삼일학교 관련 연구²⁾, 1938년 이후의 친일행위³⁾ 등의 연구에서 조금씩 거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임효정의 독립운동이나 친일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여성이었던 임효정의 생애와 그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시 지식인으로 활약했던 임효정이라는 인물의 전체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임효정의 출신과 학교생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어 그녀의 다양한 활동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 구국민단에서의 독립활동, 1920~1930년대 흥사단, 근우회, 동유회를 통한 여성계몽활동, 1940년대 일제과시즘기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1)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3·1운동사』, 선인출판사, 2007년.
- 2)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 3) 박철하, 「같은길, 다른 선택」,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1. 林孝貞의 집안과 三一女學校 졸업

임효정의 출생과 집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1924년 興士團에 입단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력서를 보면, 임효정은 1903년 12월 21일 경기도 용인에서 林仁圭의 장녀로 태어났다. 부친 임인규는 1924년 당시 45세, 어머니 黃聖圭는 임효정과 9살 차이인 것으로 보아 계모로 추정되며, 동생으로 林奇善, 林孝根, 林孝恩이 있었다.⁴⁾ 부친이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그녀는 부친의 덕택으로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수원군 북수리에 있는 사립삼일여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세기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조선에 전파되었다. 당시의 조선은 안으로 봉건사회 개혁과 밖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맞서 대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기독교의 선교 사업에 아래 건립된 교회와 학교·병원·출판활동 등은 조선의 개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⁵⁾

특히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교육과 지식에서 소외당하고 억압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⁶⁾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받게 하여 사회일원으로 여성자신의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남녀가 동등한 사회를 만들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직접 체득시켰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하고자 ‘인재양성’과 ‘생활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크랜튼(Mary Fitch Scranton)여사는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엄격한 내외법 때문에 선교사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되자 전도부인제⁷⁾를 고안하여 이들에게 기독교

4) 흥사단 입단 이력서(임효정),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5)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韓國史論』 1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335~405쪽, 1973년.

6) 沈沃暉, 「192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고찰-기독교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 2004년.

7)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년, 50쪽.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진도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앙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이 중요 사안이 되었다. 스크랜튼 여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교육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⁸⁾

임효정은 삼일여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곳은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 여사가 수원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자 설립한 학교였다. 1902년 경 이하영, 임면수, 나중석, 차유순, 최익환, 홍건표, 이성의, 김제구 등에 의하여 사립삼일학교발족회가 발기되어, 1903년 5월 7일 보시동 북감리교회 내에 11명의 학생으로三一男學校가 설립되었다. 삼일남학교 발기인들은 모두畿湖興學會 수원지회 회원으로 일찍부터 애국계몽운동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⁹⁾ 1908년 재정문제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삼일학교는 경영권을 북감리회의 선교부로 이관하였다¹⁰⁾. 당시는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간섭을 덜 받았던 외국선교부에 학교의 경영권을 이양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민족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1907년 구한국 군대가 해산하자 일부 군인들이 사립학교의 후원자가 되거나, 교사로 채용되었다.¹¹⁾ 삼일학교의 경우 구한국군 출신 강건식을 채용하여 교과목 외에 군사 훈련에 버금가는 체육활동과 운동회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상무정신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삼일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을 이후 독립활동에 사상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삼일학교는 일제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민족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원지역의 중심적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삼일여학교의 위상은 여성교육을 실현하면서도 근대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 시키고, 수원지역에서 민족교육의 산실역할을 담당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¹²⁾

8) 광안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년, 68쪽.

9) 기호홍학회, 『기호홍학회월보』, 제2호, 1908년, 61~62쪽.

10) 김세환,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 동중상업고등학교, 1968년, 34~37쪽.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수원문화원, 2003년, 260~270쪽.

11)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18쪽.

12)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임효정에게 있어 삼일여학교에서의 근대적 교육은 해외 유학을 통해 선진 문명에 대한 새로운 학문과 학업에의 열망, 그리고 독립에 대한 투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전통적 유교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몽운동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임효정은 1919년 4월부터 1922년 3월까지 京城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 수학하였다. 스크랜튼 여사가 설립한 이화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삼일여학교에서 배운 평등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임효정은 1922년 9월부터 1924년 1월까지 中國 南京에 있는 明德女學校로 유학하여 공부하였다.¹³⁾ 임효정은 주관이 뚜렷하고 당찬 여성으로 여자의 몸으로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¹⁴⁾ 임효정의 중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당시 여류경제학자였던 崔英淑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¹⁵⁾ 기자가 “女子商業學校에 있는 임효정씨와 중국유학을 같이 한 것이 사실이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절친한 사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임효정은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국내에서 전개하지 못한 독립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담론은 그녀를 계몽운동가로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었다.

2.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救國民團에 參與

1919년 3·1운동이 실패하자 일제는 조선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였다. 이에 전국의 항일세력들은 비밀리에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¹⁶⁾ 당시 임효정은 이화학교 재학생으로 수

13) 興土團, 「入團 履歷書(林孝貞)」,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14) 「萬般事情을 制禦하고 支那로 留學-苦待하는出發日 林孝貞餘談」, 『메일신보』, 1922년 8월 2일 3면.

17) 「崔英淑地下訪問記, 冥府行列車를 追격하면서」, 『별건곤』 제52호, 1932년 6월 1일.

원에서 서울까지 통학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많은 지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임효정은 救國民團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학생비밀결사조직은 바로 血復團과 구국민단이었다. 혈복단은 수원지방 최초의 비밀결사 조직으로 학생과 교사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항일독립운동단체였다. 혈복단의 중심 인물은 李得壽(일명 李鍾祥)로 당시 경성기독교청년학관학생이었다. 이득수가 수원에서 혈복단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그의 한문선생인 車寬鎬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차관호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고 있었는데,¹⁷⁾ 제자인 이득수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獨立新聞』을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득수는 당시 徽文高等普通學校 4년생인 朴善泰와 함께 수원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신문』과 『大韓民報』를 배포하기로 약속하고 혈복단을 조직하였다.¹⁸⁾

이득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삼일학교 교사였던 車仁載를 통하여, 林順男¹⁹⁾(일명 林孝貞)과 崔文順, 李善卿 등을 규합하였다. 이들과 함께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으로 개칭하고, 단장에 박선태, 부단장 이득수, 서무부장 임순남(임효정), 재무부장 최문순, 구제부장 이선경, 교제부장에 차인재를 임명하였다.²⁰⁾ 구국민단에서는 한일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의 목표²¹⁾를 설정하고, 상해에서 보내온 『독립신문』과 『대한민보』 배부 등의 독립활동을 결의하였다.²²⁾

구국민단은 수원 읍내 삼일여학교에 비밀리에 모여 독립자금을 모

16)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3·1운동사』, 2007년, 164쪽.

17) 국가보훈처, 『韓國獨立運動史料(중국편)』, 1993년.

18) 박환, 위와 같은 자료, 170~171쪽.

19) 본명은 林孝貞이 었으나 구국민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시기에는 林順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78쪽; 金泰元, 「1920年代 水原地方의 民族運動 研究 - 靑年·農民運動과 카프運動을 中心으로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30~31쪽.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78쪽.

22) 「학생 구국단의 검거」, 『산한민보』, 1920년 9월 23일 3면 3단

집할 방법과 독립신문의 배포를 담당하기로 계획하고, 기회를 보아 임효정, 이선경, 최문순 등을 상해임시정부로 보내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게 하여 독립운동에 일조할 것 등을 맹세하였다.²³⁾

그러나 1920년 8월경 구국민단은 ‘조선독립사상에 관한 기사를 인쇄한 문서를 수원면 내 조선인에게 반포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했다’²⁴⁾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 되었다. 일경에 체포된 임효정은 ‘판사가 지금도 조선독립을 희망하느냐 물으니 서슴치 않고 물론 희망합니다’라고 답해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²⁵⁾

임효정은 구국민단 사건으로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국내 독립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유학을 통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과 함께 女性啓蒙運動에도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3·1운동 이후의 여성운동은 주로 야학과 강습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임효정은 동유회 및 여러 단체활동을 통하여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3. 1920년~30년대 계몽활동

1) 계몽의식의 성장

1905년~1910년은 애국계몽시기로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어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²⁶⁾ 또한 3·1운동을 기점으로 이후의 계몽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습타파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여성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²⁷⁾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각종 여

23) 金泰元, 「1920年代 水原地方의 民族運動 研究 - 靑年·農民運動과 카프運動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31쪽.

24) 「男女學生의 被促 - 가택수색을 하며 한편으로 구인해」, 『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 3면 4단. 「京畿道 水原에서 昨年 3월부터 今年 7월」, 『매일신보』, 1920년 11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 36年史』 제5, 탐구당, 1972년. 735~736쪽.

25) 「水原郡 血復團 公判延期 각 여학생 등을 체결하여 독립신문을 배포하던 이득수사건」, 『조선일보』, 1921년 3월 3일 3면 석간.

26) 박용옥, 「1920년대 新女性 研究 - 『新女子』와 『新女性』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5년.

27) 우정미,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277~278쪽.

성단체가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여성들 역시 인습타파,²⁸⁾ 교육,²⁹⁾ 경제적 자립³⁰⁾과 남성들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³¹⁾

이렇게 평등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여성들은 미국과 일본 등지로 유학하여 여권운동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며, 학교의 수도 많아 학교에서 배출한 여성 식자층이 조선보다 많았다. 임효정에게 있어 일본으로의 유학은 국내 독립활동의 제약 때문도 있겠지만,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그녀에게 신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계몽방법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임효정을 비롯한 일본유학생 출신 여성선각자들이 경성으로 돌아와 조선여성의 여권신장과 근대적 추세에 대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평문등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1920~30년대 계몽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³²⁾

2) 興士團 및 權友會 활동

임효정은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흥사단은 ‘민족 前途大業의 기초’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務實·力行·忠義·勇敢의 정신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신체를 단련하여 기르는 수양단체이다.³³⁾ 흥사단은 1924년 2월 7일~8일에 제

28) 우정미, 「韓日 新女性の 家庭觀 研究」, 『일본문화학보』 제4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韓日 新女性の 戀愛觀 研究」, 『일본문화학보』 제3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6년. (가정관과 연애관에 있어 이전의 구습에 의한 정략적 혼인이 아닌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을 통해 대등하고 평등한 부부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9) 우정미, 「韓日 新女性の 教育觀 研究」, 『일본문화학보』 제46집, 2008년. (교육관에 있어서는 여성도 남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 신여성으로서 여성이 아닌 시민, 민중으로의 자각을 깨워야 한다고 하였다.)

30) 우정미, 「韓日 新女性の 職業觀 研究」, 『일본문화학보』 제39집, 2007년. (직업관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통하여 남성과 평등한 관계속에서 사회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31) 菅原百合, 「1920년대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쪽.

32)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광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년, 70~71쪽.

33)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가을호), 2003년, 185~209쪽.

10회 원동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임효정은 여기에서 비단우 회원으로 참석하였다. 대회에서 상견례와 講論會가 열렸는데, 상견례에는 主席인 安昌浩가 참석하여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론회에서는 朱耀翰이 <맑쓰와 우리>, <改造>, 안창호가 <事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다. 임효정은 원동대회에서 「國交斷絶」이라는 연극에 출연하기도 하였다.³⁴⁾ 비단우 회원이던 임효정은 홍사단 입단 청원서³⁵⁾를 제출하였고, 그녀의 가입이 합격됨에 따라 1924년 3월 17일 남경 협진회 회관에서 안창호 주재로 豫備團友 입단식이 거행되었는데,³⁶⁾ 임효정은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 제20반원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홍사단에 가입한 임효정은 국내에서 홍사단 단우로 활동하지 못하고 곧바로 동경으로 건너가 女子英學塾에 입학하였다.³⁷⁾ 일본 英學塾에 입학한 임효정은 修養同友會 東京地方部에 가입하였다.³⁸⁾ (수양)동우회는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에 의해 조직된 홍사단의 국내지부로서 ‘民族性的 改造’와 ‘人格修養’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단체였다.

임효정은 김윤경과 함께 1926년 10월 30일 동경友愛學舍에서 이광수의 지도로 수양동우회 동경지방회반을 조직하였다. 1927년 6월 5일 이광수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에 非細胞的 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를 불건전하게 하며 그 유대인은 기타 민족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많으나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조선인도 비세포적 인물 즉 단체적이 아닌 인물

34) 興土團遠東臨時委員部, 「興土團第十回遠東大會經過現況」, 독립기념관소장.

35) 請願書

請願人 姓名 林孝貞(임효정)

年齡 二十一 歲

現住 中國 南京

本人이 貴團의 主義와 目的을 仰慕하고 入團하기를 志願하와 保證書와 履歷書를 別紙에 갖추어 茲에 請願하 오니 査照 後에 許入하심을 敬要.

建國 紀元 四二五七年 二月 十八日

請願人林孝貞(임효정)

興土團理事部長 閣下

36) 興土團遠東臨時委員部, 「(遠委發第59號)新入團員入團에 관한 報告의 件」, 기원 4257년 4월 20일.

37) <車利錫이 洪焉·韓承坤에게 보낸 서신>, 1924년 4월 22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38) 김윤경,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 독립기념관 소장.

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할 것을 이야기 했다.³⁹⁾ 임효정은 1928년 귀국 전까지 수양동우회 동경지방회의 월례회 및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다.⁴⁰⁾

그러나 전시과시즘체제가 강화되면서 수양동우회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⁴¹⁾ 수양동우회는 비밀결사가 아닌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한 친목단체였음에도 일제는 독립운동단체로 몰아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관계자 150명을 검거했다.⁴²⁾ 임효정 또한 이 수양동우회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임효정은 權友會에도 참여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되면서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성운동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1927년 5월 27일 근우회가 결성되었다. 근우회는 전 조선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항일 구국 운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⁴³⁾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의 통합된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동경에는 여자유학생이 300여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勞動婦人들이었다. 동경에서도 근우회 지회를 창설하기 위해 20인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1927년 12월 27일 신간회 동경지회 회관에서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회 의장은 朴花城, 서기 金英愛씨가 피선된 후 발기 취지, 본회선언, 강령 등을 설명하고 설립대회 준비를 위한 16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임효정은 재정부 위원에 임명되었다.⁴⁴⁾ 그러나, 임효정을 비롯한 수양동우회 동경지방회원들은 같은 시기에 신간회 동경지회와 근우회 동경

39) 「同友會事件」, 『思想彙報』 24, 1940년 9월.

40) 박철하, 「같은길, 다른 선택」,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회, 2008년, 183~184쪽.

41) 조선총독부, 「사변하의 기독교」, 『조선』, 1938년 11월; 김승태,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71~285쪽.

42) 박수현, 이용창, 허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제의 친일과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8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년.

43) 『우리 여성의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청년사, 1999년, 338~343쪽.

44) 「權友會東京支會 지난이십칠일에 발기회 창립대회는 일월중순경」, 『중외일보』, 1928년 1월 6일 2면 3단.

지회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음모와 獨權’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⁴⁵⁾ 이러한 이유로 임효정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 더 이상의 근우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東遊會 활동

1928년 일본에서 돌아온 임효정은 결혼 후 동유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경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사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⁶⁾

임효정은 1934년부터 동유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유회 회원은 현해탄을 건너 2년 이상의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⁴⁷⁾ 동유회 창립 당시 초대 회장은 金善이었고 임효정은 간사장에 선출되었다.⁴⁸⁾ 동유회는 매달 月例會화 夏期 및 秋期例會 통해 東京이나 京都 등지에서 새로 졸업하고 나온 新進들의 환영회를 열어주었고,⁴⁹⁾ 연중행사로 時局通論大會인 女流雄辯大會를 열어 일반 사회인사들에게 공개하였다. 동유회는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통해 여성에게 신지식을 전파하고 여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동유회 간사장에 선임되었던 임효정은 김선 이후 회장이 되었다. 임효정의 1930년대 활동 중 주목되는 것은 동유회 회장으로서 다양한 계몽활동이다. 특히 ‘남성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하여 근대적인 여성

45) 김윤경,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1926년 5월 30일~ 1928년 2월 4일), 독립기념관소장. (이 자료에 따르면 임효정은 총 16회 동경수양동우회 지방회의에 1~2회, 11회~16회까지 총 8회 참석하였다.)

46) 「京城女子學校 女先生 評判記」, 『女性』 9월호(제2권 제9호), 1973년 9월 1일 발행, 60쪽; 「女性界消息」, 『女性』 8월호(제3권 제8호), 1938년 8월 1일 발행, 44쪽.

47) 「동창회 비슷한 東遊會」, 『女性』, 제3권 6월호 제6호, 조선일보출판부, 1938년.

48) 「東遊會例會」, 『매일신보』, 1934년 7월 14일 6면 4단.

49) 「東遊會例會 ; 日本留學專門卒業女性團體」, 『동아일보』, 1934년 7월 13일 2면 11단; 「東遊會園遊會 十四日 清涼里서」, 『동아일보』, 1934년 10월 13일 2면 9단; 「東遊會秋期例會는 園遊會로[女性界消息]」, 『동아일보』, 1934년 10월 13일 6면 3단; 「東遊會例會」, 『동아일보』, 1934년 10월 27일 2면 7단; 「東遊會 夏期例會」,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4면 2단; 「東遊會秋季例會 望月寺에서」, 『동아일보』, 1935년 10월 26일 4면 2단; 「東遊會夏期例會 八日永導寺에서[女性界消息]」, 『동아일보』, 1936년 7월 8일 3면 1단 석간.

상을 강조하였는데,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온 남성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을 넓히고, 탈전통을 통해 신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높여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또한 1933년 5월 京城女子基督青年會 주최로 ‘우리생활에 재래식을 개량할 점, 외래식을 보충할 점’이라는 연제를 가지고 임효정 외 3인이 강연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조선 가정에서의 불편한 점을 서양식으로 보충하거나 재래식을 개량하여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가정 일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⁵¹⁾

1934년 12월 동유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제1회 女性時流痛論大會가 개최되었다. 제1회 여성시류통론대회는 12월 6일~15일까지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렸는데, 연사는 朴承浩, 宋衿璇, 金善, 黃信德, 李淑鐘, 劉英俊, 朴鳳愛 등 이었다.⁵²⁾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제1회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자⁵³⁾ 1935년 제2회 대회를 11월 22일~23일까지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는데,⁵⁴⁾ 임효정도 연사로 참여하였다.⁵⁵⁾ 이 여성시론대회의 성공을 통하여 임효정은 조선여

50) 「男性에 對한 宣戰布告, 各界 新舊女性의 氣焰」,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자 2면.

51) 「京城女子基督主催로 女性講演會 開催, 내 二十七일 밤 여덟 시 鍾路中央基督會館」, 『동아일보』, 1933년 5월 26일 2면9단 석간.(임효정 이외에 宋衿璇, 張貞心, 徐恩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52) 「東遊會主催 時流痛論大會, 十二月六日 밤 青年會館에서 本社學藝部後援」, 『동아일보』, 1934년 11월 30일 4면 5단; 「時流痛論大會 主催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동아일보』, 1934년 12월 2일 3면 5단; 「時流痛論大會: 主催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 『동아일보』, 1934년 12월 4일 4면 3단; 「時流痛論大會: 主催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 『동아일보』, 1934년 12월 5일 4면 7단; 「時流痛論大會: 主催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 『동아일보』, 1934년 12월 6일 4면 8단; 「今夜七時 青年會館으로 女性論客들의 獅子吼를 들으라! 東遊會主催와 本社學藝部 後援으로 기다리는 時流痛論大會」, 『동아일보』, 1934년 12월 7일 4면 1단; 「東遊會主催 時流痛論大會 ; 할수잇나소리를 마러라[上]」, 『동아일보』, 1934년 12월 12일 4면 2단 석간; 「東遊會主催 時流痛論大會 ; 할수잇나소리를 마러라[下] (宋衿璇)」, 『동아일보』, 1934년 12월 13일 4면 4단 석간; 「東遊會 主催 時流痛論大會(抄記) ; 女學生에게 忠告하노라[上](黃信德)」, 『동아일보』, 1934년 12월 14일 4면 2단 석간; 「東遊會 主催 時流痛論大會(抄記) ; 女學生에게 忠告하노라[下](黃信德)」, 『동아일보』, 1934년 12월 15일 4면 4단 석간.

53) 「大盛況 이룬 東遊會 主催 時流痛論大會[寫]」,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3면.

54) 「東遊會 主催의 第2回 女性時論大會 廿二日 밤 鍾路青年會館에서 本社學藝部 後援으로」, 『동아일보』, 1935년 11월 16일 4면 석간.

55) 「東遊會 主催의 第2回 女性時論大會 상황을 예기하는 二十二日 밤 演士의 略歷과 演題」, 『동아일보』, 1935년 11월 19일 4면; 「第二回女性時論大會 主催 東遊會」, 『동아일보』, 1935년 11월 21일 4면 석간; 「第二回女性時論大會 東遊會主催 東亞日報 學藝部後援」, 『동아일보』, 1935년 11월 22일 4면 석간; 「第二回 女性 時論大會」, 『동아일보』, 1935년 11월 23일

성이 가정에만 갇혀 지내던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라 근대적 신여성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가능성을 보였다.

1937년 12월 ‘조선부인의 생활개선’이라는 주제로 각계 역량 있는 조선부인 30여 명이 조선폰에서 半島新女性座談會를 개최하였는데, 임효정도 참여하였다.⁵⁶⁾ 그녀는 ‘여성단체와 집회소’라는 글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에 대한 전통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남녀평등과 남녀공동의 존립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에 대한 자유와 회합장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섰다.⁵⁷⁾ 또한 부업과 변소의 개량을 통하여 여성들이 가사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동유회는 설립 초기에는 일부 지식여성들만의 친목단체였지만, 두 번의 여성시류통론대회를 통해 임효정을 비롯한 동유회 회원들은 여성들 스스로 자립하려는 가능성을 보였다. 대회를 직접 접한 여성들에게는 구습의 울가미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고 남성과 평등한 인격체로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임효정은 동유회에서 개최하는 강연회, 좌담회, 음악회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 여성들이 평등권이 부여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임효정은 이 외에도 여자소비조합과 가정부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여자소비조합은 1930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 집안 경제 살림을 위해 중간상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부인여성들이 직접 취할 수 있도록 만든 여성단체이다. 창립 당시 임효정은 이사로 선임되었다.⁵⁹⁾ 가정부인협회는 경성에서 조직된 여성들의 친목단체로 중대한 사업은 없었으나, 매달 가정부인들이 모여 산놀이나 들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가정부인협회의 정확한 창립 시기는 알

4면 석간. (당시의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張文卿-婦人衛生과 男性, 朴奉愛-眞理란 무엇이나, 方淳政-朝鮮女性과 健康, 林孝貞-新女性도 舊女性, 朴順天-農村生活의 實情)

56) 『半島女性へ招請狀, けふ新人座談會, 本府學務局の招きに應じ, 『경성일보』, 1936년 12월 27일 2면 석간.

57) 『一人一言 - 女性團體와 集會所-林孝貞,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 3면 석간.

58) 『生活改善私案 - 부업과 변소 좀더 변소에 관심합시다 재래부업은 여성을 무시한 제도 - 임효정, 『동아일보』, 1938년 1월 13일 3면.

59) 『조선에도 창립된 女子消費組合, 『중외일보』, 1930년 3월 11일 3면 6단.

수 없으나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임효정은 보건부장과 운동부장을 지냈다.⁶⁰⁾ 그러나 이 단체들에서 임효정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다.

4. 1940년대 朝鮮臨戰報國團 幹部로서의 활동

1939년 임효정의 남편 崔容煥이 중국여행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⁶¹⁾ 그녀는 남편이 사망하자 고통 속에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재래의 미망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공부와 사업에 대한 열정을 새로 다지고 산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냈다고 한다.⁶²⁾ 또한 수양동우회 지도자인 안창호가 사망하였는데, 임효정은 안창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였다.⁶³⁾ 사랑하는 남편과 정신적 지주였던 안창호를 잃은 그녀는 사상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며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선진대’로 활동하게 되었다.

1) 戰爭時期 여성들의 역할 촉구

1937년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조선총독부는 지식계층의 여성이 일반대중에게 남자들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기독교는 일제와 대결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하여 한편으로는 일제와 타협할 만한 요소가 다분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인 지식인들이 여성명사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때문에 기독교계통의 신지식 여성들은 당시 일반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다.⁶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은 동유회를 비롯한 기독교계 관련 지도자들에게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도록 종용하였고, 마침내 과거

60) 『家庭婦人協會 新入員』,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8일 3면 8단. (가정부장 임성소, 교육부장 황신태, 서무부장 박영신, 고영순 등이 참여하였다.)

61) 『崔容煥氏 昨日別世』, 『동아일보』, 1939년 3월 5일 2면.

62) 東遊會長 林孝貞, 『戰時家庭 - 국민건강을 높일 가을, 일요일엔 산으로 가라 거기서 산의 장한 기개를 배우라』, 『매일신보』, 1941년 9월 14일 4면 중간.

63) 京鍾警高秘 제1070호, 『政治要視察人死亡ニ關スル件』(1938년 3월 12일), 경성동대문경찰서장.

64) 『친일여성들의 활동과 여자정신대』,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풀빛, 1992년. 289~309쪽.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던 여류인사들과 종교 및 종교단체 관련자들,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이때에 꽤히 승낙하였다고 한다.⁶⁵⁾

일제는 임효정과 여자기독교청년회 부총무 俞珏卿⁶⁶⁾을 주축으로 경성의 여성단체관계자 가운데 사회적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을 규합하여 ‘時局講演會’를 개최하였다.⁶⁷⁾ 임효정은 사회자로 개·폐회사에서 중일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시국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강연의 중요 요지를 관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 전 반도여성의 신념화를 이끌어 내자고 이야기 하였다.⁶⁸⁾ 또한 그녀는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이하여 유각경, 황신덕 등 여성 대표들과 함께 용산에 있는 육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상병들을 위문하기도 하였다.⁶⁹⁾

임효정은 1941년에 들어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 임효정은 皇道學會 발기인⁷⁰⁾과 國民總力朝鮮聯盟婦人部지도위원⁷¹⁾으로 활동하면서 ‘지금의 반도 가정부인을 우선 계몽하고, 훌륭한 황국신민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 이들을 그 계몽의 일선에 서게 하는 것이 지금의 지식여성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였다. 황도학회는 1940년 12월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표로 황도사상을 교육·선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발기인 대표는 이광수였다.⁷²⁾ 황도학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황도사상의 학습, 황도정신의 일반에 대한 보급, 신

65)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締現況報告通報』(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66) 芮知淑,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 서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년, 18쪽.

67)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締現況報告通報』(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민족정경 문화연구소, 『親日派 群像』 여강출판사, 1948년..

68)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締現況報告通報』(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당시 강연회의 연사로는 俞珏卿(시국과 여성의 각오) 朴奉愛(총후여성의 임무) 黃信德(가정경제의 報國) 張貞心(절약과 報國) 李淑鍾(비상시국에 처한 婦人報國) 등이 참여하였다.)

69) 『府內女性團體代表 白衣勇士를 慰問-昨日 陸軍病院으로』, 『매일신보』, 1938년 7월 8일 조간 3면 8단.

70) 『계몽의 일선에 몸을 일으켜 세우다 - 聯盟 婦人部の 林女史』, 『경성일보』, 1941년 8월 21일 3면 석간; 京鍾警高秘 제6367호, 『在京城女性團體 戰將兵 慰問에 관한 건』(1938년 7월 7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71)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직 및 역원 명부』, 1942년 6월.

72) 『松山世禎을 비롯한 國內의 各界人士』, 『매일신보』, 1940년 12월 25일자.

사참배의 실천과 장려 등 이었다. 1940년 12월 25일 부민관에서 황도학회 결성식이 있었으며, 이후 정기적 황도강습회, 부여신궁공사에 근로봉사대 파견⁷³⁾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10월 일본은 ‘신체제운동’을 전개하면서 大正翼贊會를 조직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을 여기에 편입시켰다. 이에 조선에서도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하고 ‘황국신민화’와 함께 전쟁동원을 위해 ‘高度國防國家體制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한 戰時期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였다.⁷⁴⁾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회 및 좌담회 개최, 국체소화운동, 국민저축장려를 위한 강연회 등을 통해 일제의 전시체제에 적극 협력하였다.⁷⁵⁾ 임효정은 여기에서 부인부 지도위원으로 강연회와 좌담회에 참여 하였다. 또한 1941년에는 3차례에 걸쳐서 ‘외출복과 품위’, ‘생활의 안정과 저축’, ‘여성고 등산’ 등의 주제로 조선어로 라디오 연설을 하여 대중을 선동하였다.⁷⁶⁾

임효정은 朝鮮臨戰報國團 역원으로도 참여하였다. 조선임진보국단은 1941년 9월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임진대책협력회와 흥아보국단을 통합하여 결성한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로, 조선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전국의 유력자들을 발기인으로 참여시켰다. 1941년 10월 5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결단식이 거행되었고, 활동 목표로 국민생활쇄신 운동, 국체의 소화·저축의 장려·물자의 공출운동, 근로보국 도장의 설치, 계도장(禊道場)의 설치, 지도자 단기 이동 강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애국운동 등을 세웠다.⁷⁷⁾

73) 박수현, 이용창, 허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제의 친일과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8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년.

74)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년. pp. 123~177; 「조선국민조직신체제요강」, 「국민총력조선연맹규약」, 『국민총력』 제2권 11호, 국민총력조선연맹, 1940년 11월. 7~17쪽.

7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II-3』, 2009년. 723~741쪽.

76) 「라디오」, 『경성일보』, 1941년 4월 21일 4면 조간; 「라디오」, 『경성일보』, 1941년 6월 21일 8면 조간; 「라디오」, 『경성일보』, 1941년 6월 24일 6면 조간.

77) 조선임진보국단, 『朝鮮臨戰報國團概要』, 1941년; 「京高秘 제2569호의 6 朝鮮臨戰報國團의

1941년 10월 초 경성부 내 유력자 70여 명이 ‘꼬마’ 채권을 가지고 가두에 나와 팔아 ‘국채소화운동’을 전개했고, 11월에는 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는 강연대회를 개최하였다.⁷⁸⁾

임효정은 1941년 10월 4일 조선포털에서 열린 매일신보사 주최 <中堅婦人 懇談會>를 통해 전쟁에 임하여 생활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후부인들의 궤기를 주창하는데 참여하였다. 이러한 임효정의 활동은 10월 15일까지 매일신보에 게재된 시국중견부인간담회의 기사들을 통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⁹⁾ 특히 8일의 기사에서는 애국반에서 자주 회합하여 일반지식과 단체생활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⁸⁰⁾ 9일의 간담회에서는 애국반 구장이나 반장들에 대해 강습회 같은 것을 열어 애국반에 전달하려는 것을 미리 준비하여 애국반을 좀 더 활기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⁸¹⁾

1941년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계기로 12월 19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임전보국단에 婦人部를 새로이 설치하고 新役員을 선임하였는데, 이때 임효정은 부인부 전시생활부원으로 선정되었다.⁸²⁾ 그녀는 전시생활부원으로 1941년 12월 27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決戰婦人大會에 참석하였다. 이날은 우선 ‘戰時下 生活維新運動’과 ‘軍需資材 獻納運動協力’의 2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決戰婦人大演說會가 진행되었는데 임효정은 盧天命, 毛允淑, 車士百, 高鳳京 등과 함께 연사로 참여하여 <迷夢에서 깨자>란 주제로 연설하였다.⁸³⁾ 임효정은 이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 직면하여 조선인들에게 아들들을 지원병으로 보낼 것, 저축과 채권을 통해 전쟁 예산

動靜에 관한 件.(1941년 10월 8일), 『思想에 관한 情報』 14, 1941년, 군사편찬위원회 소장.
 78) 『志願兵普及의 熱辯』, 『매일신보』, 1941년 11월 8일자 2면.
 79) 「임전생활체제 확립 위해 충후부인들의 궤기, 작일 본사 주최로 중견부인간담회」, 『매일신보』, 1941년 10월 5일 2면 조간; 「時局中堅婦人懇談會 指導婦人層蹶起의秋」, 『매일신보』, 1941년 10월 6일; 7일 4면, 8일 4면, 9일 4면, 10일 4면, 11일 4면, 14일 4면.
 80) 「時局中堅婦人懇談會 전기생활의재수습 ②향락과사치의뿌리를베자」, 『매일신보』, 1941년 10월 8일 4면.
 81) 「時局中堅婦人懇談會 애국반을단위삼아 ③내선가정이한가족이되자」, 『매일신보』, 1941년 10월 9일 4면.
 82) 「陣容一新의臨報團 役員は全面的に改選 新設婦人部も街頭へ」, 『경성일보』, 1941년 12월 21일 3면 조간.
 83) 「일어서라! 婦人들! 家庭도 戰時動員이다 十七日, 臨戰報國團婦人大會」, 『매일신보』, 1941년 12월 24일 2면 3단; 「臨戰報國團が 否認向き講演 二十七日府民官」, 『경성일보』, 1941년 12월 25일 3면 석간; 「紅唇に送る熱血, 臨戰報國婦人大演說會」, 『경성일보』, 1941년 12월 26일 3면 조간; 김학민. 장운현 공편 편, 『親日派 罪狀記』, 『한국사연구회보』 제85호, 學民社, 1993년.

을 비축할 것, 일왕의 赤子로서 자식들을 위해 여성들도 전쟁에 나설 각오를 가지라고 촉구하였다. 이것은 임효정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⁸⁴⁾

2) 朝鮮臨戰報國團 婦人隊 활동

1942년 1월 4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구약결전부인대회’에서 조선임전보국단 산하 婦人隊가 발족했다.⁸⁵⁾ 부인대의 지도위원은 고헌경, 김선, 김활란, 박마리아, 박순천, 박승호, 박은혜, 박인덕, 배상명, 서은숙, 송금선, 손정규, 유각경, 이숙종, 임숙재, 임영신, 차사백, 최이권, 황신덕, 홍승원 등 이었다. 여기에서 임효정은 간사장에 선임되어,⁸⁶⁾ 1942년 1월 4일~10일까지 부인좌담회에 참여하였다. 좌담회에서는 새 시대에 필요한 도덕에 대해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해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중의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개인주의를 버린 새로운 도덕의 실행은 전체주의로의 이행이 총후국민의 의무라고 하였다. 또한 새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혼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혼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⁸⁷⁾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에서는 전부원이 실천하는 근로보국운동의 일환으로 보국단사무소에 집합하여 1942년 2월 3일~17일까지 매일 2시간씩 2회에 걸쳐 軍服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임효정도 2월 9일 오전에 2시간동안 참여 하였다.⁸⁸⁾ 또한 부인대 간사장으로 同團 상무이사 李晟煥씨와 함께 2월 23일 山本(야마모토)연합부대사령장관과 山下(야마시타) マレー(말레이시아)방면 최고지휘관에 대한 감사의 진심을 담은 한 폭씩의 軸子를 보내 진승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⁸⁹⁾

1942년 5월 25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軍國의 어머니 座談會>⁹⁰⁾가 시작되었다. 이 좌담회는 임효정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의제는

84) 『半島指導層婦人の決戰報國の大獅子吼!!』, 『대동아』 제14권 제3호, 1942년 3월 1일. 94~101쪽.

85) 『臨戰報國團 婦人隊陣容』, 『매일신보』, 1942년 1월 5일자 2면.

86) 『戰時生活部に婦人隊-臨戰報國團で新設』, 『경성일보』, 1942년 1월 4일 3면 조간.

87) 『戰時生活과 婦人道德 座談會 새시대의 새도덕 개인에서 공중도덕으로』, 『매일신보』, 1942년 1월 3일 5면; 1월 6일 4면; 9일 4면; 10일 4면.

88) 『軍服修理に臨戰報國團婦人隊出勤』, 『경성일보』, 1942년 2월 3일 2면 석간.

89) 『山本 山下 兩將軍へ感謝の軸子 臨戰報國團から贈呈』, 『경성일보』, 1942년 2월 23일 3면 조간.

90) 『軍國의 어머니 指標 徵兵制에 對한 準備를 말한 婦人座談會』, 『매일신보』, 1942년 5월 26일 3면 조간.

(1)징병제 실시와 동시에 부인의 입장에서 금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2)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한 일을 고쳐야 할 것인가 (3)또는 금후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가 (4)부인의 교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5)부인계통 운동을 광범위로 전개할 방법은 어떠한가 등 이었다. 이날 좌담회는 “징병제를 맞는 준비로서 국어(일본어)의 이해와 일본적 정신의 파악, 부인들의 武勇상 정신의 부활, 아들을 후계자가 아니라 국가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軍人の 어머니」된 영예를 자랑하는 의지로서 나아가야 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동년 5월 25일에도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출석자는 사회자인 임효정 외 14인⁹¹⁾이었다. 이때의 좌담회는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면서, 징병제 실시 후에 가정교육에 힘쓰자는 골자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본신민으로써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강습회를 학교에 의탁하고, 일본식으로 읽는 법도 가정에서 교육하고, 조선부인들이 징병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직접 교육하여 징병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교육할 것 등이 중요 내용이었다.⁹²⁾

임효정은 잡지 『대동아』에 「大戦과 女性の 길」이란 제목의 논설문을 기고하였는데,⁹³⁾ 그 내용은,

“(전략)

그러므로 우리의 급선무는 日本의 혼을 갖는 日本人이 되는 그것입니다. 천황폐하의 적자란 자각과 실천이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중략)

우리는 단연히 日本의 혼을 가진 日本人이 됩시다. 日本정신을 가진 日本人이 됩시다.

천황폐하를 우리의 임금님으로 피시고 日本帝國을 우리의 조국으로 알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받칩시다. 황공한 말씀이나 우

91) 『매일신보』, 위와 같은 자료. (이 좌담회에서는 金允禎, 洪承嫻, 林孝貞, 徐恩淑, 崔熙卿, 盧天命, 朴仁德, 朴瑪利亞, 車士白, 高鳳京, 金善, 任淑宰, 崔貞熙, 毛允淑, 許河伯 등이 참여하였다.) 『臨戰報國團婦人隊主催座談會 軍국의 어머니 指標』, 『매일신보』, 1942년 5월 26일 3면; 『臨戰報國團婦人隊主催座談會 軍국의 새어머니 될 우리의 감격과 포부』, 『매일신보』, 1942년 5월 31일 2면; 『臨戰報國團婦人隊主催座談會 자장가 들릴 때에도 충군애국의 뜻 담어』, 『매일신보』, 1942년 6월 1일 2면.

92) 『매일신보』, 위와 같은 자료.

93) 「大戦과 女性の 길」, 『대동아』 제14권 제5호, 1942년 7월 1일.

리들이 천황폐하가 우리 임금님이란 생각이 철저하게 되면 日本의 흥망이 달너있는 이 大東亞戰에 단연히 결사전사로 나설 각오와 결의가 생길 것입니다.(중략)

朝鮮사람도 이 大東亞戰에 붉은 피를 앓김없이 제물노 받으면 朝鮮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오, 만일 이 大東亞戰에 조국의 영양을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朝鮮民族은 大東亞共榮圈 내에 들어가 우리 日本으로 더부러 무궁한 복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후략)”

임효정은 이 논설문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전쟁에 전 반도국민이 일본 황국신민으로서 적극 후원하고 조력하여 승리를 이끌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임효정은 김활란, 고헌경, 박인덕, 손정규, 송금선, 유각경 등의 여류인사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기독교계통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있어서도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로, 초기에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받게 하여 인간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몽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여성교육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교육을 식민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조하게 되었다.⁹⁴⁾ 이들은 일제 말기 애국금차회, 조선임전보국단, 국민총력조선연맹, 임전대책협회, 채권가두판매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순회강연, 연설, 담호, 좌담, 방송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전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를 미화하여 창씨개명, 학도병 권유, 근로대, 정신대로 나아갈 것 등을 설득하였다.⁹⁵⁾ 임효정은 이들보다 사회적 활동에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였으나, 동시기에 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역행할 수 없었다. 계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등 그녀가 일제에 협력한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94)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1992년, 풀빛. 285~295쪽.

9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I』, 2009년. 143~149쪽

맺음말

임효정은 경기도 용인출신으로 삼일여학교와 이화학교에서 새로운 선진교육과 평등사상, 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교육은 그녀를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계몽운동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임효정은 수원구국민단에 가입하여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곧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에도 임효정은 일본 관사에게 조선의 독립을 아직도 희망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은 강한 의지의 여성이었다.

구국민단의 해체로 국내 독립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임효정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녀의 독립운동에 대한 투지는 멈추지 않았으며, 1924년에는 홍사단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홍사단에서 뚜렷한 활동은 하지 못한 채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 여자英學塾에 다니던 그녀는 (수양)동우회와 근우회에도 참여하여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1920년 일본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여권신장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일본은 이미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교육환경 또한 조선보다 자유로웠다. 임효정의 일본유학은 제한된 국내 독립활동의 해외로의 연장선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조선여성들을 신여성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 계몽운동가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임효정은 결혼 후 경성여자상업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활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이미 경성에서는 여류인사로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임효정을 사회 전면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동유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교육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여권신장에도 주력하게 하였다.

일제과시즘체제가 극에 달하던 시기 일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선여성단체와 여성인사들을 규합하여 시국강연회를 통한 내선일체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미 신여성으로서 다양한 사

회 활동을 펼치고 있던 임효정은 제국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임전보국단과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⁹⁶⁾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동하고 찬양하는 등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식민지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신여성 임효정은 시대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가 일본제국주와 타협한 것은 명백한 친일행위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체상에서 친일행위만 부각시켜 비난할 할 것이 아니라, 조선여성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을 통해 신여성으로 성장하는데 선각적 역할을 한 계몽운동가로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96)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 1942년 11~12월호.

[참고문헌]

1. 자료

- 『기려수필』, 1920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제5, 1975년.
- 국가보훈처, 『韓國獨立運動史料(중국편)』, 1993년.
- 興土團, 「入團履歷書」,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 興土團遠東臨時委員部, 「興土團第十回遠東大會經過現況」,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 團友 鮮于熾, 「保證書」, 건국기원 4257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 興土團遠東臨時委員部, 「(遠委發第59號)新入團員入團에 관한 報告의件」, 기원 4257년 4월 20일.
- <車利錫이 洪焉·韓承坤에게 보낸 서신>, 1924년 4월 22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 <임효정이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 1949년, 독립기념관소장 멀티미디어자료.
- 京鍾警高秘 제1070호, 「政治要視察人死亡ニ關スル件」(1938년 3월 12일), 경성동대문경찰서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締現況報告通報」(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 36年史』 제5, 문교부, 1970년.
-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 36年史』 제6, 문교부, 1971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 웅진출판사, 1997년.
- 金允經,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1926년 5월 30일~1928년 2월 4일), 독립기념관소장.
-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국민총력』, 1942년 11~12월호.
-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조선국민조직신체제요강」, 「국민총력조선연맹규약」, 『국민총력』 제2권 11호, 1940년 11월.
- 「京高秘 제2569호의 6 朝鮮臨戰報國團의 動靜에 관한 件」(1941년 10월 8일), 『思想에 관한 情報』 14, 1941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직 및 역원 명부』, 1942년 6월.
『京高秘 제2594호의 1 權友會創立에 관한 件』(1927년 6월 3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론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년.

2. 연구서

홍석창, 『수원지방의 삼일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년.
김세환편저, 『매항팔십년사』, 맹향여자중학교, 상업고등학교, 수원, 천풍인쇄주식회사, 1982년.
김세환, 『심알학원육십오년사』, 수원, 동중상업고등학교, 1968년.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수원문화원, 2003년.
박수현, 이용창, 허종,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제의 친일과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8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년.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년.
『수여지水餘志(용인읍지)』,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9년.
『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용인문화원, 1995년.
김승태,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년.
김학민 장운현 공편 편, 『親日派 罪狀記』, 『한국사연구회보』 제85호, 學民 社, 1993년.
민족정경 문화연구소, 『親日派 群像』, 여강문화사, 1948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Ⅱ』, 2009년.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년.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친일여성들의 활동과 여자정신대』,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년.
곽안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년.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향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년.

3. 연구논문

- 박 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3·1운동사』, 선인출판사, 2007년.
-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월』 제26권 제3호(가을호), 2003년.
- 芮知淑,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 서울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년.
-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 박철하, 「같은길, 다른 선택」,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韓國史論』 1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3년.
- 沈沃暎, 「192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고찰-기독교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년.
- 金泰元, 「1920年代 水原地方의 民族運動 研究 - 青年·農民運動과 카프運動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 박용옥, 「1920년대 新女性 研究 - 『新女子』와 『新女性』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5년.
- 노영택, 「日帝下 農村女性啓蒙運動의 一研究」, 『여성문제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년.
- 菅原百合, 「1920년대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쪽.
- 우정미,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 , 「한일 신여성의 가정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 , 「한일 신여성의 연애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6년
- , 「한일 신여성의 직업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년
- , 「한일 신여성의 교육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광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년.

4. 신문·잡지

『女性』, 『朝鮮』, 『三千里』, 『별건곤』, 『大東亞』, 『思想彙報』
『獨立新聞』, 『新韓民報』, 『中外日報』, 『每日新報』, 『京城日報』, 『東亞日報』
『畿湖興學會月報』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임효정의 삶을 통하여 전통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신여성으로 성장과정을 밝히고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효정은 수원 삼일여학교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근대적 교육을 습득한 신여성으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조선의 독립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구국민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선행 작업으로 대중의 의식을 일깨워 계몽시켜야 함을 깨달았다. 구국민단에서의 독립활동이 실패로 끝나자 국내독립운동에 한계를 느낀 임효정은 해외유학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속하려 하였다.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유학생회 중에도 홍사단, 수양동우회, 근우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일본 유학생회 중 경험한 일본의 신여성운동은 그녀가 고국에 돌아와 계몽운동가로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임효정은 계몽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그 대상을 인습에 갇힌 여성들로 정하였다. 그녀는 여성들 스스로가 내적으로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각하고 외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지위를 향상시켜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임효정은 여성단체인 동유회를 매개로 강연회와 좌담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였다.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우고 교육기회를 확충하여 이론적으로 무장시킨 그녀의 노력은 여성들에게 신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일제과시즘 막바지에 조선 민중에게 거부감 없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자 했던 일제는 임효정을 신여성의 표본으로 포장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선동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1940년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선전대로 활동하였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신여성 임효정은 시대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가 일본제국주와 타협한 것은 명백한 친일행위이다. 임효정을 평가함에 있어 그녀의 친일행위만 부각시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선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여권신장에 선

구적 역할을 한 계몽운동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 구국민단(救國民團),
동유회(東遊會),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Abstract]

Life and Activities of Lim, Hyo-jeong, a Modern Girl

Jung, Myung-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change in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girls and growth process into modern girls through the life of Lim, Hyo-jeong and study the roles of girl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Lim, Hyo-jeong is a modern girl who acquired modern education at Suwon Samil Girls' school and Ehwa Women's High School and was faithful to tasks of the era that she face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when the independence of Joseon became the top priority, she joined in Gugunmindan and develo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she realized that public awareness should be awakened and enlightened as prior work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the independence activities of Gugunmindan ended in failure, Lim, Hyo-jeong who felt the limitation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tried to continue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studying abroad. She who left to study in China and Japan worked on in Young Korean Academy, Suyangdongwuhoe, Geunwoohoe etc. while studying aboard.

In particular, the modern girl movement of Japan, which she experienced while studying in Japan, became the basis when she worked on as an enlightenment activist.

When promoting the enlightenment movement, Lim, Hyo-jeong determined the target as women trapped in old customs. She worked hard to make women awaken themselves as independent beings internally and to be recognized as equal being with men by

improving the status in home and society externally. Lim, Hyo-jeong held the lectures and talks, workshops etc. through the medium of Dongyuhoe, women's Organizations. Her efforts that armed in theory by awakening awareness as independent girls and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gave girls the opportunities to grow as modern girls. However, the Japanese Empire which wanted to promote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to Joseon people without repulsion in the last stage of Japanese fascism packed Lim, Hyo-jeong as the sample of a modern girl and used her to beautify and instigate the aggressive war of Japanese imperialism. Working as an executive in National Total strength Joseon Federation and Joseon Patriotic Organization in Preparation for War after 1940, she worked as the propaganda of the aggressive war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colonial situation, a modern girl, Lim, Hyo-jeong went forward not going against the trend. In this process, her compromising with Japan's imperialism is clear pro-Japanese activities. When evaluating Lim, Hyo-jeong, she should be evaluated as an enlightenment activist who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extension of women's rights by educating Joseon women, rather than blaming by only highlighting her pro-Japanese acts.

Keywords: Samil Girl's school(三一女學校),
Gugunmindan(救國民團), Dongyuhoe(東遊會)
National Total strength Joseon Federation(國民總力朝鮮聯盟)
Joseon Patriotic Organization in Preparation for War
(朝鮮臨戰報國團)

일반 논문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동근

머리말

1.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경향과 항일독립운동
2. 식민지 '수원(水原)'의 자화상, 주목할 만한 기사들
맺음말

머리말

일제강점기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것이 신문기사이다.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문자료로서는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중심을 이룬다. 그간 『동아일보』의 경우는 DB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매일신보』와 『조선일보』는 자료의 이용이 쉽지 않아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매일신보』의 DB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기사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도 자사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유료서비스화하고 있어 다소 이용이 편해지고 있다.

이들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운영주체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선입견과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그간 연구자들에게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조선일보』에서 '수원(水原)'과 관련된 기사들만을 목록화하여 기사들의 내용과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들, 사회운동(청년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의 모습들, 지역 유지

들의 동향 등과 각종 사건·사고 등의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난 100년전 수원지역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습들도 보이겠지만, 새로운 문물을 접해가며 변화해가는 수원지역의 새로운 모습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일제의 언론정책과 『조선일보』의 운영과 발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병합한 뒤 언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1910년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언론의 존재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 사이토(齋藤實) 총독은 취임하자마자 조선인의 언론사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 결과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이 창간되었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는 통상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대정친목회와 송병준이 경영하던 창간 때부터 1924년 9월까지이며, 제2기는 이상재·신석우·안재홍 등이 조선일보를 혁신하여 한때 신간회의 기관지로 이름을 날리던 시기이고, 제3기는 1933년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 1940년 폐간될 때까지다.¹⁾

『조선일보』의 창간주체는 대정친목회로 3·1운동 이후 저조해진 단체의 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신문발간에 뛰어들었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으로 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한 뒤 신문을 통해 민심의 척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단 세 신문만의 발간을 허용하면서도 발행 주체를 다변화하였다.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에 의해 창간되어 ‘당대 최대의 친일단체’가 발행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초반의 신문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를 모방함으로써 신문 판매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조선일보』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채 걸리지 않은 ‘격한’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의 1920년대 초반에 항일독립운동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유이다. 때문에 『조선일보』는 창간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아일보』보다 더 많은 기사를 압수 당했다.²⁾

1) 장신,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 『역사비평』, 2010, 291쪽

『조선일보』는 1924년 9월에 혁신된 이후 3년 가량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1927년 초에 가서야 비로소 민족주의 좌파 세력을 결집하는 공간이 됐다.³⁾ 혁신 이후 『조선일보』에는 다수의 사회주의 성향의 언론인들이 입사해 활동했다. 1925년 5월 이전에 홍덕유, 이석, 김재봉, 김단야, 홍남표, 서범석, 손영극, 신일용, 김준연 등이 근무했고, 1925년 5월에는 동아일보를 퇴사한 박헌영과 임권근도 입사했다. 특히 화요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은 화요회의 주요인물이었던 홍증식이 영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1927년 1월에는 한기악과 홍성희가 먼저 입사하여, 한기악은 편집국장, 홍성희는 판매부장을 맡았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승복과 한기악도 1927년 초에 신간회 결성 과정에서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이승복은 신간회 창립 후에 입사해 영업국장을 맡았고, 안석주는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관용은 1928년 2월에 가서야 편집고문으로 조선일보에 관계했다. 이미 1926년 9월부터 김동성 대신 안재홍이 발행인을 맡았고, 12월부터는 민태원 대신 백관수가 편집인을 맡아서 민족주의 좌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시대일보 출신의 민족주의 좌파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조선일보는 명실상부하게 민족주의 좌파의 집결지가 됐고, 신간회의 기관지 역할도 하게 됐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신간회의 현실이나 전망을 자주 다루었고, ‘신간회 소식’이라는 난을 두어 신간회 활동에 관해 자세히 보도했다.⁵⁾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더욱 강화되고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次郎)는 조선 지배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웠다. 이것은 일체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리고 조선 전체를 ‘대륙전쟁병참기지’로 만드는데 있어 조선 내부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저항을 뿌리 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제의 정책은 이와 같은 ‘내선일체’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의 전개로

2) 장신, 앞 논문, 2010, 317~318쪽

3) 박용규,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 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4호, 2009, 279쪽

4) 박용규, 앞 논문, 2009, 297쪽

5) 박용규, 앞 논문, 2009, 302~303쪽

나타났다.⁶⁾

때문에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한국어로 발행되던 신문들의 논조는 변화했다. 신문에 있어서도 상업화가 진행되고 점차 대기업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염려하여 많은 신문들의 총독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감소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제의 시책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일부 신문들에 적극적 협력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사의 논조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민족의식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제는 한국어 신문이 지니는 자체를 ‘민족지’로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⁷⁾

그래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통제체제도 더욱 체계화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제는 일부 신문에 대한 개편 작업과 함께 총독부 기관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실시했다. 당시 신문들이 겪던 용지부족과 경영난은 일제의 이런 언론통제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빌미가 되었다. 일제는 1939년 말부터 신문사 통폐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신문의 경우 한국인 발행 신문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통합시켜 총독부 기관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온갖 압력을 행사했으며, 신문 경영자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결국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폐간되었으며, 총독부는 두 신문의 영업권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⁸⁾

1.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경향과 항일독립운동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에서 확인되는 수원 관련 기사는 1156건이다.⁹⁾ 이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확인 가능한 기사는 1113건 정도로 파악된다. 확인된

6) 崔由利, 「日帝 末期 言論政策의 性格 - 東亞朝鮮日報의 廢刊을 中心으로 -」
『梨花史學研究』第20·21合輯, 1993, 189쪽

7) 崔由利, 앞 논문, 1993, 194쪽

8) 朴용규,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제46-1호, 2001, 194쪽

9) ‘조선일보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목록을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1113건을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로 분류해 보았다.¹⁰⁾

정치 부분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들, 일반 행정분야, 군사와 방위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했다. 사회부분은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 신간회 운동, 형평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등을 포괄하고 각종 사건사고 기사와 교통과 관련된 기사들을 포함하였다. 경제부분은 각종 경제생활과 관련된 기사들과 산업, 상업활동 등의 기사를 포괄했다. 그리고 문화부분은 공연과 예술분야, 역사유적 및 문화재 관련 기사, 종교관련 기사, 운동회와 각종 대회 등의 체육활동 등을 포괄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조선일보』 (1920년~1940년) '수원' 관련 기사 항목별 분류

전체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	
		건	%	건	%	건	%	건	%	건	%
		행정, 독립운동, 군사, 방위 등	사건, 사고, 교통, 의료 등		학교, 교육일반		경제, 산업 일반		공연, 예술, 유적, 문화재, 종교, 체육, 각종 대회, 운동회 등		
1113	100	154	13.8	559	50.2	115	10.4	117	10.5	168	15.1

항목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기사는 전체 1113건 기준으로 559건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분야로 50.2%이고, 다음으로 문화분야가 168건으로 15.1%이다. 그리고 정치, 교육, 경제분야가 모두 10%를 조금씩 넘고 있다. 이는 내용분류상 정확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형식상 분류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기사들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기사들 중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정치분야와 사회분야로 분류한 항일독립운동 기사와 청년운동 및 신간회 등의 사회운동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10) 분류기준은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하여 정확한 분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한다.

1) 3·1운동

수원지역의 3·1운동은¹¹⁾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와 종교조직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 수원면의 운동은 주로 교사와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철시투쟁, 노동자와 기생들의 만세 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우정·장안면과 송산면의 3·1운동은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주구 순사들을 처단한 강력한 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일보』에는 수원지역의 3·1운동을 ‘수원사건’으로 보도하며 흥면 등의 송산면 만세운동의 판결 과정¹²⁾과 김현묵 등의 우정·장안면 만세운동¹³⁾ 내용 등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사는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을 주도했던 차희식 등의 판결 보도내용이다. 이 기사에서는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을 주도한 행동대였던 차희식과 이영쇠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언도받았음을 보도하고 있다.¹⁴⁾ 또한 우정·장안면 3·1운동에 가담한 이봉구의 공판을 소개하면서 가와바다(川端豊太郎) 순사의 처단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기도 하였다.¹⁵⁾

일제는 수원지역의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그것을 진압하고자 수원수비대를 두었는데, 수원수비대는 수원의 부호 양성관의 사택을 사용하다가 1923년 3월말 해산하였다. 이때 수원극장에서 송별연까지 벌인다고하여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보도도 나왔다.¹⁶⁾

1924년 7월 20일자 기사에는 성호면 오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진홍이 6년간의 피신 생활 끝에 붙잡혀 궤석 판결대로 징역 6개월에

11)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정신문화연구』 89호, 2002 ; 李東根, 「水原지역 3·1운동에서 天道敎의 역할 - 雨汀·長安面을 중심으로」 『京畿史學』 7, 경기사학회, 2003 ;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94호, 2004

12) 『朝鮮日報』 1920년 6월 30일 석간 3면, 1920년 7월 2일 석간 3면, 1920년 7월 6일 석간 3면

13) 『朝鮮日報』 1920년 12월 2일 석간 3면, 1920년 12월 9일 석간 3면

14) 『朝鮮日報』 1920년 12월 10일 석간 3면

15) 『朝鮮日報』 1921년 3월 10일 석간 3면

16) 『朝鮮日報』 1923년 3월 24일 석간 3면

처해졌는데 불복하고 공소하겠다는 의지의 기사도 실려 있다.¹⁷⁾ 이렇듯 『조선일보』는 1920년대 초반에는 수원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2) 구국민단

3·1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수원지역에서는 혈복단(血復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서울에서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비밀결사로 활동하였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득수를 중심으로 박선태 등이 1919년 말 수원의 혈복단을 조직하였다. 이후 박선태와 이득수는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등을 만나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개칭하였다.¹⁸⁾

수원지역의 젊은 청년들 중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등은 3·1운동에도 직접 참여하거나 운동을 지켜보며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위하여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박선태는 회장, 이득수는 부회장이 되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김석호, 김노적, 윤귀섭, 김병갑, 이희경, 신용준 등이 동지가 되었다. 이들은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¹⁹⁾ 또한 여자 동지였던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은 상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밀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 끝에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²⁰⁾

구국민단 사건의 기사에서는 이득수와 이선경이 재감 중 병고를 얻어 공판이 연기되고 권석 재판이 진행된다는 기사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²¹⁾ 이는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된 뒤 고문 등에 의한 젊은 항일

17) 『朝鮮日報』 1924년 7월 20일 석간 3면

18)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 血復團과 救國民團을 중심으로 -」 『京畿史學』 제2호, 경기사학회, 1998 참조

19) 「判決文」, 1920년 刑公 第1429號, 京城地方法院, 1921년 4월 12일

20) 『朝鮮日報』 1920년 8월 20일 석간 3면

운동가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수원고농사건(1920년대, 30년대)

1927년 6월 김찬도 등을 중심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는 ‘건아단(健兒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건아단은 ‘농민대중을 개발시켜 신조선을 건설하자’는 강령을 내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1928년 6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던 조선농우연맹(朝鮮農友聯盟)의 목표가 건아단과 일치한다고 하여 조선농우동맹지부로 가입하였다. 이후 계림농흥사가 조직되어 농민의 자각과 단결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건아단 출신 김성원 등은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김성원과 우중휘 사이의 서신이 발단이 되어 김성원이 체포되었고, 계림농흥사는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로 재조직되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농민야학운동 등을 벌어나갔다.

『조선일보』는 1928년 9월 23일자에 조선개척사 사건을 수원경찰서의 대활동으로 학생 11명이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고 보도했다.²²⁾

조선개척사 사건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가 학생들을 줄줄이 퇴학 처분을 내리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²³⁾ 비밀결사 사건 이후 많은 학생들이 연루되어 희생을 강요당했다.

조선개척사 사건은 한때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학우회인지, 적색 비밀결사인지가 세간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판사와 검사 등이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직접 출장하여 많은 학생들을 심문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²⁴⁾

1930년대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졸업생 김종수를 중심으로 수원지역에서 상록수 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며, 전국 각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들과 연계하여

21) 『朝鮮日報』 1921년 3월 12일 석간 3면

22) 『朝鮮日報』 1928년 9월 23일 석간 2면

23) 『朝鮮日報』 1928년 10월 4일 석간 5면

24) 『朝鮮日報』 1930년 2월 18일 석간 2면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7월 졸업생 이용필이 김천고보맹휴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뒤 비밀결사가 탄로나 김종수, 이용필, 최흥기, 김광태, 김준강, 김재곤, 유재환 등 7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1939년 다시 졸업생 김중면이 함남 갑산농학교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임봉호, 박도병 등과 체포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우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봉기를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²⁵⁾

1930년대 중후반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항일운동은 확정적으로 적색사건으로 보도되었다. ‘수원고농사건’ 또는 ‘수원고농적색사건’으로 불리며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자동맹사건(共産主義者同盟事件)으로까지 보도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강경 탄압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은 재판정의 심문 과정 중에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필요성을 당당히 진술하며 의지를 불태웠다.²⁷⁾

4) 청년운동, 사회주의 운동

『조선일보』에서 1920년대 수원과 관련된 가장 많은 기사는 청년운동과 사회운동 기사이다.²⁸⁾ 1920년대 초부터 수원지역에서는 실력양성을 목표로 한 계몽적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²⁹⁾ 이들 청년단체들은 주로 지역유지들에 의해 유지되었다.³⁰⁾ 그러나 이들 계몽적 성격의

25) 수원고농의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 조성운, 「日帝下 水原高農의 學生運動과 常綠樹運動」 『慶州史學』 14, 1995 ; 박환,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 - 건아단과 조선계척사를 중심으로」 『길현익교수 정년기념논총』 1996

26) 『朝鮮日報』 1936년 11월 14일 조간 2면

27) 『朝鮮日報』 1937년 3월 24일 석간2 2면

28) 수원지역 청년운동·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 조성운, 「1920년대 水原地域의 青年運動과 水原青年同盟」,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 최홍규,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京畿史學』 6호, 경기사학회, 2002 ;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29) 『朝鮮日報』 1920년 7월 8일 석간 2면

청년단체들은 식민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점점 미약해져 갔다. 이 단체들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사회적 기득권층으로 성장하여 식민지배구조의 상층구조에 편입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더욱더 고착화시키며 사회경제적 활동과 교육사업에 치중하였다.

이 무렵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젊은 지식 청년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1927년 후반부터 성호면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벌였다. 성호면에서는 공석정이 오산청년동맹을 이끌면서 청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수원지역의 사회주의 청년지식인들은 산발적이던 청년운동을 단일동맹 체제로 재편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오산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공석정과 양감면에서 반도청년회를 이끌며 활동하던 박승극이 연합하여 1929년 6월 9일 수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³¹⁾ 이때부터 수원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은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게 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은 오산청년동맹이 전화한 성호지부를 비롯하여 반도청년회가 모태인 양감지부, 그리고 수원지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청년동맹은 성호지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성호지부는 오산노동학원을 운영하며 무산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자제들을 사회주의 혁명투사로 양성하고자 했다. 당시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는 다른 활동보다도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벌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무산계급들에 대한 사상교육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실천이기도 했다.

수원청년동맹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하면서 1934년 해산되기까지 성호지부, 수원지부, 양감지부를 운영했다. 1934년의 해산은 그간 수원청년동맹을 이끌었던 박승극의 단독 행동으로 결정되었다.³²⁾

5)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 운동 단체로 창립되었다. 신간회 수원지회도

30) 『朝鮮日報』 1925년 7월 6일 조간 4면

31) 『朝鮮日報』 1929년 6월 12일 석간 4면

32) 『朝鮮日報』 1934년 9월 10일 석간 2 4면

수원지역의 유지층과 종교계 인사들, 사회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0월 17일 조직되었다.³³⁾

신간회 수원지회는 대중운동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현안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 1931년 산간회 해소안이 가결되면서 해체되었다. 『조선일보』는 1926년 9월부터 안재홍이 발행인을 맡고, 12월부터는 백관수가 편집인을 맡아서 민족주의 좌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신간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사실로 신간회의 현실이나 전망 등을 보도했고, '신간회 소식'란을 별도로 두어 신간회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다. 따라서 신간회 수원지회와 관련하여서도 1927년 10월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인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신간회 수원지회는 각 구역을 나누어 양감반, 오산반, 세교반, 장안반 등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³⁴⁾ 신간회 수원지회는 당시 지역 유지들뿐만 아니라 수원청년동맹과 각종 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도 합세하여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대표적으로 수원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공석정과 박승극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1929년 8월 신간회수원지회 대표로 선임되어 김병호와 함께 경기도지회연합회에 참석하기도 했다.³⁵⁾

6) 격문사건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수원청년동맹 산하의 수원소년동맹의 맹원이었던 홍종근(洪鍾根, 당시 18세)과 김장성(金長成, 당시 18세)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은 1930년 10월 12일이 화성학원의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종이에 '무산대중(無産大衆)에게 격(檄)함, 노동자·농민은 일치 단결하자, 전민족적 대중투쟁을 권기(捲起)하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최후까지 반항하자, 조선총독부 폭압정치를 타도하자, 무산자·노동자·농민 만세' 등의 내용을 쓴 16매의 문서를 만들어 수원면 북수리에서 수

33) 『朝鮮日報』 1927년 10월 20일 석간 4면

34) 『朝鮮日報』 1928년 12월 30일 석간 4면

35) 『朝鮮日報』 1929년 8월 28일 석간 4면

원면 읍내에 이르는 10여 곳의 장소에 붙여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³⁶⁾

이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수원지역의 청년들과 사회단체는 일제 경찰의 대대적인 검속과 탄압을 받게 되었다.³⁷⁾ 사건 발생 약 한달 뒤 전모가 밝혀지면서 먼저 검거되었던 사람들은 풀려났고, 격문사건의 주범인 수원소년동맹원이었던 홍종근과 김장성이 붙잡히면서 종결되었다.³⁸⁾

홍종근과 김장성은 식민지 현실의 불평등함을 격문으로 써서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들은 일제의 폭압적 정치에 항거하며 무산대중의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희망을 불태웠는데, 사실 수원소년동맹은 수원청년동맹의 지도를 받던 조직으로 동맹원들은 공석정과 박승극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일제 경찰의 사건 조사와 검거활동은 수원지역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강경한 탄압 술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때문에 당시 수원지역의 사회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2. 식민지 '수원(水原)'의 자화상, 주목할 만한 기사들

1) 농업중심의 도시 수원, 식민지 홍보에 나서다.

일제는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 조선인들에게 문명을 선전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표적인 행사가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 물산품평회(物產品評會) 등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가 시혜(施惠)임을 보이기 위해 각 도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출품시켜 조선의 산업 발달의 실상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대대적인 선전과 대중을 동원 하였다. 이러한 선전활동은 일제의 침략성과 수탈성을 숨기는 것을 목적으로 식민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농민들에게 농사개량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6년에는 전국적으로 농산품평회(農產品評會)가 316개소에서 개최될 정도로 확산되었는데, 수원지역에서도 대규모의 물산품평회가 1910년대부터 계속되었다. 경기도물산품평회의 중심지역은 수원이었다. 수원은 경기남부의 각

36) 『朝鮮日報』 1930년 10월 13일 석간 2면

37) 『朝鮮日報』 1930년 10월 14일 석간 2면

38) 『朝鮮日報』 1930년 11월 28일 석간 7면

군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교통과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물산품평회에서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³⁹⁾

『조선일보』에 보이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20년대 잠견품평회(蠶繭品評會)⁴⁰⁾, 쾌발경진회(稗拔競進會)⁴¹⁾가 열렸고, 대규모 행사로는 수원도다품평회(水原稻多品評會)가 수원군과 진위(振威), 안성(安城), 용인(龍仁), 이천(利川)의 5개군 연합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산미증수(産米增收)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추수기를 바로 지나 각군에서 대표적인 논(畓)을 지정하여 출품하면, 그것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군직원이 평예심사(坪刈審査, 평을 나누어 심사함)를 시행한 후 성적을 주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61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⁴²⁾ 당시 출품된 논은 모두 100점으로 60%의 출품 논이 상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시상내역으로는 금전이 주어졌는데, 특등은 40원으로 3점이 해당되고, 1등은 25원으로 8점, 2등은 15원으로 20점, 3등은 5원으로 30점의 출품 논들이 상을 받았다. 60%이상이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장려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1920년대 산미증식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업진흥책에 골몰했다.

1923년 11월에는 ‘팔군연합물산합품평회(八郡聯合物産合品評會)’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각 군의 농사장려회 주도로 열렸는데, 수원지역에서 열린 최대의 물산품평회 행사였다. 팔군연합물산합품평회는 1923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열렸다. 참가군은 수원, 시흥, 부천, 진위, 안성, 용인, 이천, 여주이다. 그리고 출품종류는 농산물 2천2백90점, 잠업(蠶業) 8백점, 축산(畜産) 2백10점, 임업(林業) 4백점, 공업(工業) 2백점으로 모두 4천점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⁴³⁾

팔군품평회는 열리자마자 첫날 입장자가 1만명이나 되었다. 둘째날 입장자는 1만 5천명, 3일째에는 2만 6천여 명이였다. 품평회 기간 5일 동안의 총입장자는 5만여명을 넘어섰다. 당시 품평회로서는 대규모 행

39) 수원지역의 물산품평회와 관련하여서는 이동근, 「1920년대 水原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 농업진흥책」 『水原學研究』 2호, 水原學研究所,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40) 『朝鮮日報』 1923년 9월 24일 석간 4면

41)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 석간 4면

42) 『朝鮮日報』 1923년 10월 17일 석간 4면

43) 『朝鮮日報』 1923년 11월 10일 석간 3면 1923년 11월 16일 석간 2면 1923년 11월 29일 석간 4면

사로 관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었고, 그 만큼 인력동원도 이루어졌던 행사였다.⁴⁴⁾

팔군품평회 외에도 농업진흥의 장려정책으로서 수원지역에서는 농산물 품평회가 계속되었다. 『조선일보』에도 1924년 11월의 수원가금품평회(水原家禽品評)⁴⁵⁾, 1927년의 수원, 용인, 진위, 안성의 4군연합조선품평회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4군연합조선품평회는 정조대왕의 사당인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까지 이루어지며 벌어졌다.⁴⁶⁾

품평회의 목적은 일제의 식민농정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 그리고 출품된 종류들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상품화시킨 정책적으로 지원·육성되던 품종들이었다. 품평회를 수행했던 계층은 지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품평회 자체에 대한 혜택도 지주들에게 돌아갔고, 관청의 농업진흥에 대한 지원도 지주들 몫이었다. 결국 지주들은 여러 가지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정책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무너져 가는 수원성(華城), 방치된 문화유산

수원지역은 지리적으로 삼남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 도시로서 기능해왔다. 더욱이 수원지역이 본격적인 도시적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1789년 구읍치의 이전을 시작으로 한 화성성역(華城城役)의 완료에 있었다.

화성성역의 결과는 당대의 많은 학자들의 고민과 개혁정신이 표현된 것이었다. 더구나 개혁군주로 평가 받는 정조 임금의 애민정신과 개혁정신 등 근대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 사후 근대에 대한 열망은 세도정치라는 혼란기로 인해 이상적 꿈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정신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이어지며 외세의 침략 속에 근대적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화성(華城)’이라는 개혁의 산물은 시대적 흐름 속에 방치되고 파괴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구한말 시대의 격동 속에 방

44) 이동근, 앞 논문, 2005 참조

45) 『朝鮮日報』 1924년 11월 7일 석간 3면

46) 『朝鮮日報』 1927년 10월 31일 석간 4면

치되기 시작했던 화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파괴와 방치에 더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도시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물과 길이 만들어 지면서 화성의 석재가 건축자재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수난이 시작되었다. 식민지적 도시변화 속의 화성의 방치와 파괴는 『조선일보』의 1927년 7월 20일 기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화성의 성벽을 허물어서 건축재료 또는 하수도 자재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성 성벽이 정제된 돌로써 이용하기 편했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중요하게 1920년대 대홍수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남수문(南水門)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도시발전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허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연무대(鍊武臺), 화령전(華寧殿) 등이 방치 속에서 기둥이 어그러지고, 기와가 벗겨지고 건물이 기울져 가는 형국에 놓여 있었다.⁴⁷⁾

반면 일제강점기 화성의 모든 시설물들이 방치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이 다시 복구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수원팔경으로도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예찬의 대상이 되었다. 화성 축성이후 정조임금은 화성과 어우러지는 수원의 경치를 봄과 가을로 나눠 ‘춘팔경(春八景)’과 ‘추팔경(秋八景)’으로 그려 기록으로 남겼는데, 『조선일보』에도 1920년대 초반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 서호의 달구경을 위한 관광열차의 운행기사가 실렸고,⁴⁸⁾ 방화수류정이 수원의 명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⁴⁹⁾

수원팔경은 시인에게는 시를 짓고, 화가에게는 그림으로 그려져 회자되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 수원팔경을 주제로 한 시조가 실리기도 했다.⁵⁰⁾

이렇듯 일제강점기에도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일부 화성의 부속 시설물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랑받고

47) 『朝鮮日報』 1927년 7월 20일 조간 1면

48) 『朝鮮日報』 1921년 9월 17일 석간 3면

49) 『朝鮮日報』 1921년 9월 21일 석간 3면 ;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50) 『朝鮮日報』 1925년 12월 18일 석간 3면, 1925년 12월 18일 조간 3면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시의 변화 속에 화성 내외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더구나 철도의 개통에 따른 교통의 변화는 지역민의 삶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았다.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신작로가 만들어 지면서 일본인 거주지와 거리가 형성되었고, 성내외에는 각종 관공서와 금융, 상업적 근대적 건축물들이 들어서 도시 미관을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조대 축조된 화성은 방치 속에 수난을 겪게 되었다. 더 이상 도시의 중심은 화성이 아니었다. 명승고적으로 이름이 높았던 화성의 몇 개의 부속 시설물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벽의 돌들은 고의로 무너뜨려져 도로와 하수도 건축 자재 등으로 사용되었다.

3) 식민지 차별을 철폐하라!

수원지역은 조선후기 정조 임금때 화성성역과 함께 농업진흥책으로서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이 조성되었다.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시설로 만석거(萬石渠), 축만제(祝萬堤) 등의 관개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근에 드넓은 국영농장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선직적 협동 영농의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농업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농업정책 기구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1906년에 서호(西湖) 옆에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일제강점기 식민농정을 실천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기능했다. 처음엔 식민농정의 전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는 식민농정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실천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 모두를 수행해 나갔던 대표적인 식민기구였다.⁵¹⁾

이와 함께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9월 농상공학교를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교명을 농림학교라 개칭하면서 농상공학교의 농과생과 경성학당 농업속성과 학생을 수용하여 입학속성과 학생을 모집하면서 서울에서 개교하였다. 이후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8년 1월에는 당연직 교장이 농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에는 관계개정에 의하여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

51)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水原지역을 중심으로 -」, 『史林』 24호, 首善史學會, 2005 참조

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개정에 의하여 수원농림 전문학교가 되었다. 192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이때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⁵²⁾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선별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와 관리들이 거의 일본인으로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여러차례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지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출이었다.

1923년 5월 3일 수원고등농림학교 조선인 학생 59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유는 조선인을 본위로 하는 학교가 일본인을 본위로 하여 그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첫째로 기숙사를 구별하여 동료(東寮)는 조선인 학생을 수용하고 서료(西寮)는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는데 그 시설설비가 차이가 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선인 학생 일부를 서료에 수용시켜 차별적 대우를 더 심하게 하였으며, 둘째로 교우회 주최로 여는 강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조선인을 천시하고 모독하는 강연을 진행하였고, 셋째로 조선인 학생에게 일본음식을 강제로 먹게하고 조선음식, 특히나 김치를 못먹게 하는 차별을 하였다. 이에 조선인 학생들은 6개의 요구조건을 내세워 진정서를 제출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9명이 전부 자퇴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갔다. 이후 학교측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학생들이 강경 태도를 철회하고 원만히 해결하였다.⁵³⁾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문제는 1926년의 동맹휴학 사건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무자격 교사 축출과 교사 신축 등의 요구를 들고 2백여 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⁵⁴⁾ 이 과정

52) 조성운, 앞 논문, 1995 참조

53) 『朝鮮日報』 1923년 5월 10일 석간 3면 ; 학생들이 요구한 6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을 본위 삼아 조선인을 다수 모집하고, 일본에서 행하는 입학시험을 폐지할 것
2. 조선인 기숙사를 새로 건축할 것
3. 서료에 있는 조선인 학생을 조속히 동료로 옮길게 할 것
4. 만찬회를 폐지할 것
5. 교수 일반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진실한 태도를 갖출 것
6. 강연은 학술적 강연만 하고, 정치적 강연은 금할 것

에서 학교측은 강경한 태도로 동맹휴학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고 무기정학에 처했는데,⁵⁵⁾ 학생들의 강경한 대응과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자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⁵⁶⁾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민족해방운동의 거센 물결이었던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변화를 가져왔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체제는 문화정치라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의 힘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표면적이거나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화정치로의 개편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식민지 교육 체제의 개편이었다. 1922년 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교육령 개정에 표방된 취지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였다. 일본 교육과 동일한 학제를 조선에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고, 중등학교 교육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사범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을 재편하면서 1920년대 초등 교육이 팽창되었다.⁵⁷⁾

이러한 상황 속에 수원지역 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중 안릉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이 1923년 추진되었다. 1923년 추진된 안릉면의 보통학교 설립은 당시 안릉면장 김남소(金南韶)와 유지 박희양(朴熙陽) 등의 발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별도로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부금 모집과 설계안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이 9천여원에 달했으며 이 중 현금이 2천여원이나 되었다. 박희양의 경우는 개인이 5백원이라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다.⁵⁸⁾ 이렇게 하여 관과 지역 유지의 합동으로 안릉공립보통학교가 1924년 4월 23일 설립인가되었고 1924년 9월 11일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54) 『朝鮮日報』 1926년 6월 25일 석간 2면

55) 『朝鮮日報』 1926년 6월 27일 조간 2면, 1926년 6월 29일 조간 2면

56) 『朝鮮日報』 1926년 7월 5일 조간 2면

57)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4~27쪽

58) 『朝鮮日報』 1923년 12월 2일 석간 4면

안룡공립보통학교는 식민지하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영의 주체는 식민지배 권력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인가와 그 관할하에 운영되었던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교장이 취임하여 학교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적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안룡공립보통학교에는 개교후 3년 뒤 일본인 교장과 조선인 교원 권영호(權寧鎬, 35) 외의 한사람 등 교원이 모두 세명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교장의 민족적 차별과 돌출 행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며 조선인 교사와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인 교장은 개성의 한 보통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안룡공립보통학교로 부임하였던 자였다. 그는 전근 되어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조선인 교원을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권영호 선생에게는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언어와 행동이 많았다. 그러다가 권영호 선생이 1학년 담임으로 수업을 하는 중 교장이 들어와 학교의 위생시설이 형편없음을 질책하면서 교실내의 거미줄과 바닥청소 등을 강요하며 권영호 선생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다며 권영호 선생에게 배일사상의 혐의가 있다고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분함을 이기지 못한 권영호 선생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교장은 오히려 권영호 교사가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많아서 자살하려 하였다고 모함까지 하였다. 결국 학교의 평의원과 학무위원들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군수와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인 교장을 다른 곳으로 전근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권교사의 경우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태의 책임상 함께 전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⁵⁹⁾ 이것은 단순한 학교의 개인 문제로 비취질지 모르지만, 달리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구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인의 일본인으로서의 동화과정이었고 그것의 방법적 수단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교육의 민족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9) 『朝鮮日報』 1926년 3월 14일 조간 2면

4) 배워야 산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일보사 주최로 문자보급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당시 한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않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한글 교육을 시켜 『조선일보』의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경영적 측면의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수원지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고향에 내려와 동리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글강습을 하였다. 수원학생친목회(水原學生親睦會)에서도 조선일보사 주최인 문자보급반을 열고 무산아동 및 부녀자 170여명을 가르쳤다. 삼일학교와 종로예배당을 빌려가며 한글을 가르쳤는데, 강사로는 이광진(李光眞), 송성인(宋性仁), 권영숙(權英淑) 등이 참여하였다.⁶⁰⁾ 향남면(鄉南面)에서도 이범우(李範雨)가 문자보급반을 운영하였다. 아동과 농민들에게 구구법과 철자법을 가르쳤으며 한글원본이 농가(農歌)가 되기도 하였다. 약 55명이 배움을 익혔으며 여학생도 13명이나 되었다. 또한 연령도 8세에서 20세까지 매우 다양하였다.⁶¹⁾ 수원면 고등리(高等里)에서도 이흠(李翕), 임헌상(林憲相) 등의 주도로 문자보급반 활동이 벌어졌다. 동리의 심철구(沈喆求)의 집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에 지역 유지들이 학용품 등을 원조하기도 하였다. 문맹아동 남녀는 약 1백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차츰 장소와 여러 시설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 학생수가 40여명으로 감소하였다.⁶²⁾

조선일보사 문자보급반의 가장 큰 목적은 한글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사는 한글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계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편에 문자보급과 문맹퇴치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이나마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수원지역에서는 ‘오산노동학원사건(烏山勞農學院事件)’이 발생하게 되었다.⁶³⁾ 수원지역에서는 이미 노동야학 운동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태장면에서 최성

60) 『朝鮮日報』 1930년 8월 8일 석간 6면

61) 『朝鮮日報』 1930년 9월 3일 석간 6면

62) 『朝鮮日報』 1930년 9월 12일 석간 3면

63) 이동근, 앞 논문, 2007 참조

규가 노동야학강습회(勞動夜學講習會)를 만들어 야학을 운영하였고,⁶⁴⁾ 수원군 평리에서 황봉옥은 평림야학(坪林夜學)을 열어 남학생 60여명과 여학생 20여명에게 일본어·산술·한글 교육까지 하였다.⁶⁵⁾ 그리고 일형면 영화리에서는 화북야학강습소(華北夜學講習所)를 일본인 신조호지조(辛鳥虎之助)가 창립하여 용인숙(龍寅淑), 박암회(朴岩回), 수진준개(水津俊介), 목전이태랑(木田利太郎), 조일원(趙一願) 등과 함께 남아 7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어·산술·한글 등을 열심히 가르쳤다.⁶⁶⁾

‘오산노동학원사건’은 수원청년동맹 산하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청년들의 노동야학 운동이었다. 오산에서의 문자보급반 활동은 1929년 7월경부터 연희전문학교 학생 이성모(李聖模)와 실업전수학교 학생 황경후(黃慶厚)가 시작했다. 이들은 문자보급반을 오산리에 설치하고 무산아동 60명을 민가에 모아 놓고 야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반 가옥을 빌려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임대료가 체납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또한 이성모와 황경후가 일본유학을 결심하면서 문자보급반 활동은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는 이를 인수하여 명칭을 노동야학으로 바꾸고 오산리의 유길동(兪吉童)과 박달순(朴達順) 집에서 2조로 나누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성호지부의 임원이었던 변기재는 당시 조선일보 오산지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노동야학은 성호지부의 변기재, 이원식, 조명재, 황경후, 이수경 등이 교사로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하였다. 그 후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면서 명칭도 ‘노동학원(勞農學院)’으로 바꾸었다. 이전의 문자보급반의 활동이 단순한 한글 교육과 보급에 있었다면, 노동학원은 수원청년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무산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이어졌다.⁶⁷⁾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통치체제를 벗어나는 희망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청년들은 무산아동들의 교육을 통

64) 『朝鮮日報』 1923년 2월 12일 석간 4면

65) 『朝鮮日報』 1929년 4월 22일 석간 4면

66) 『朝鮮日報』 1929년 4월 23일 석간 4면

67) 『思想에 關한 情報(4)』, 「勞農學院赤化事件 檢舉에 關한 件」水警高秘 제3709호, 1932년9월11일 : 『思想에 關한 情報(4)』, 「勞農學院赤化事件 檢舉에 關한 件」京高秘 제5746호, 1932년 9월 14일.

해서 새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을 전망했다. 이 이념은 젊은 지식층은 물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의 목표달성은 이들의 혁명의지에 달려있었다.

5) 수원 화류계와 기생들의 이야기

수원에 언제부터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13년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방기생조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원기생조합도 이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 서울의 대표적인 권번과 지방기생조합들이 소개되었는데 수원기생조합도 같은 반열에서 당당히 소개되고 있다.⁶⁸⁾ 이때의 수원기생들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만세를 불렀던 자랑스런 여인들이었다.

수원예기조합 기생 김향화 등 30여명은 1919년 3월 29일 건강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자혜의원(慈惠醫院, 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당시 꽃다운 나이의 기생들은 자신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경찰서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원기생들은 고종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로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도 곡을 하였는데, 국부를 잃은 슬픔과 나라 잃은 한은 다시 한 번 만세운동으로 승화되었다.⁶⁹⁾

1920년대 초에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화류계 성적도 불량하여 수원예기조합의 수익도 감소하였다. 1920년대 수원기생조합의 공식명칭은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었다. 경제 불황의 여파로 수익이 감소하자 수원예기조합에서는 유흥 표창 수상식까지 거행하였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수원예기조합은 전년에 비해 수익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였고, 표창수상식의 1등은 기생 박설성월(朴雪城月)이 951시간을 일하여 상을 탔다고 보도되었다.⁷⁰⁾

수원예기조합은 예기조합에서 권번 체제로 이행되어 운영되는 것이

68) 靑柳綱太郎, 1918. 7, 『朝鮮美人寶鑑』, 朝鮮研究會·新舊書林(2007, 민속원 영인본)

69) 이동근, 「의기(義妓) 수원기생들의 3·1운동」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참조

70) 『朝鮮日報』 1924년 1월 22일 석간 3면

다소 늦었다. 수원기생들은 1925년 권번 체제로의 탈바꿈을 위해 뒤늦게나마 권번 신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국의 권번 허가는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수원기생 일동이 영업을 정지하고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예기조합의 기생 18명은 1925년 2월 22일 영업을 정지하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역설하며, 기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욕적인 것으로 검사 철폐를 주장하였다. 동시에 기생들은 수원예기조합을 권번으로 변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부령(府令)을 들어 기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기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휴업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생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새로운 권번 설립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던 집단행동이었다.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만큼 기생들도 집단화하는 속에서 사회의식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생들 스스로 사회 모순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실제 수원예기조합이 권번으로 언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정황상 대략 1930년대 초중반일 것으로 여겨진다. 1929년에는 한 달 동안 수원에 기생이 20여명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수원지역에 경기가 호황을 맞고 7군데 요릿집이 손님이 끊이질 않자 당시 14명밖에 안 되는 기생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각 처의 기생들이 수원으로 몰려들었고, 한 달 사이에 20여명의 기생이 새로 늘어났다.⁷¹⁾

수원예기조합이 수원화성권번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36년에는 평의원으로서 서죽필(徐竹必), 변금화(卞錦花), 홍운주(洪雲珠), 예기는 정금도(鄭錦桃), 성일도(成一桃), 황국향(黃菊香), 김송학(金松鶴), 유벽도(劉碧桃) 등의 이름을 실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었다. 권번의 기명 광고로서 당시 권번에 평의원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예기들의 이름에 복숭아 ‘도(桃)’자를 쓰고 있는데 매우 도색적이고 풍류의 멋을 한껏 풍기고 있다. 금도는 비단 같은 복숭아요, 일도는 오로지를 강조

71) 이동근, 앞 논문, 2008 참조

하고, 벽도는 영롱함을 내비친다. 국향은 국화의 절개를 나타내고, 송학은 고고함을 연상시킨다. 이 밖에 몇몇 고로의 증언에 의하면 수원에는 구슬 ‘옥(玉)’자가 든 심재옥(沈在玉)·권재옥(權在玉)·이재옥(李在玉) 등이 기생 삼총사로 이름을 날렸고, 엄계화(嚴桂花)·한금화(韓錦花)·능파(凌波)·단계(丹溪) 등이 장안의 한량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전한다.⁷²⁾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 아래 비상시국에 일반인들은 소비절약과 근검저축이 강요되고, 일반 상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수원의 화류계는 날로 번창하여 각처의 기생들이 수원에서 영업하겠다고 모여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번창을 일기로 조합제로 운영하던 화성권번은 주식회사로 출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관을 만들고 새로운 사무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이유는 사무소 건축에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은 뒤 최저 견적자가 아닌 최고 견적자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⁷³⁾

자료적으로 보면 수원의 기생은 1918년 33여명에서 1925년 18명, 1929년 14명에서 30여명으로 늘었고, 화성권번(華城券番)으로 바뀐 뒤 1940년대에 파악되는 자료에는 50여명의 기생들이 줄곧 상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⁷⁴⁾ 수원기생의 수는 표면적으로만 파악된 숫자이다. 기예가 뛰어나고 활동이 두드러진 기생들만을 조사한 숫자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기생들이 수원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기생의 수가 줄어서 나타난 것은 역시 3·1운동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3·1운동을 주동했던 많은 기생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복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화성권번으로 바뀐 뒤 50여명의 기생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때 지방 권번으로서는 매우 큰 규모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72) 李昌植,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53쪽

73) 『朝鮮日報』 1938년 5월 10일 조간 3면

74) 『思想에 關한 情報(14)』 「國民總力運動에 따른 民情에 관한 건」 京高秘 제141호의3, 1941년 3월 25일 ; 『思想에 關한 情報(13)』 「時局下の 民情에 관한 건」 京高秘 제2426호, 1941년 8월 29일 ; 『思想에 關한 情報(13)』 「時局下の 民情에 관한 건」 京高秘 제2686호, 1941년 9월 24일

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원기생들은 인생의 수많은 변화 속에 예기조합에서 권번으로의 삶을 살면서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 이후에는 역사의 뒀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6) 1936년의 수원지방 소개 기사와 당시 각계 중진들

『조선일보』에는 1930년대 수원지역의 지역상황과 주요 인물들을 알려주고 있는 '수원지방소개' 기사가 특별판으로 1936년 6월 12일자로 석간에 두면을 할애하며 소개되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의 이득우(李得宇) 였다.

수원지방소개에는 수원지방의 군세(郡勢)와 인구 16만의 현황, 수원지방의 연혁 및 지리가 소개되었고, 행정, 교육, 통신, 교통, 금융, 의료분야가 자세히 보도되었다. 더불어 실업계의 총관이 실렸고, 각계중진의 포부가 실려 당시 수원군수 송문화(宋文華), 수원읍장 매원정웅(梅原靜雄), 교육과 위생분야의 신현익(申鉉益), 교통분야의 수원역장 김상곤(金翔坤), 전기분야의 증전무웅(增田武雄), 초등교육분야의 삼일학교장 김병호(金炳浩) 등의 글이 실렸다. 또한 수원지역의 각계인물로 '수원사회의 은인 수원의원장 신현익씨', '치산치수노력 일형면장 이필상(李弼商)씨', '철도조선의 중진 수원역장 김상곤씨', '교육계의 중진인 수원고등농림교장 탕천우부(湯川又夫)씨', '청아온직(清雅溫直)한 삼괴공보교장 대암근촌덕(大岩根村德)씨', '수원발전 공로자 수원읍장 매원정웅씨', '실직근면(實直勤勉)한 은행가 한은지점장 김병희(金炳熙)씨', '사설철도의 왕인 경동철도 황목무이랑(荒木武二郎)씨', '수원금융조합 이사 적목직지(赤木直枝)씨', '산업개발의 공로자 식은지점장 안동정치(安東政治)씨', '개성 존중하는 송산공보교장 미도무평(尾道茂平)씨', '경찰행정의 준재(俊才) 수원서장 등출을치랑(藤出乙治郎)씨', '공보 설립 은인 양감면장 이광우(李光雨)씨', '50당년 활동가 수원군수 송문화씨', '오산 제이금조 이사 천전주장(川畑周藏)씨', '온순담아(溫順淡雅)한 양감공보교장 무정용(武井勇)씨', '이론보다 실지 반월공보교장 석본시삼(石本市三)씨', '성(誠), 애(愛), 행(行)을 신조 남양공보교장 암월주부(岩月周夫)씨', '임업계의 권위 수원고농교수 식목수간(植木秀幹)씨', '온순무결(溫順無缺)한 봉담공보교장 와전정(窪田鼎)씨', '건강제일주의

팔탄공보교장 궁본이지길(宮本伊之吉)씨, '남양금조 이사 등전옥언(藤田郁彦)씨', '강직종의(剛直從義)의 향남공보교장 이등시삼랑(伊藤矢三郎)씨', '덕의풍부(德義豐富)한 수원공보교장 답명태삼(沓名泰三)씨', '화성금조 이사 조창일미(朝倉一彌)씨', '오산금조 이사 이등중웅(伊藤重雄)씨', '면행정 원로 음덕면장 홍승은(洪承殷)씨', '지애(至愛)로 대하는 마도공보교장 횡침천향(橫枕千鄉)씨', '사강금조 이사 김중우(金鍾宇)씨' 등이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소개된 인물들은 당대 수원지역의 정치와 경제,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중진 인물들로서, 바꿔 말하면 식민지 구조의 정착과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인물들로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며 수원 지역 사회를 더욱더 식민지 사회로 고착시킨 인물들이었다. 이 기사들은 1930년대 수원지역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어쩔 수 없는 선택(?), 애국기 '수원호(水原號)'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선인 지주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활동범위가 컸던 명망가들이며 유지들이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시 3대 지주로 불렸던 홍사훈(洪思勛)과 양성관(梁聖寬), 차유순(車裕舜) 등이 있다. 이들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유지층으로서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금융 등의 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갔다. 또한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고, 수차례에 걸친 기부금을 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현실은 이들을 이중적 행태에 빠뜨렸다. 일본인 지주들이 여러 농업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정책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조선인 지주들도 정치적으로는 일제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농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식민지지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소작인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농사개량에 노력했다.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감면해주고 저곡을 나누어 주는 등의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조선인 지주들이 일본인 지주들과는 달리 농업진흥을 위해 전통적인 소작관계

를 유지하면서 소작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모습이 었다.

일제는 1937년 8월 13일 '제2차 상하이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 하면서 중일전쟁을 발발시켰다. 일제강점기 이 시절은 전시체제하 민족말살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이다. 황국신민화 정책과 함께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민족말살정책으로 창씨개명, 조선어 교육과 사용금지, 신사 참배의 강요, 노동력 강제 징발 등이 행해지고, 조선사에 대한 왜곡도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사소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통제되던 시기였다.

이때 일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모금 행위 등을 강제하며 인적·물적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 수원지역 유지들도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적극적인 수금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국방헌금 납부와 황군위문금 모금 등이다.

본격적인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국방헌금이 납부되기 시작하면서 수원 지역에서는 먼저 일본인 유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식회사 부국원과 동산농사주식회사 수원지점 등이 국방헌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⁷⁵⁾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 개인들의 헌금과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용주사 등의 헌금이 이어졌다.⁷⁶⁾ 이후에는 화성권번 기생들도 국방헌금을 모금하고자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⁷⁷⁾

그중 수원에서의 대표적 국방헌금은 애국기 수원호(水原號)의 헌납이었다. 1937년 9월 21일 양성관, 차유순, 윤태종 등의 수원지역 유지 70여명이 모여 애국기 수원호에 대한 조성기금을 1만 5천원이나 출 연하여 기부했다.⁷⁸⁾ 이로 인해 수원군내의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헌금 하여 10월 초에 이미 2만 5천원이 모여 기사화 되었고,⁷⁹⁾ 12월에는 목표 달성을 초과하여 수원군수가 육군사령부를 방문하여 4만 2천원의 애국기 수원호 자금을 헌납하였고, 초과로 거둬들인 7천여원은 해군의 기재비로 헌납하였다.⁸⁰⁾

75) 『朝鮮日報』 1937년 7월 24일 석간 27면, 1937년 7월 27일 석간 27면

76) 『朝鮮日報』 1937년 8월 4일 석간 27면, 1937년 8월 10일 석간 27면

77) 『朝鮮日報』 1939년 3월 25일 조간 3면

78) 『朝鮮日報』 1937년 9월 23일 석간 27면

79) 『朝鮮日報』 1937년 10월 3일 석간 27면

수원지역에서 벌어진 애국기 수원호의 행태는 엄청난 국방헌금이 아닐 수 없다. 1930년대 전시체제하의 민족말살기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지역 유지로서의 존립 위기도 있었겠지만,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헌금의 납부 강요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식민지 체제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중적 행태로서 애국기 수원호로 불리는 국방헌금은 수원지역 최대의 친일행각이라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기사들은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이용을 떠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모습과 인물들, 식민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청년동맹 활동과 사회주의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난하는 유언비어와 격문 사건 등을 굳이 전면에서 부각하여 내세우지 않더라도 많은 기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강제적이고 통제적이었던 식민지 사회에서도 수원지역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1920년대 청년운동이 활기를 띠며 지역 발전에 많은 젊은이들과 지역 유지들이 공을 들였고, 방치되어 가던 화성을 복원하는 노력도 보였다. 또한 학생들과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의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 투쟁도 벌여갔다. 그리고 우리의 글과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야학운동도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그 과정에서 1940년대 해방되기 전까지 수원 지역민들은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한편으로는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모습도 보이고, 식민지 농업연구 기관이었던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모습도 변화무쌍했다. 각종 품평회, 전시회 그리고 체육대회 및 시민운동회 등은 수원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30년대 식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혹독함 속에서는 어쩔

80) 『朝鮮日報』 1937년 12월 7일 조간 2면

수 없는 친일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본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수원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통제와 강압이 강화되었지만 민족적 감정과 울분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다각적으로 적응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
『東亞日報』
靑柳綱太郎, 1918. 7, 『朝鮮美人寶鑑』, 朝鮮研究會·新舊書林(2007, 민속원 영인본)
「判決文」, 1920년 刑公 第1429號, 京城地方法院, 1921년 4월 12일
『思想에 關한 情報(4)』, 「勞農學院赤化事件 檢舉에 關한 件」水警高秘 제 3709호, 1932년9월11일
『思想에 關한 情報(4)』, 「勞農學院赤化事件 檢舉에 關한 件」京高秘 제 5746호, 1932년 9월 14일
『思想에 關한 情報(13)』 「時局下の 民情에 關한 件」京高秘 제2426호, 1941년 8월 29일
『思想에 關한 情報(13)』 「時局下の 民情에 關한 件」京高秘 제2686호, 1941년 9월 24일
『思想에 關한 情報(14)』 「國民總力運動에 따른 民情에 關한 件」京高秘 제141호의3, 1941년 3월 25일
- 박용규,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제46-1호, 2001
_____,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 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4호, 2009
- 박 환,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 - 건아단과 조선 개척사를 중심으로」 『길현익교수 정년기념논총』 1996
_____,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 血復團과 救國民團을 중심으로 -」 『京畿史學』 제2호, 경기사학회, 1998
-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 이동근, 「水原지역 3·1운동에서 天道敎의 역할 - 雨汀·長安面을 중심으로」 『京畿史學』 7, 경기사학회, 2003
_____,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水原지역을 중심으로 -」, 『史林』 24호, 首善史學會, 2005
_____, 「1920년대 水原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 농업진흥책」 『水原學

- 研究』 2호, 水原學研究所, 2005
- _____,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 _____, 「의기(義妓) 수원기생들의 3·1운동」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 李昌植,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문화원, 2003
- 장 신,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 『역사비평』, 2010
- 조성운, 「日帝下 水原高農의 學生運動과 常綠樹運動」 『慶州史學』 14, 1995
- 崔由利, 「日帝 末期 言論政策의 性格 - 東亞·朝鮮日報의 廢刊을 中心으로 -」 『梨花史學研究』 第20·21合輯, 1993

[국문초록]

1920년대부터 1940년대 발간된 『조선일보』에서 ‘수원(水原)’과 관련된 기사들만을 목록화하여 기사들의 내용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수원지역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들, 사회운동(청년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의 모습들, 지역 유지들의 동향 등과 각종 사건·사고 등의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난 100년전 수원지역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수원지역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모습, 식민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청년동맹 활동과 사회주의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난하는 유언비어와 격문 사건 등을 굳이 전면에 부각하여 내세우지 않더라도 많은 기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모습도 보이고, 식민지 농업연구 기관이었던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모습도 알 수 있었다. 각종 품평회, 전시회 그리고 체육대회 및 시민운동회 등은 수원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1930년대 식민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혹독함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친일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본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수원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통제와 강압이 강화되었지만 민족적 감정과 울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다각적으로 적응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놓지 않았다.

주제어 : 수원(Suwon), 조선일보(Chosunilbo),
3·1운동(3·1movements), 수원청년동맹(Suwon youth union),
오산노동학원(Osan laborers and farmers academy),
권업모범장(Kwonupmobumjang), 화성(Hwasong fortress)

[Abstract]

The Contents and the Tendencies of Chosunilbo's (Daily Chosun) Articles on Suw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Lee, Dong-geun

We've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 tendencies of articles in the Chosunilbo issued during the 1920s through the 1940s after creating a list of articles related to Suw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won region in the colonial context were assessed through the newspaper articles. By reviewing the articles on the Suwon region's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social activism (youth movement, labor movement, female movement, etc), status and affairs of the local leaders and various incidents and events, we were able to understand how the Suwon region looked roughly 100 years earlier.

Through many stories in the articles that included the highly activ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Suwon area, youth union movements and socialist movements that envisioned a new society overcoming colonialism, and statements that criticized the Japanese rule, we could learn that living as a colonized people was not easy at all.

On the other hand, we could see certain shapes of development per modern capitalism as well as transformation into a new society centered around Kwonupmobumjang. Several exhibitions, displays, sports competitions and citizen movements were becoming the new norm in the lives of the Suwon area's residents. Also, we could see inevitable pro-Japanese activities arising under strengthened colonial rule during the 1930s and the harsh reality due to the Sino-Japanese war.

The lives of Suwon residents as seen through Chosunilbo were truly

varied. Despite the strengthened control and pressur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people living in the Suwon area did not conceal national spirit and anger. Also, they were adapting to the newly transforming society in various aspects and did not forfeit renewed hope for life.

Keywords: Suwon, Chosunilbo, 3·1movements, Suwon youth union, Osan laborers and farmers academy, Kwonupmobumjang, Hwasong fortress

회 보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편집위원 약간 명
5. 상임연구원
6.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상정,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5.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위촉)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20조(권한 및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3. 회지 논문 및 간행물 투고에 관한 규정 작성.

제21조(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2월 29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7월 3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1> 제목, 목차, 필자 명

1. 게재 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2>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 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3>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 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3.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 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5> 주의사항

1. 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 첨부

① 맺음말 뒤에 국·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②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③ 주제어는 국·영문 각 5개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초록 뒤에 첨부한다.

2.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수원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강진갑(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위원 : 정수자(시 인)
최자운(경기대강사)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편집간사 : 김민서(수원문화원 학예연구사)

水原學研究

第八號

인쇄 2011년 12월 23일

발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인 염상덕

발행처 수원문화원부설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TEL : 031-244-2161~3

제작 한언기획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